셜록 홈즈의 사건집

The Case-Book of Sherlock Holmes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92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Case-Book of Sherlock Holmes" (The Strand Magazine 1921–27)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69700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명한 의뢰인

"이제는 공개해도 해 될 것 없겠지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열 번이나 같은 부탁을 반복하며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할 때마다, 셜록 홈즈 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침내 내 친구의 경력에서 어떤 면으로는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다.

홈즈와 나, 우리 둘 다 터키식 목욕탕을 유독 좋아했다. 건조실의 기분 좋은 나른함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면, 홈즈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덜 과묵하고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 노섬벌랜드 애비뉴에 있는 그 목욕탕의 위층에는 외딴 구석에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놓인 공간이 있었다. 1902년 9월 3일,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우리는 그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요즘 뭐 좀 흥미로운 사건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홈즈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시트

밖으로 길고 가느다란, 신경질적인 팔을 쑥 내밀더니, 옆에 걸린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다.

"사소한 일에 유난을 떠는 오만한 바보의 장난일 수도 있고,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네."

그가 내게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이 메시지에 적힌 내용 말고는 나도 아는 게 없네."

그것은 칼턴 클럽에서 보낸 것이었으며, 날짜는 전날 저녁으로 되어 있었다. 내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임스 데머리 경이 셜록 홈즈 씨에게 경의를 표하며, 내일 4시 30분에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데머리 경은 홈즈 씨와 상의하고 싶은 사안이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홈즈 씨가 이번 면담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면담 확정 여부를 칼튼 클럽으로 전화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미 확인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겠네, 왓슨." 내가 종이를 돌려주자 홈즈가 말했다. "자네, 데머리라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다만 그의 이름이 사교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할 뿐이지요."

“글쎄요, 그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그는 신문에 오르내려서는 안 될 민감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꽤 명성이 자자한 인물입니다. 아마 해머포드 유언장 사건 때 그가 조지 루이스 경과 협상을 벌였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세상 물정에 밝고 타고난 외교적 수완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니 이번 일이 헛된 단서가 아니길, 그리고 그가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라고요?"

"자, 괜찮다면 부탁하네, 왓슨."

"영광입니다."

"그럼 네 시 반까지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군. 그때까지는 이 일은 잠시 잊어두기로 하지."

당시 나는 퀸 앤 가에 있는 내 개인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베이커가에 도착했다. 정확히 4시 30분 정각에, 제임스 데머리 경 대령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를 굳이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덩치가 크고 쾌활하며 정직한 성품, 넓고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 무엇보다도 그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테니까. 회색빛 아일랜드 눈동자에서는 솔직함이 묻어났고, 잘 움직이는 미소 띤 입술에는 늘 유쾌함이 감돌았다. 윤기 나는 실크햇과 짙은 색 프록코트, 검은 새틴 넥타이에 꽂은 진주 핀부터 광택이 나는 구두 위에 신은 라벤더색 스패츠에 이르기까지, 그의 옷차

림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완벽했다. 이는 그가 옷차림에 기울이는 꼼꼼한 정성으로 유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풍채 당당하고 위엄 넘치는 귀족인 그는 작은 방 안의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물론 왓슨 박사가 함께 있을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박사의 협력이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이번 사건은 폭력에 아주 익숙한 자를 상대해야 하니까요. 그는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인물입니다. 단언컨대, 유럽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과분한 칭호를 얻은 적이 있는 적들이 몇 명 있었지."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담배는 안 피우시나? 그렇다면 내가 파이프에 불을 붙여도 양해해 주시게. 만약 자네가 쫓는 그자가 고인이 된 모리아티 교수나, 지금 살아있는 세바스찬 모란 대령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면, 정말이지 만날 가치가 있겠군. 실례가 안 된다면 그자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나?"

"그루너 남작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스트리아인 살인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데머리 대령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씨, 당신을 이길 재간이 없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벌써 그자를 살인범으로 단정 지으신 겁니까?"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세부 사항을 추적하는 건 내 업무라네. 프라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남자의

유죄 여부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나! 그가 풀려난 건 순전히 법률적인 기술 문제와 증인의 의심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을 뿐이야. 스플뤼겐 고개에서 그 소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가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큼이나 확실하네. 또한 그가 영국으로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 머지않아 그가 나에게 맡길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네. 자, 그나저나 그루너 남작은 그동안 무슨 일을 벌이고 다녔나? 설마 이 오래된 비극이 다시 불거진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에 복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니까요. 홈즈 씨, 끔찍한 사건이나 잔혹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려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명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을 때의 심정은 말할 수 없지요. 인간이 이보다 더 괴로운 처지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변하고 있는 의뢰인의 처지에 당신도 공감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저 중간 전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몰랐군요. 실제 의뢰인은 누구입니까?"

"홈즈 씨, 그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명예로운 성함이 이번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반드시 확신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동기는

더할 나위 없이 고결하고 기사도적이지만, 본인이 익명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사례금은 확실히 지급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도 전권을 부여해 드릴 것입니다. 의뢰인의 실제 성함이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보통 사건의 시작 부분에 수수께끼가 있는 경우는 익숙합니다만, 시작과 끝 모두에 수수께끼가 놓여 있으니 너무 혼란스럽군요. 제임스 경, 죄송하지만 이번 사건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문객은 몹시 동요한 기색이었다. 크고 예민한 인상의 얼굴에는 격한 감정과 실망감이 뒤섞여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홈즈 씨, 당신이 방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스스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내가 사실을 전부 말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내용이라도 당신 앞에 전부 펼쳐 놓아도 되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다만 제가 무엇 하나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히 해두죠."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드 메르빌 장군에 대해서는 분명 들어보셨겠지요?"

"카이버의 명성 높은 드 메르빌 말입니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이올렛 드 메르빌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젊고 부유한 데다 아름답고 재주까지 많으니,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인이지요. 우리가 지금 악마의 손아귀에서 구하려 애쓰는 대상이 바로 이 딸입니다. 사랑스럽고 순결한 이 소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루너 남작이 그녀를 약점이라도 잡고 있다는 뜻인가요?"

"여자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구속이죠. 그 남자는 이미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눈부시게 잘생긴 데다 태도 또한 무척 매력적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여자들이 무엇보다 갈망하는 낭만과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두루 갖췄지요. 그는 세상 모든 여자를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들 하며, 실제로도 그 사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가 어떻게 바이올렛 드 메르빌 양처럼 지위 높은 숙녀를 만나게 된 걸까요?"

"지중해로 요트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일행은 엄선된 사람들이었지만, 각자 여행 비용을 지불했지요. 주최 측 사람들도 너무 늦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남작의 본성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악당은 숙녀에게 접근했고, 아주 효과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푹 빠져 있으며, 그에게 집착하고 있습니

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그 사람뿐입니다. 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단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지요. 그녀의 광기를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요컨대, 그녀는 다음 달에 그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성인인 데다 의지가 워낙 강해서, 어떻게 그녀를 말려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녀가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 교활한 악마는 자신의 과거에 얽힌 온갖 추잡한 스캔들을 그녀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말했지요. 그녀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다른 어떤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지만 방금 의뢰인의 이름을 무심결에 흘리신 것 아닙니까? 분명 드 메르빌 장군이겠지요."

의뢰인은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못하며 몸을 뒤척였다.

“홈즈 씨, 그렇게 말해서 당신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드 메르빌은 이미 무너진 사람입니다. 강인했던 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전장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던 용기는 사라졌고, 이제는 그저 나약하고 비틀거리는 노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 오스트리아인처럼 영악하고 막강한 악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지요.

하지만 제 의뢰인은 장군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오랜 친구입니다. 그는 그 소녀가 짧은 원피스를 입던 어린 시절부터 마치 아버지처

럼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완성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야드가 개입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자고 제안한 것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의 탁월한 능력이라면 저를 거쳐 제 의뢰인의 정체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겠지만, 명예를 걸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정체를 파헤치지 마시고, 그분의 익명성을 지켜주십시오."

홈즈가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점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덧붙이자면, 당신이 가져온 문제는 제 흥미를 끄는군요. 기꺼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칼턴 클럽으로 연락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XX.31'이라는 개인 전화로 연락하시오."

홈즈는 그 내용을 받아 적고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무릎 위에 수첩을 펼쳐 놓고 앉았다.

"남작의 현재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킹스턴 근처의 버넌 로지입니다. 아주 큰 저택이지요. 그는 다소 수상쩍은 투기 사업에서 운 좋게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가 더 위험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집에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그 남자에 대해 더 알려주실 만한 정보가 있습니까?"

"그는 취향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말 애호가이기도 하고요. 한동안 허링엄에서 폴로 경기를 뛰기도 했지만, 프라하 사건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책과 그림도 수집합니다. 예술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도자기에 관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주제로 책도 한 권 썼습니다."

"복잡한 두뇌군요." 홈즈가 말했다. "위대한 범죄자들은 모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 옛 친구인 찰리 피스는 바이올린의 거장이었죠. 웨인라이트 역시 예사로운 예술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습니다. 자, 제임스 경, 의뢰인에게 전해주십시오. 내가 그 그루너 남작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군요. 나에게도 나만의 정보원이 있으니, 어떻게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방문객이 떠나고 난 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이나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내 존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다시 활기차게 현실로 돌아왔다.

"자,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가 물었다.

"그 젊은 숙녀분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게, 왓슨. 가련하고 연로한 아버님조차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내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나? 물론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제안으로서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네만, 내 생각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군. 신웰 존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지금까지의 회고록에서 신웰 존슨을 언급할 기회가 없었던 이유는, 내 친구의 경력 중 후반기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시작된 직후 몇 년 동안, 그는 홈즈에게 매우 유능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존슨은 본래 아주 위험한 악당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파크허스트 교도소에서 두 차례 복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지난날을 뉘우치고 홈즈와 손을 잡았다. 그는 런던의 거대한 범죄 세계를 누비며 홈즈의 정보원 역할을 수행했고, 그가 가져온 정보는 종종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곤 했다. 만약 존슨이 경찰의 끄나풀이었다면 금방 정체가 탄로 났겠지만, 그는 법정까지 가지 않는 사건들을 주로 다루었기에 동료들에게 활동 사실을 들키는 일도 없었다. 두 번의 전과가 주는 묘한 위압감 덕분에 그는 런던 시내의 모든 나이트클럽과 하숙집, 도박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

었다. 여기에 예리한 관찰력과 명석한 두뇌까지 갖추었으니,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요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셜록 홈즈가 도움을 청하려는 대상이 바로 그였다.

내게도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기에, 친구가 즉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는 따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심슨스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우리는 창가 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다. 홈즈는 스트랜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분주한 흐름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게 들려주었다.

“존슨이 기회를 엿보고 있네.” 그가 말했다. “그놈은 지하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뒤지며 쓸만한 정보를 긁어모을지도 모르지. 이 자의 비밀을 밝혀내려면, 범죄라는 검은 뿌리가 뒤엉킨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사냥을 시작해야만 하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라면, 당신이 새로 밝혀낸 사실이 무엇이든 그분의 결심을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글쎄요, 왓슨. 누가 알겠습니까? 여자의 마음과 생각은 남자에게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살인 같은 큰 죄는 용서받거나 이해될지 몰라도, 아주 사소한 잘못 하나가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루너 남작이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지 않았었죠! 왓슨, 나는 내 상대와 직접 맞붙어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와 눈을 맞추고 마주 앉아, 그

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거든요. 존슨에게 지시를 내린 뒤, 나는 마차를 타고 킹스턴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남작은 아주 상냥한 기색이더군요."

"그가 당신을 알아봤습니까?"

"그건 전혀 어렵지 않았네. 그저 내 명함을 보냈을 뿐이니까. 그는 아주 훌륭한 적수라네. 얼음처럼 냉정하고,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워 자네가 아는 유명한 상담 의사들처럼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코브라처럼 치명적이지. 그는 진정한 범죄계의 귀족이라 할 만한 품격을 갖추었네. 겉으로는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 이면에는 무덤처럼 서늘한 잔혹함이 숨겨져 있어. 그래, 아델베르트 그루너 남작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네."

"그가 상냥한 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쥐를 발견했다고 착각하며 가르릉거리는 고양이 같군. 어떤 이들의 상냥함은 거친 영혼들이 휘두르는 폭력보다 더 치명적이지. 그의 인사는 그 사람답게 아주 특징적이었다. '조만간 당신을 만나게 될 것 같더군요, 홈즈 씨.' 그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드 메르빌 장군이 자신의 딸 바이올렛과 나의 결혼을 막으려고 당신을 고용했겠지요. 맞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수긍했다.

"이보게, 친구." 그가 말했다. "그러다 자네가 쌓아온 명성만 망치게 될 뿐이라네. 이건 자네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건이야. 위험을 자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애만 쓰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걸세. 그러니 당장 손을 떼라고 강력히 권하겠네."

"이상하군요." 내가 대답했다. "사실 제가 당신에게 드리려던 조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남작님, 저는 당신의 명석함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곁에서 지켜본 당신의 인품 또한 그 존중을 깎아내리지 않았고요. 그러니 이제 남자 대 남자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어 굳이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당신은 이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결혼을 강행하신다면, 당신은 강력한 적들을 한꺼번에 불러들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영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만큼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차라리 그 여인을 혼자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과거가 그녀에게 알려진다면, 당신에게 결코 유쾌한 상황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남작의 코밑에는 곤충의 짧은 더듬이처럼 왁스로 다듬은 콧수염이 돋아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즐거운 듯 수염을 파르르 떨더니, 마침내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씨, 웃음을 참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손에 카드 한 장 없이 게임을 하려는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럽군요. 누구도 당신만큼 능숙하게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참 애처로운 광경입니다. 홈즈 씨, 거기엔 색깔 카드 한 장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뿐이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군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손이 워낙 힘이 세니, 당신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지요. 나는 운 좋게도 이 여인의 온전한 애정을 얻어냈습니다. 내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음에도 말입니다. 또한 나는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사악하고 교활한 자들—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이 나타나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일러주었습니다. 홈즈 씨, 최면 암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곧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개성 강한 사람은 저속한 손동작이나 장난질 없이도 최면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에게 만남을 허락할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아주 잘 따르고 있거든요. 단 한 가지 작은 문제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자, 왓슨. 더는 할 말이 없는 것 같더군. 그래서 최대한 냉정하고 품위 있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 그런데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가 나를 불러 세웠네.”

“그나저나 홈즈 씨,” 그가 말했다. “프랑스 요원인 르 브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가 몽마르트르 지구에서 아파치 일당에게 매를 맞아 평생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들었네."

“정말 그렇습니다, 홈즈 씨. 기묘하게도 그가 제 사정을 캐묻고 다닌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으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홈즈 씨. 그건 결코 운이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저도 제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됐네, 왓슨. 이 정도면 상황 파악이 다 끝났겠지."

"그자, 꽤 위험해 보이는군."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허풍 떠는 자라면 무시하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하려는 말보다 훨씬 적게 말하는 부류거든요."

"꼭 끼어들어야겠습니까?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든 말든,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자가 지난번 아내를 의심할 여지 없이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봐야지. 게다가 의뢰인 문제도 있고! 뭐,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군. 커피 다 마시면 곧장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거야. 신웰 그 녀석이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그는 덩치가 거대하고 거친 피부를 가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괴혈병 환자 같은 사내였다. 다만 그 안에

는 아주 교활한 지성이 숨어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유일한 증거는 형형하게 빛나는 한 쌍의 검은 눈뿐이었다. 그는 유독 자신만의 왕국이라 할 만한 곳으로 깊이 침잠해 있는 듯 보였다. 그의 곁 소파에는 그가 데려온 듯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냘프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한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으나, 창백하고 강렬한 얼굴에는 젊음과 동시에 죄악과 슬픔에 찌든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은 마치 끔찍한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나병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놓은 것만 같았다.

"이쪽은 키티 윈터 양입니다." 신웰 존슨이 통통한 손을 흔들며 소개했다. "이분이 모르는 게 있다면—뭐, 그건 본인이 직접 말하겠지요. 홈즈 씨, 당신 메시지를 받은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바로 이분을 당신에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젊은 여성이 말했다. "지옥 같은 런던은 정말이지 질색이라니까요. 포키 신웰의 주소는 그대로예요. 포키, 우린 오래된 친구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만약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지옥에 떨어져 있어야 할 자가 또 있어요! 홈즈 씨, 당신이 쫓는 사람이 바로 그놈이에요."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윈터 양, 당신의 호의를 얻은 것 같군요."

"그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어요."

방문객이 격렬한 기운을 내뿜으며 말했다. 창백하게 굳은 얼굴과 이글거리는 눈빛에는 여인으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고, 남자로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강렬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제 과거를 캐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즈 씨.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모두 아델버트 그루너 때문입니다. 그자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휘저었다.

“아, 그자가 수많은 사람을 밀어 넣었던 그 구렁텅이 속으로, 그자 역시 처박아버릴 수만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

"포키 신웰에게 들었습니다. 그놈이 또 다른 불쌍한 여자를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예 결혼까지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걸 막고 싶어 하시죠. 글쎄요, 당신이라면 그 악마 같은 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실 테니, 제정신을 가진 처녀라면 그놈과 같은 교구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잘 아시겠지요."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랑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라면 이미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나?"

"네."

"맙소사,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군요!"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비방으로 치부해 버려요."

"그 바보 같은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어 줄 수는 없는 건가?"

"그렇다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녀 앞에 서서, 그가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말하기라도 한다면……"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겠냐고요? 당연히 그러고말고요!"

“글쎄요, 시도해 볼 가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대부분 고백했고 용서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로 그녀는 그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윈터 양이 말했다.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 말고도,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한두 건 정도는 엿본 적이 있거든요.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그러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자는 한 달도 안 되어 죽었지.' 허풍을 떠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그때 저는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이 불쌍한 바보

처럼 저도 다 받아주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뒤흔든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세상에! 모든 걸 설명하며 달래주는 그 독하고 거짓된 혀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날 밤 당장 그를 떠났을 거예요. 그에게는 책이 하나 있어요. 자물쇠가 달린 갈색 가죽 책인데, 겉면에는 금색으로 문장이 새겨져 있죠. 제 생각에 그날 밤 그는 술에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에게 그 책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홈즈 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남자는 여자를 수집합니다. 어떤 이들이 나방이나 나비에 집착하듯, 그는 자신의 수집품을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그 책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스냅사진부터 이름, 세부 정보까지, 그녀들에 관한 모든 것이 말이죠. 정말이지 끔찍한 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라 해도 그런 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아델버트 그루너의 책이었습니다. '내가 파멸시킨 영혼들'이라고 표지에 써 붙였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책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설령 도움이 된다 해도, 지금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지?"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를 떠난 지 벌써 1년도 더 지났는걸요. 그가 그때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압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아주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라, 어쩌면 안쪽 서재에

있는 오래된 책상 서랍 칸에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의 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재에 있었네." 홈즈가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야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꽤나 속도를 낸 셈입니다. 어쩌면 사랑스러운 아델버트가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바깥 서재는 창문 사이에 커다란 유리 장식장이 있고, 그 안에 중국식 도자기들이 들어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뒤에는 안쪽 서재로 이어지는 문이 있는데, 그곳은 서류나 물건들을 보관하는 작은 방입니다.”

"그는 빈집털이가 두렵지도 않은 건가요?"

"아델버트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의 철천지원수라 할지라도 그런 말은 못 할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충분하고요. 밤에는 도둑 경보 장치도 설치되어 있어요. 게다가 도둑이 훔쳐갈 게 뭐가 있겠어요? 이 화려한 도자기들을 다 들고 달아나지 않는 한 말이죠."

"소용없어." 신웰 존슨이 전문가다운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녹여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팔 수도 없는 물건을 취급할 장물아비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고말고요.” 홈즈가 말했다. “좋습니다, 윈터 양. 내일 저녁 다섯 시에 이곳으로 다시 와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당신이 제안한 대로 이 여성을 직접 만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의뢰인들이 사례를 넉넉히 할 것이라는 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홈즈 씨." 젊은 여성이 외쳤다. "전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진흙탕 속에 처박힌 꼴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놈의 빌어먹을 얼굴을 내 발로 짓밟는 것, 그거면 제 소원은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대가예요. 홈즈 씨가 그놈의 뒤를 쫓는 한, 내일이든 언제든 당신과 함께할게요. 여기 포키가 제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스트랜드에 있는 우리 단골 식당에서 다시 저녁 식사를 하기 전까지 홈즈를 다시 보지는 못했다. 면담 결과가 어떠했는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을 대신했다. 이윽고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내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려 한다. 그의 서술은 지나치게 딱딱하고 건조하기에, 실제 삶의 모습이 느껴지도록 약간의 윤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약속을 잡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네." 홈즈가 말했다. "그 처녀는 약혼 문제로 저지른 중대한 불효를 만회하려는 듯, 사소한 일에서는 지극히 순종적인 딸의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거든. 장군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전화를 주었고, 성미 급한 W 양도 예정대로 나타났네. 그래서 다섯 시 반쯤 마차를 타고 버클리 광장 104번지 앞에 도착했지. 그곳은 그 노병이 사는 집인데, 교회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위압적인 런던의 회색 대저택 중 하나라네. 하인이 우리를 노란 커튼이 드리워진 커다란 응접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 그 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네. 조용하고 창백하며 자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지. 마치 산속에 서 있는 눈 조각상처럼 차갑고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네."

"그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 왓슨. 아마 우리가 일을 마치기 전에 자네가 그녀를 직접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그때 자네의 유려한 말솜씨를 한번 발휘해 보게나. 그녀는 아름답네. 하지만 고결한 사상에 몰두한 광신도처럼,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묘한 아름다움을 지녔지. 중세 거장들의 그림에서나 볼 법한 그런 얼굴이라네.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게 어떻게 그 짐승 같은 사내가 그토록 추악한 손길을 뻗칠 수 있었는지, 나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네. 극단적인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법이지. 영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원시인과 천사가 서로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야. 자네는 이보다 더 최악인 사례는 본 적이 없을 걸세."

"그녀는 당연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악당이 우리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윈터 양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그녀는 다소 놀란 듯 보였습니다만, 마치 두 명의 나병 환자 구걸꾼을 맞이하는 수녀원장처럼 우리를 각자의 의자로 안내하더군요. 왓슨 박사, 만약 자만심에 빠져 머리가 부풀어 오를 것 같다면 바이올렛 드 메르빌 양의 처방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저기요, 선생님." 그녀가 빙하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익숙하군요. 제가 듣기로는 제 약혼자인

그루너 남작을 비방하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미리 경고해 두겠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제 마음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참으로 안타까웠네, 왓슨. 잠시나마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썼을 정도였으니까. 내가 평소에 말을 유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 않나. 가슴보다는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일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본성에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온기를 담아 진심으로 그녀를 설득했네.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의 인성을 깨닫게 되는 여인의 비참한 처지를 그녀에게 설명했지. 피 묻은 손길과 음탕한 입술을 견뎌내야만 하는 여인의 운명을 말이야. 수치심과 공포,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주는 절망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네. 하지만 내 열띤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상아빛 뺨에는 생기 하나 돌지 않았고 멍한 눈동자에는 감정의 흔적조차 비치지 않았네.

그 악당이 말했던 최면 후의 영향력이 떠오르더군. 그녀가 정말로 황홀한 꿈을 꾸며 지상 너머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는 모호한 구석이 전혀 없었네."

"홈즈 씨, 참을성 있게 들어드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은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고 있군요. 제 약혼자인 아델버트가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지독한 원한을 샀고, 억울한 비난도 많이 받았겠지요. 당신은 그저 그 비난을 들고 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 중 마지막 사람일 뿐

이에요. 아마 나쁜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당신이 돈을 받고 움직이는 대리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남작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점만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제게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만큼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약 그의 고결한 성품이 잠시라도 흔들린 적이 있다면, 그건 아마 그를 다시 본래의 높고 숭고한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제가 특별히 보내진 덕분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동료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젊은 숙녀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군요."

내가 막 대답하려던 찰나, 그 소녀가 돌풍처럼 끼어들었다. 불과 얼음이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저 두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그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격분에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험악했다. "나는 그 남자의 마지막 정부야. 그가 유혹하고, 이용하고, 망가뜨린 뒤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 수백 명의 여자 중 한 명이라고. 그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거야. 아니, 당신은 쓰레기 더미 대신 무덤에 처박힐 가능성이 더 높겠지. 어쩌면 그게 당신에게는 최선일지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여자야, 똑똑히 들어. 그 남자와 결혼하면 당신은 죽게 될 거야. 상심해서 죽든, 목이 부러져 죽든,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당신이 살든 죽

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그저 그 남자가 밉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고, 나에게 저지른 짓을 되돌려주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니, 그렇게 쳐다보지 마, 고귀하신 부인.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당신 처지가 나보다 더 비참해질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군요." 드 메르빌 양이 차갑게 말했다. "단언컨대, 제 약혼자의 과거에 교활한 여인들과 얽혔던 세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이라고!" 내 동료가 비명을 질렀다. "이 바보 같으니! 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으니라고!"

"홈즈 씨, 이 면담을 당장 끝내주길 바랍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당신을 만나러 왔지만, 이 사람의 횡설수설까지 들어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윈터 양이 욕설을 내뱉으며 앞으로 달려들더군요. 내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저 미치광이 여자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을 겁니다. 나는 그녀를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가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다행히 사람들 눈에 띄는 소란 없이 택시 안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지요. 왓슨, 솔직히 말하자면 나 역시 꽤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그 여자가 보여준 지나치게 침착하고 냉담한 태도, 그리고 그 오만한 자기만족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증스러웠거든요.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왓슨, 당신에게 계속 연락을 하겠네. 당신이 맡아야 할 역할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물론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말일세."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공격이었다. 그 여인이 이 일에 연루되었을 리는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공고문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내가 서 있던 보도 블록이 어디였는지까지도 정확히 가리킬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내 영혼을 관통했다.

공고문은 '그랜드 호텔'과 차링 크로스 역 사이, 다리가 하나뿐인 신문 판매원이 저녁 신문을 팔고 있던 곳에 붙어 있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눈 지 겨우 이틀 뒤의 일이었다.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그 끔찍한 소식이 신문에 실려 있었다.

+--------------+ | 셜록 홈즈를 향한 | | 살인적인 | | 습격 | +------------+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다. 그 후의 일은 기억이 혼란스럽다. 종이 한 장을 낚아챘던 것, 돈을 지불하지 않은 남자가 항의하던 것, 그리고 마침내 약국 문간에 서서 그 운명적인 문단을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 씨가 오늘 아침 살해 의도가 다분한 습격을 당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사건은 정오 무렵 리전트가에 있는 카페 로열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몽둥이를 든 남성 두 명이 공격을 가했으며, 홈즈 씨는 머리와 몸을 두들겨 맞아 의사들이 매우 심각한 부상이라고 진단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채링 크로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베이커가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습격자들은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한 남성들로 보였으며, 카페 로열을 가로질러 뒤편의 글래스하우스가로 빠져나가 구경꾼들을 따돌리고 도주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피해를 입은 이 남성의 활동과 기지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탄식해야 했던 범죄 조직의 일원일 것입니다.

기사를 다 읽기도 전에 나는 이미 한섬 택시로 뛰어 올라타 베이커가로 향하고 있었다. 홀에 도착하니 유명한 외과의사인 레슬리 오크숏 경이 서 있었고, 그의 브룸 마차는 길가에서 대기 중이었다.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이었다. "두 군데의 두피 열상과 상당한 타박상이 있습니다. 봉합술이 몇 차례 필요했습니다. 모르핀을 주사했으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몇 분 정도 면담하는 것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을 받은 뒤, 나는 어둑한 방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환자는 깨어 있었고, 내 이름을 부르는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블라인드는 4분의 3 정도 내려가 있었지만, 그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비스듬히 스

며들어 부상당한 남자의 붕대 감긴 머리를 비추고 있었다. 하얀 리넨 압박 붕대는 이미 붉은 혈흔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알았네, 왓슨. 그렇게 겁먹은 표정 짓지 말게." 그가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보기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그것참 다행이군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팡이술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지 않습니까. 날아드는 공격은 대부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자는 제 역량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홈즈? 당연히 그 빌어먹을 놈이 사주한 거겠지. 자네가 허락만 한다면, 당장 가서 그놈 가죽을 벗겨놓고 오겠네."

"이보게, 나의 오랜 친구 왓슨! 아니, 경찰이 그놈들을 직접 붙잡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네. 하지만 그놈들의 도주 계획은 아주 치밀했어. 그 점은 확실하네. 조금만 기다려 보게. 내게 계획이 있으니까. 우선 내가 입은 부상을 과장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네. 그러면 그놈들이 소식을 들으러 자네를 찾아오겠지. 왓슨, 아주 호되게 연기해주게. 이번 주를 넘기면 다행일 정도로 말이야. 뇌진탕이라든가, 섬망 증세라든가,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아무리 과해도 괜찮네."

"하지만 레슬리 오크숏 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분은 괜찮습니다. 그분에게도 제 상태가 최악으로 보이도록 만들 테니까요.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래. 신웰 존슨에게 전해. 그 여자애를 당장 피신시키라고 말이야. 이제 그 작자들이 그 애를 노릴 테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 애가 이번 사건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만약 그들이 감히 나를 해치려 든다면, 그 애를 그냥 지나칠 리도 없지. 이건 급한 일이야.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게.”

"이제 가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내 파이프를 탁자 위에 올려두게. 담배를 넣어둔 슬리퍼도 같이 말이야. 그렇지! 매일 아침 이렇게 찾아오게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

그날 저녁, 나는 존슨과 협의하여 윈터 양을 조용한 교외로 데려가기로 했다.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그녀가 몸을 낮추고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였다.

엿새 동안 대중은 홈즈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고 믿었다. 속보의 내용은 매우 위중했고, 신문에는 불길한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수시로 그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상황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다. 홈즈의 강인한 체질과 굳건한 의지가 기적 같은 효과를 내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회복 중이었으며, 때로는 그가 내게 보여주는 모

습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빨리 기운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다.

그에게는 묘하게 비밀을 지키려는 성미가 있었다. 그 성격 탓에 극적인 상황이 자주 연출되곤 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조차 그가 정확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혼자 계획을 세우는 자만이 안전하다'라는 격언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그와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늘 그와 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실감하곤 했다.

일곱째 날이 되어 봉합사를 뽑아냈지만, 그날 저녁 신문에는 단독성 홍반(erysipelas)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같은 날 저녁 신문에는 내가 몸이 아프든 아니든 반드시 친구에게 전해야만 하는 공고가 하나 실려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금요일 리버풀에서 출발하는 커나드 선사의 루리타니아호 승객 중에 아델베르트 그루너 남작이 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바이올렛 드 메르빌 양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녀는 누구의 외동딸이라는 식의 부연 설명이 뒤따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결혼 전에 미국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금융 업무가 있었다. 홈즈는 창백한 얼굴로 차갑고 집중력 있는 눈빛을 띠며 그 소식을 들었다. 그 표정을 보니 그 소식이 그에게 꽤나 큰 충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요일이라니!" 그가 외쳤다. "남은 시간은 고작 사흘뿐이야. 그 악당은 위험을 피해 몸을 숨기려는 속셈이 분명해. 하지만 안 될 걸세, 왓

슨! 하늘에 맹세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자, 왓슨, 이제 자네가 나를 위해 좀 도와줘야겠네."

"홈즈, 나는 쓰임 받기 위해 여기 있는 거라네."

"그렇다면 앞으로 24시간 동안은 중국 도자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게나."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오랜 경험을 통해 나는 그저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방을 나온 뒤, 나는 베이커가를 걸으며 도대체 이 기묘한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결국 나는 세인트 제임스 광장에 있는 런던 도서관으로 마차를 타고 갔다. 그곳에서 부사서인 내 친구 로맥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꽤 두툼한 책 한 권을 팔에 끼고 내 거처로 돌아왔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월요일에 전문가를 신문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철저히 파고들어도, 토요일이 되면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은 전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확실히 나 역시 지금 당장 도자기 전문가인 양 행세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날 저녁 내내, 잠시 휴식을 취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쉼 없이 지식을 흡수하며 이름들을 외워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위대한 예술적 장식가들이 남긴 검인(hall-marks)을 배웠고, 순환하는 연도 표기법의 신비와 훙우(Hung-wu) 시대의 표식, 융러(Yung-lo) 시대의 아름다움, 탕잉(Tang-ying)의 글

씨, 그리고 송(Sung)과 원(Yuan)나라 초기 시대의 영광에 대해서도 익혔다. 다음 날 저녁 홈즈를 찾아갔을 때, 나는 이 모든 정보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 보았다면 결코 짐작하지 못했을 모습이었다. 홈즈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붕대를 칭칭 감은 머리를 손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홈즈, 신문 기사들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당신은 죽어가고 있는 셈이군요.” 내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전달하려던 인상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자, 왓슨, 이제 수업은 다 끝난 건가요?"

"적어도 노력은 했습니다."

"좋군. 그 주제에 대해 지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저 작은 상자 좀 이쪽으로 건네주게."

그는 뚜껑을 열고는 고급스러운 동양식 비단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감싼 작은 물건을 꺼냈다. 비단을 펼치자, 아주 아름답고 깊은 푸른빛을 띠는 섬세한 작은 접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심해서 다뤄야 하네, 왓슨. 이건 명나라 시대의 진정한 에그셸(egg-shell) 도자기, 즉 달걀 껍데기처럼 얇은 도자기라네. 크리스티 경매를 거쳐 간 물건 중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었을 거야. 이런 세트를 온전히 갖춘다면 왕의 몸값에 맞먹는 거금이 되겠지. 사실 북경의 황실 궁궐을 제외하면, 이렇게 완벽한 세트가 또 있을지 의문일 정도라네. 진정한 감정가라면 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못 차릴 걸세.”

"이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홈즈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힐 바턴 박사, 하프 문가 369번지."

“오늘 저녁 당신의 신분은 그 이름으로 하시오, 왓슨. 그루너 남작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의 습관을 좀 알고 있는데, 여덟 시 반쯤이면 아마 한가할 겁니다. 미리 쪽지를 보내 방문할 예정임을 알리도록 하죠. 그리고 남작에게는 아주 희귀한 명나라 도자기 세트를 가져왔다고 말하시오. 당신은 의사라는 신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거짓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수집가로서 이 도자기 세트를 입수하게 되었고, 남작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적당한 가격이라면 팔 의향도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좋은 질문이네, 왓슨. 자네가 자신의 물건이 지닌 가치를 모른다면 분명 큰 손해를 보고 말 거야. 이 접시는 제임스 경이 나를 위해 구해다 준 것이라네. 내가 알기로는 그분의 의뢰인이 소장하던 수집품 중 하나라고 하더군. 이 접시와 견줄 만한 물건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세.”

"그 세트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 왓슨! 오늘 자네 정말 빛이 나는군. 크리스티나 소더비 경매장을 추천해 보게. 자네의 그 섬세한 성격 때문에 직접 가격을 매기지는 못할 테니 말이야."

"하지만 그분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어쩌죠?"

“아, 물론 만나줄 걸세. 그는 수집벽이 아주 심한 편이라네. 특히 이 분야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위자이니 더더욱 그렇겠지. 자, 앉게나, 왓슨. 내가 편지를 불러줄 테니 받아 적게. 답장은 필요 없네. 그저 자네가 곧 가겠다는 말과, 어떤 이유로 가는지에 대해서만 적으면 되니까.”

그것은 짧으면서도 정중했고, 감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아주 훌륭한 문서였다. 곧 구역 전령이 그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귀한 접시를 손에 들고 힐 바턴 박사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나만의 모험을 향해 길을 나섰다.

아름다운 저택과 정원의 모습은 경이로웠다. 경(卿)이 말했던 것처럼 그루너 남작이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양옆으로 희귀한 관목들이 늘어선 길고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니, 조각상들로 장식된 거대한 자갈 광장이 나타났다. 이곳은 과거 금광 붐이 일던 시절, 남아프리카의 한 금광 왕이 지은 저택이었다. 모퉁이마다 솟은 작은 탑들이 있는 길고 낮은 건물은 건축학적으로는 악몽 같은 형태였으나, 그 규모와 견고함만큼은 압도적이었다. 고위 성직자라도 될 법한 위엄을 풍기는 집사가 나를 안으로 안내했고, 이어 화려한 옷을 입은 하인이 나를 남작에게 인도했다.

그는 창문 사이에 놓인 커다란 진열장 앞에 서 있었다. 진열장 안에는 그의 중국 골동품 수집품 일부가 들어 있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손에 작은 갈색 꽃병을 든 채 몸을 돌렸다.

"자, 앉으시게, 박사님." 그가 말했다. "내 수집품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과연 이것들을 더 늘릴 여유가 있을지 고민하던 참이었네. 여기 7세기 유물인 당나라 시대의 작은 표본이 있는데, 자네도 흥미를 느낄 것 같군. 이보다 더 정교한 솜씨나 화려한 유약을 가진 물건은 본 적이 없을 걸세. 아까 말했던 그 명나라 시대의 받침 접시는 가져왔나?"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램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날이 저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그것을 살피기 시작했다. 램프의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나는 그의 표정을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분명 눈에 띄게 잘생긴 사내였다. 유럽 전역에 자자한 그의 미남 명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체구는 중간 정도였으나, 몸의 선이 우아하고 탄탄하여 활동적인 느낌을 주었다. 얼굴은 거무스름하여 마치 동양인 같았는데, 크고 검은 눈망울에는 여성을 매료할 만한 묘한 매력이 서려 있었다. 머리카락과 콧수염은 칠흑처럼 검었다. 콧수염은 짧고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었으며, 정성스럽게 왁스를 발라 모양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이목구비는 고르고 보기 좋았으나, 유독 일직선으로 뻗은 얇은 입술만은 예외였다. 만약 내가 살인자의 입술을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입술이었다. 그 입술은 얼굴에 새겨진 잔인하고 딱딱한 칼자국 같았으며, 굳게 다물려 있어 냉혹하고도 공포스러웠다. 그는 콧수염을 그 입에서 멀어지도록 다듬어 입을 드러내 두었는데, 이는 어리석은 처사였다. 그 입이야말로 희생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자연이 설정해 둔 위험 신호였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매력적이었고 매너 또한 완벽했다. 나이는 서른을 조금 넘었을 것으로 짐작했으나, 나중에 확인한 그의 실제 나이는 마흔둘이었다.

"정말 훌륭하군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여섯 점짜리 세트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의아한 점은, 이렇게나 경이로운 표본에 대해 제가 왜 지금까지 듣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내에서 이와 맞먹는 것은 단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 물건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힐바턴 박사님, 이것을 어떻게 구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이 물건이 진품이라는 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가치에 대해서라면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아주 미스터리하군요.”

그가 검은 눈을 번뜩이며 의심스럽게 말했다.

“이토록 가치 있는 물건을 다룰 때는 당연히 거래의 전말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물건이 진품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에게 이 물건을 팔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청구에 대해서라면 제가 확실히 보증해 드리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신이 내건 보증이 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겠군요."

"그건 제 은행가들에게 물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 과정이 어딘가 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거래를 하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이 안목이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첫 제안을 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곳을 찾아봐도 전혀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감식가라는 건 누가 말해줬습니까?"

"당신이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읽어 보았나?"

"아니오."

"이런, 갈수록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군요! 당신은 감식안을 갖춘 수집가로서 아주 귀중한 소장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물건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려줄 유일한 책 한 권조차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저는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현재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취미를 가졌다면, 다른 일을 무엇을 하든 간에 반드시 그 취미를 계속 이어가기 마련이죠. 당신은 보내온 쪽지에서 스스로를 감정가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을 시험해 볼 질문을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 만약 당신이 정말 의사가 맞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이 사건은 갈

수록 수상쩍어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쇼무 천황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를 나라 근처의 쇼소인과 어떻게 연관 지으시는 겁니까? 이런,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북위 왕조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도자사에서 그 왕조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해 보시지요."

나는 화난 척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도를 넘으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여기 온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처럼 취조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라면 제 지식이 당신 다음일지는 몰라도, 이런 무례한 질문에는 결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눈에 서려 있던 나른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 눈빛은 돌연 매섭게 번뜩였다. 잔인한 입술 사이로 이빨이 번뜩이며 드러났다.

"대체 무슨 속셈이지? 당신은 스파이로 여기 온 거야. 홈즈가 보낸 사절이지. 나를 속이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는군. 듣자하니 그 친구가 죽어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나를 감시하려고 수하들을 보낸 건가? 허락도 없이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으니, 맙소사!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다."

그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나는 공격에 대비하려 몸을 뒤로 물러섰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처음부터 나를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 추궁을 통해 그는 진실을 깨달은 것이 분명했다. 내

가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에게는 자명해 보였다. 그는 옆 서랍에 손을 집어넣더니 미친 듯이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무언가 그의 귀에 닿았는지, 그는 동작을 멈추고 무언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 그가 외쳤다. "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에 있는 방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두 걸음 만에 열린 문 앞에 다다랐다. 내 머릿속에는 그 안의 풍경이 여전히 선명한 그림처럼 남아 있다. 정원으로 이어지는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옆에는 셜록 홈즈가 서 있었다. 머리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그의 모습은 마치 끔찍한 유령 같았다. 다음 순간 홈즈가 창문 틈으로 몸을 던졌고, 밖에서 월계수 덤불 사이로 그의 몸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분노 섞인 비명을 지르며 열린 창문 쪽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팔 하나가, 여자의 팔이 튀어나왔다. 그와 동시에 남작은 끔찍한 비명을,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맴돌 그 절규를 내질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더니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벽에 머리를 무섭게 들이받았다. 그러더니 카펫 위로 쓰러져 몸을 뒹굴고 뒤틀며 괴로워했고, 집 안에는 비명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물! 제발, 물 좀 주세요!"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나는 옆 탁자에 있던 디캔터를 움켜쥐고 그에게 달려갔다. 동시에 집사들과 몇 명의 하인들이 홀에서 급히 뛰어 들어왔다. 내가 부상당한 남자 곁에 무릎을 꿇고, 그 끔찍한 얼굴을 램프 불빛 아래로 돌렸을 때 하인 중 한 명이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난다. 황산이 얼굴 곳곳을 파고들어 귀와 턱 끝에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한쪽 눈은 이미 하얗게 변해 흐릿해졌고, 다른 쪽 눈은 붉게 충혈되어 부어올라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감탄하며 바라보았던 그 이목구비는, 마치 화가가 젖고 더러운 스펀지로 짓뭉개버린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형체는 뭉개지고 색은 변해버린, 비인간적이고도 처참한 모습이었다.

나는 황산 공격 사건에 대해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누군가는 창문으로 기어 들어왔고, 다른 이들은 잔디밭으로 급히 뛰쳐나갔으나, 당시에는 어둠이 깔린 데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자신을 공격한 범인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그 악마 같은 키티 윈터였어!" 그가 울부짖었다. "오, 그 악마 같은 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반드시 말이야! 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이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 기름을 발라 닦아내고, 상처 난 부위에는 솜을 얹은 뒤 모르핀을 주사했다. 이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나에 대한 의심은 그의 마음에서 말끔히 사라졌고, 그는 마치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죽은 생선 같은 눈동자를 내가 아직도 되살릴 힘이라도 가진 듯 내 손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다. 이 참혹한 몰락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릴 뻔했으

나, 이토록 끔찍한 변화를 불러온 그의 타락한 삶을 똑똑히 기억해 냈기에 간신히 참아냈다.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는 느낌은 역겨울 정도였다. 다행히 그의 가족 주치의와 그 뒤를 바짝 따라온 전문의가 도착하여, 내가 맡았던 환자를 인계받아 가니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다. 경찰 경위도 도착해 있었기에 나는 그에게 내 진짜 명함을 건넸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용도 없었을 것이다. 나 역시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는 홈즈만큼이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우울과 공포가 가득한 집을 떠났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베이커가에 도착했다.

홈즈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안색은 몹시 창백했고 기력도 다해 보였다. 입은 부상뿐만 아니라, 그 강철 같은 신경마저 그날 저녁의 사건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남작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 설명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경청했다.

"죄의 대가야, 왓슨. 죄의 대가라고!" 홈즈가 말했다. "조만간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지.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죄를 지을 만큼 지었어."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갈색 책 한 권을 집어 들며 덧붙였다. "이게 바로 그 여자가 말했던 책이야. 만약 이 책 때문에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끝낼 수 없을 걸세. 하지만 결국 끝나고 말 거야, 왓슨.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존심 있는 여자라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테니까."

"그의 연애 일기인가요?"

"그의 음란한 일기라고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일기에 대해 말하는 순간, 저는 그것을 손에 넣기만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무기가 될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혹시라도 제 생각을 눈치챌 수도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 일기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공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작이 저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된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가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를 그런 식으로 남겨두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밤에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확신만 들 수 있다면, 저녁 시간대에 승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과 당신의 그 파란 접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중국 도자기에 대해 아는 지식을 나누어 주는 시간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불과 몇 분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소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망토 아래에 그토록 소중히 품고 있던 작은 꾸러미가 무엇인지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오로지 제 일 때문에 온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에게도 따로 챙겨야 할 물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그럴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붙잡아 두는 동안 제가 책을 챙길 시간은 충분히 벌어주더군요. 물론 그가 눈에 띄지 않게 도망칠 만큼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아, 제임스 경, 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예의 바른 그 친구는 앞서 보낸 호출에 응해 나타났다. 그는 홈즈가 설명하는 사건의 경위를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가 외쳤다. "하지만 왓슨 박사가 설명한 피해가 그토록 끔찍한 것이라면, 이 끔찍한 책을 쓰지 않더라도 결혼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셈입니다."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드 메르빌 가문의 여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녀라면 오히려 얼굴이 망가진 순교자 같은 그를 더 사랑했을 겁니다.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건 그의 외모가 아니라 도덕성입니다. 그 책이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달리 떠올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직접 쓴 글이 담겨 있거든요. 그녀는 그 사실을 도저히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제임스 경은 물건과 그 귀중한 접시를 모두 챙겨 들고 떠났다. 나 역시 약속 시간이 늦은 터라 그와 함께 거리로 내려갔다. 그를 기다리던 브루엄 마차가 한 대 있었다. 제임스 경은 마차에 올라타더니, 모자를

쓴 마부에게 서둘러 명령을 내리고는 빠르게 출발했다. 그는 마차 옆면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을 가리려는 듯 창밖으로 외투를 반쯤 내밀었지만, 나는 이미 현관문의 유리창 너머로 그 문장을 똑똑히 본 뒤였다. 나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돌려 홈즈의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다.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나는 엄청난 소식을 품고 흥분해서 외쳤다. "홈즈, 그건 바로——"

"그는 충직한 친구이자 기사도 정신을 갖춘 신사라네." 홈즈가 제지하듯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영원히 충분할 걸세."

그 불리한 증거가 담긴 책이 정확히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제임스 경이 직접 처리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토록 섬세한 일을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맡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어쨌든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사흘 뒤, 《모닝 포스트》 지에는 아델베르트 그루너 남작과 바이올렛 드 메르빌 양의 결혼이 무산되었다는 단신이 실렸다. 같은 신문에는 키티 윈터 양이 황산을 뿌렸다는 중죄로 기소되어 첫 경찰 법정 심리를 받았다는 기사도 실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드러났고,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그 죄목으로는 가능한 최저형이 선고되었다. 셜록 홈즈 역시 절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목적이 정당하고 의뢰인이 충분히 고귀하다면 엄격한 영국 법조차 한없이 자비롭고 유연해지기 마련이다. 내 친구는 아직 피고인석에 서지 않았다.

II

창백한 병사

백색 병사의 모험

내 친구 왓슨의 사고방식은 비록 한계가 있을지언정,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질김이 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며 내 경험을 직접 글로 써 보라고 재촉해 왔다. 어쩌면 이런 박해를 자초한 것은 나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동안 왓슨의 기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지적해 왔고, 사실과 수치에 엄격히 집중하는 대신 대중의 입맛에만 영합한다고 비난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직접 한번 써 보시오, 홈즈!"라며 맞받아쳤다. 막상 펜을 들어 보니,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소개할 사건은 내 수집된 기록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일 중 하나이기에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왓슨의 기록에는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긴 하지만 말이다.

내 오랜 친구이자 전기 작가인 왓슨에 대해 덧붙이자면, 내가 여러 작은 조사 과정에서 그를 동행시키는 것은 결코 감상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다. 왓슨은 그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겸손함 때문에, 정작 나의 업적을 과장해서 평가하느라 정작 본인이 가진 이 특별한 면모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론이나 행동 방침을 미리 내다보는 조력자는 언제나 위험한 법이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을 매번 새로운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늘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조력자야말로 진정 이상적인 동료라 할 수 있다.

내 수첩을 확인해 보니, 제임스 M. 도드라는 남자가 나를 찾아왔던 것은 1903년 1월이었다. 보어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다. 그는 건장하고 활기 넘치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당당한 영국인이었다. 당시 왓슨 박사는 아내를 맞이하느라 내 곁을 떠난 상태였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돌이켜볼 때, 그가 보여준 유일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창을 등지고 앉아, 방문객을 맞은편 의자에 앉히는 습관이 있다. 그래야 빛이 그들의 얼굴을 온전히 비추기 때문이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다. 나는 그를 도와주려 애쓰지 않았다. 그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나는 그를 관찰할 시간을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뢰인에게 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데는 침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가 내린 결론 중 몇 가지를 먼저 들려주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오셨군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가 다소 놀란 기색으로 대답했다.

"제국 기병대 소속이겠군, 내 짐작이 맞다면."

"정확합니다."

"분명 미들섹스 연대 소속이겠군."

"정말 그렇군요. 홈즈 씨, 당신은 정말 마법사 같습니다."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영국 태양 아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신사가 제 방에 들어올 때, 손수건을 주머니가 아닌 소매에 꽂고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짧게 다듬은 수염을 기르고 있군요. 이건 당신이 정규 병사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옷차림은 승마를 즐기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미들섹스에 대해서는, 당신의 명함이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트로그모턴가에서 활동하는 주식 중개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입대했을 법한 다른 연대가 어디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보는군요."

"나라고 당신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도드 씨, 오늘 아침 저를 찾아오신 건 관찰의 과학에 대해 토론하기 위

해서가 아니었을 텐데요. 턱스버리 올드 파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홈즈 씨----!"

"친애하는 선생님, 미스터리 같은 건 없습니다. 보내신 편지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고, 이번 만남을 아주 긴박하게 요청하셨으니 갑작스럽고 중요한 일이 생겼음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고말고요. 하지만 편지는 오후에 쓰인 것이라 그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엠스워스 대령님이 저를 쫓아내지만 않으셨어도……."

"당신을 쫓아냈단 말이야!"

"결국, 상황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엠스워스 대령은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현역 시절에는 군대에서 알아주는 엄격한 군기 반장이었죠. 게다가 그 시절은 말투도 거칠던 때였고요. 제가 고드프리 때문에 참은 게 아니었다면, 대령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뢰인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일단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부디 이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새 고민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상황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기묘해지기만 하니까요."

"제가 1901년 1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쯤에 입대했을 때, 젊은 고드프리 엠스워스도 같은 기병 중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크림 전쟁에서 빅토리아 훈장을 받은 엠스워스 대령의 외아들이었죠. 혈기 왕성한 전사의 피가 흐르는 청년이었으니, 자원입대했다는 사실도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연대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청년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우정을 쌓았습니다. 같은 삶을 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이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우정 말입니다. 그는 제 전우였습니다. 군대에서 전우라는 말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는 1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온갖 고난을 함께 헤쳐 나갔습니다. 그러다 프리토리아 외곽의 다이아몬드 힐 근처에서 교전이 벌어졌을 때, 그는 코끼리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케이프타운 병원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고, 사우샘프턴에서도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홈즈 씨, 제 가장 친한 친구인 그에게서 6개월 넘게 단 한 마디의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고드프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더군요. 얼마를 더 기다린 뒤에 다시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답장이 왔지만, 아주 짧고 퉁명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고드프리가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났으니, 일 년 동안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홈즈 씨,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는 참한 청년이었고, 친구를 그렇게 쉽게 저버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그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한편으로는 그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와 아버지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다는 점도 알고 있었고요. 노인은 때때로 폭압적이었고, 젊은 고드프리는 그런 대우를 참아낼 만큼 유약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근원을 반드시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2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제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야 겨우 고드프리의 사건을 다시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사건을 다시 시작한 이상, 끝을 볼 때까지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고 매달릴 생각입니다.”

제임스 M. 도드 씨는 적보다는 친구로 두는 편이 훨씬 나을 법한 부류의 사람이었다. 푸른 눈빛은 엄격했고, 말을 내뱉는 그의 각진 턱에는 단호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내가 물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드퍼드 근처의 턱스버리 올드 파크에 있는 그의 집으로 내려가 지형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성미 고약한 아버지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고드프리는 나의 친한 친구이며,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에 대해 그녀에게 들려

줄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식으로 말을 꺼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갈 예정인데 혹시 머물러도 괜찮겠느냐는 내용도 덧붙였다. 답장은 매우 친절하게 돌아왔다. 그녀는 나를 하룻밤 재워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제안 때문에 나는 월요일에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턱스버리 올 홀은 어디에서도 5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역에는 마차가 없어서 수하물을 들고 직접 걸어와야 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스름이 깔린 뒤였습니다. 그곳은 넓은 공원 안에 자리 잡은, 아주 거대하고도 복잡한 구조의 저택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목조 골조를 바탕으로 빅토리아 양식의 현관까지 덧붙여진 탓에, 집의 여러 부분이 제각기 다른 시대와 양식으로 지어진 듯 보였습니다. 내부에는 벽면 패널과 태피스트리,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빛바랜 옛 그림들이 가득해, 마치 그림자와 신비로움이 깃든 집 같았습니다.

집에는 늙은 랄프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는 저택의 연식만큼이나 나이가 지긋해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있었는데 아마 집사보다 더 고령일 것입니다. 그녀는 고드프리의 유모였는데, 고드프리가 어머니 다음으로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그녀의 기묘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고드프리의 어머니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고 하얀 생쥐처럼 온순한 여인이었거든요. 제가 경계한 사람은 오직 대령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저는 곧장 역까지 걸어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곧장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그는 거구에 등이 굽은 사내였습니다. 그을린 피부에 덥수룩한 회색 수염을 기른 그는 어지러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수리 부리처럼 툭 튀어나온 코에는 붉은 실핏줄이 서 있었고, 숱이 많은 눈썹 아래에서는 매서운 회색 눈동자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고드프리가 왜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방문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이미 설명해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고말고요.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고드프리를 알고 지냈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 사실은 전적으로 당신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가 제게 보낸 편지들이 제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내가 건넨 두 장의 종이를 슥 훑어보더니, 그대로 다시 내 쪽으로 던져버렸다.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저는 당신의 아들 고드프리를 아꼈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인연과 추억이 얽혀 있었지요. 그러니 그 아이가 갑자기 소식이 끊긴 것에 의구심을 품고, 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미 귀하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지금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경험 이후 건강이 매우 나빠진 상태라, 그의 어머니와 저 모두 그에게는 완전한 휴식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설명을 이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지인들에게도 부디 잘 전달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그가 타고 떠난 증기선 이름과 선사, 그리고 날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편지를 전달할 방법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요청은 집주인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짜증까지 돋운 모양이었다. 그는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눈을 가리듯 내리깔더니, 탁자를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두드렸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위험한 수를 포착하고 그에 맞설 대응책을 이미 결정한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도드 씨, 많은 사람이 당신의 그 지독한 끈질김에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이토록 집요하게 구는 건 무례함을 넘어 아주 몰상식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선생님, 부디 이것을 당신 아드님을 향한 저의 진심 어린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정확합니다. 그 점은 이미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건대, 더 이상의 조사는 멈춰 주십시오. 아무리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외부인이 가족 내부의 사정이나 동기까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 아내는 당신이 알고 있는 고드프리의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일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식의 조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저희 가족을 매우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홈즈 씨. 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죠.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친구의 운명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은 참으로 지루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어둡고 빛바랜 낡은 방에서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물어보셨지만, 노인은 시종일관 침울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따분해서, 예의를 갖춰 적당한 핑계를 대고는 곧장 침실로 물러났습니다.

침실은 1층에 있는 크고 텅 빈 방이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곳처럼 어두컴컴했지요. 하지만 홈즈 씨, 1년 동안이나 초원에서 잠을 자본 사람이라면 잠자리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기 마련입니다. 저는 커튼을 열고 정원을 내다보며, 밝은 반달이 떠오른 멋진 밤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

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램프를 켜둔 채 타오르는 벽난로 옆에 앉아, 소설을 읽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 늙은 집사 랄프가 새 석탄을 가져오겠다며 들어오는 바람에 흐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밤사이에 혹시라도 모자라실까 봐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워낙 매서운 데다 방 안도 꽤 춥지 않습니까."

그는 방을 나서기 전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고개를 돌려 보니, 그는 주름진 얼굴에 아련한 빛을 띤 채 나를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주인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젊은 고드프리 도련님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저도 모르게 듣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돌봤기에, 저는 도련님의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도련님이 품행이 아주 반듯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연대에서 그보다 용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보어인들의 소총 사격이 쏟아지는 곳에서 저를 끌어내 주기도 했지요.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늙은 집사가 마른 손을 비볐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드프리 도련님이라면 딱 그러셨을 겁니다. 늘 용감하셨거든요. 공원에 있는 나무라면 도련님이 올라가 보지 않은 나무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무엇도 도련님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참으로 훌륭한 아이였고, 아, 선생님, 정말이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보게!" 내가 외쳤다.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건가? 마치 이미 사망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이 모든 수수께끼가 무엇인가? 고드프리 엠스워스는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나는 노인의 어깨를 붙잡았으나, 그는 움츠러들며 몸을 피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고드프리 도련님에 대해서는 주인 어른께 여쭤보십시오. 주인 어른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방을 나가려 하기에 나는 그의 팔을 붙들었다.

"잘 들으시오." 내가 말했다. "밤새도록 붙잡아 두더라도, 떠나기 전에 질문 하나에는 반드시 답해야 할 거요. 고드프리는 죽었나?"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 같았다. 그의 입술 사이로 대답이 간신히 흘러나왔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하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외쳤다. 그러고는 몸을 거칠게 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다.

“홈즈 씨, 제가 의자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노인의 말은 제게 단 하나의 의미로만 읽혔거든요. 불행하게도 제 친구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범죄, 혹은 최소한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뜻이었죠. 그 완고한 노인은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아들을 쫓아내고 숨겨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고드프리는 무모한 친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성격이었죠. 틀림없이 나쁜 무리에 휩쓸려 파멸의 길로 접어든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를 찾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제 앞에 고드프리 엠스워스가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감정에 북받친 사람처럼 말을 멈추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했다. "당신이 가져온 문제는 아주 이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군요."

“홈즈 씨, 그 남자는 창밖에서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밀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말씀드렸듯이, 저는 밤중에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튼을 아주 조금 열어둔 상태였지요. 그 틈 사이로 남자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창문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의 전신을 다 볼 수 있었지만, 제 시선을 붙든 것은 바로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질린 사람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유령이라 해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친 그의 눈동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뒤로 펄쩍 물러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홈즈 씨, 그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둠 속에서 치즈처럼 하얗게 번뜩이던 그 소름 끼치는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미묘한 것이었지요. 무언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듯한, 은밀하고도 죄책감에 젖은 듯한 느낌 말입니다. 제가 알던 그 솔직하고 건장한 청년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공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보어인들을 동료 삼아 일 년이나 이 년 정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고드프리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나는 곧장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뻑뻑하게 걸리는 바람에, 창문을 열어젖히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가, 그가 달아났을 법한 방향을 따라 정원 길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길은 길고 빛은 충분치 않았지만, 제 눈에는 앞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가며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길 끝에 다다르니 여러 갈래의 길이 갈라져 있었고, 그 길들은 저마다 다른 부속 건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며 서 있는 사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집 안 제 뒤쪽에서가 아니라, 제 앞쪽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홈즈 씨, 그 소리만으로도 제가 본 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고드프리가 저를 피해 달아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확신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무엇일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다음 날 만난 대령은 전날보다 훨씬 유순해진 모습이었다. 마침 그의 부인이 이 근처에 구경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언급하기에, 나는 이를 기회 삼아 하룻밤 더 머무는 것이 실례가 되지 않을지 물었다. 노신사는 다소 마지못해 허락했고, 덕분에 나는 온종일 관찰에 전념할 수 있었다. 고드프리가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나, 그가 정확히 어디에, 무슨 이유로 숨어 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다.

저택은 워낙 거대하고 구조도 복잡해서, 그 안에 연대 하나를 숨겨 둔다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만약 비밀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파헤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터였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던 그 문 닫히는 소리는 저택 안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정원을 샅샅이 뒤져 무엇이라도 찾아내야만 했다. 가는 길에 방해되는 일은 없었다. 노부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분주했기에, 나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작은 부속 건물들이 몇 채 있었으나, 정원 끝에는 꽤 규모가 큰 별채가 하나 있었다. 정원사나 사냥터지기가 거주하기에 충분할 만큼 큰 건물이었다. 혹시 저곳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린 것은 아닐까? 나는 마치 정원을 목적 없이 거니는 사람처럼,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자연스

럽게 그 건물로 다가갔다. 그때 검은 코트에 중절모를 쓴, 작고 민첩한 인상의 수염 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정원사라고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문을 잠근 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곳에 방문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고, 고드프리의 친구라고 설명했다."

“그가 여행 중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군요. 저를 보고 싶어 했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렇고말고요. 정확합니다.” 그가 다소 죄책감이 서린 기색으로 말했다. “분명 조만간 더 좋은 때를 골라 다시 방문하시겠지요.” 그는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정원 끝자락의 월계수 덤불 뒤에 몸을 반쯤 숨긴 채 나를 지켜보며 서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그 작은 집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나,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다. 눈에 보이는 바로는 비어 있는 듯했다. 하지만 너무 대담하게 행동했다가는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 한가로이 거닐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린 뒤에야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방이 어둡고 고요해졌을 때, 나는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그 의문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커튼이 두껍게 드리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보니 창문에는 덧문까지 달려 있었다. 그래도 창문 중 하나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기에 나는 그곳에 주의를 집중했다. 운이 좋게도 커튼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데다 덧문 사이에도 틈이 있어서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방 안은 꽤 아늑해 보였다. 밝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내 맞은편에는 아침에 보았던 그 작은 체구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떤 신문 말씀이십니까?" 내가 물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야기가 중단되자 짜증이 난 듯 보였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가 물었다.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종이가 넓은 판형이었는지, 아니면 주간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였는지도 살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스펙테이터》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고드프리라는 사실만큼은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익숙하게 기울어진 어깨 선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그는 몸을 벽난

로 쪽으로 돌린 채, 아주 우울한 자세로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던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옆을 보니 엠스워스 대령이 서 있더군요."

"이쪽입니다, 선생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말없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는 그를 따라 내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현관에서 열차 시간표 하나를 집어 들고 있었다.

"8시 30분에 런던행 열차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8시 정각에 마차가 문 앞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실제로 나는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였기에,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더듬거리며 겨우 내뱉을 뿐이었다.

"더는 논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말을 잘랐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사생활을 아주 무도하게 침해했습니다. 손님으로 왔으면서 스파이 노릇을 하다니 말입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히 해두지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홈즈 씨에게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동기로 아들을 이토록 단절시키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더 이상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엠스워스 대령, 경고해

두겠습니다. 내 친구의 안전과 안녕이 확인될 때까지, 나는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혹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인은 악마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공격할 것만 같았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수척하면서도 사나운 거구의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결코 약한 체격은 아니지만, 그와 맞붙어 버텨내기는 꽤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한참 동안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발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예정된 기차를 탔습니다. 이미 서신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을 직접 찾아가 조언과 도움을 구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은 채 말입니다."

방문객이 내 앞에 제시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눈썰미 좋은 독자라면 이미 알아챘겠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난관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 사건에는 흥미롭고도 색다른 지점들이 있었기에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충분했다. 나는 이제 평소처럼 논리적 분석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좁혀 나가기 시작했다.

"하인들은요?" 내가 물었다. "집 안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늙은 집사와 그의 부인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소박하게 생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별채에는 하인이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수염 난 작은 남자가 그런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꽤 품격 있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군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음식이 전달되고 있다는 낌새를 채기라도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생각나네요. 늙은 랄프가 정원 산책로를 따라 바구니를 들고 이 집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음식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따로 알아보신 건 없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역장과 마을 여관 주인에게도 물어봤지요. 제 옛 동료인 고드프리 엠스워스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단순히 물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는 세계 일주를 떠났다고 확신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왔다가 거의 곧바로 다시 길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실로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당신의 의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겠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겠군요. 저도 당신과 함께 턱스버리 올드 파크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입니까?"

마침 나는 친구 왓슨이 '애비 학교 사건'이라 명명했던 사건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 사건에는 그레이민스터 공작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터키 술탄으로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의뢰까지 들어온 상태였다. 만약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매우 중대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내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제임스 M. 도드 씨와 함께 베드퍼드셔로 임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다음 주 초가 되어서야 가능했다. 유스턴 역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나는 미리 약속해 두었던 신사를 만났다. 그는 철회색 머리칼을 지닌, 매우 엄숙하고 과묵한 인상이었다.

“이분은 오랜 친구라네.” 나는 도드에게 말했다. “이분이 꼭 오셔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오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왓슨의 기록을 읽어온 독자라면, 내가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드는 내 태도에 놀란 듯 보였으나, 더 이상의 말은 오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여정을 이어갔다. 기차 안에서 나는 동행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드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졌다.

"창가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아주 또렷하게 보았다고 하셨지요? 그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코가 유리창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등불 빛도 그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와 닮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가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색깔만 그랬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은—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생선 배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주 창백했지요."

"전신이 똑같이 창백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문에 바짝 밀착된 그의 이마를 아주 또렷하게 보았으니까요."

"그에게 소리쳤습니까?"

"그 순간 너무 놀라고 겁에 질린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린 대로 그를 뒤쫓긴 했습니다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였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작은 사건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꽤 긴 시간을 마차를 타고 달려 의뢰인이 설명했던 그 기묘하고도 넓게 퍼진 오래된 저택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이는 노년의 집사 랄프였다. 나는 그날 쓸 마차를 미리 빌려두었

기에, 내 연로한 친구에게는 우리가 따로 부르지 않는 한 마차 안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해 둔 상태였다.

랄프는 주름이 자잘하게 잡힌 노인이었는데, 검은 코트에 회색빛이 도는 바지를 입은 전형적인 집사의 차림새였다. 다만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었다. 그는 갈색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서둘러 장갑을 벗더니 우리가 현관 탁자로 들어서자 그곳에 내려놓았다.

내 친구 왓슨이 이미 언급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감각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예민하다. 그때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냄새가 느껴졌다. 그 냄새는 현관 탁자 근처에서 가장 강하게 풍겨 나왔다. 나는 몸을 돌려 탁자 위에 모자를 놓았다가, 실수인 척 모자를 툭 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이면서, 코를 장갑 근처 일 피트 거리까지 가져갔다.

그랬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기묘하고 끈적한 타르 냄새는 장갑에서 배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사건의 단서를 모두 확보한 채 서재로 들어갔다. 아, 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미리 패를 보여주게 될 줄이야! 왓슨이 그럴듯한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내가 이런 단서들을 사슬의 고리처럼 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엠스워스 대령은 방에 없었지만, 랄프가 보낸 메시지를 받자마자 곧장 달려왔다. 복도에서 그의 빠르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덥수룩한 수염에 얼굴을 일그러뜨린 노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내가 본 노인 중 가장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그는 우리 명함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그 조각들을 발로 짓밟았다.

"이 망할 참견쟁이 놈아,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나!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이야! 다시는 그 빌어먹을 얼굴을 이곳에 들이밀 생각도 마라. 내 허락 없이 다시 발을 들인다면, 그때는 물리력을 행사해도 내 권리인 줄 알아라. 당신을 쏴버릴 거야, 이 양반아! 맹세컨대, 정말 쏘고 말 거라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똑같이 경고하겠소. 당신이 어떤 천박한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잘난 재주를 다른 데 가서 발휘하시오. 이곳에 당신 같은 사람이 설 자리는 없으니까."

"고드프리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의도치 않은 주인은 벨을 눌렀다.

"랄프," 그가 말했다. "카운티 경찰에 전화해서 경위에게 순경 두 명을 보내달라고 하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전하고 말이야."

"잠시만요." 내가 말했다. "도드 씨, 엠스워스 대령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 저택 내에서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령 역시 당신의 행동이 전적으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엠스워스 대령과 5분 정도만 대화할 수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감히 기대해 봅니다.”

"난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네." 노병이 말했다. "랄프, 내가 시킨 대로 하게. 도대체 뭘 망설이고 있는 건가? 어서 경찰에 전화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문을 등지고 서서 대답했다.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재앙이 닥치고 말 겁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낱장 종이 위에 단어 하나를 휘갈겨 썼다. 그리고 엠스워스 대령에게 그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는 경악을 제외한 그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그 글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어떻게 아신 겁니까?" 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다.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이 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직업이죠."

그는 수척한 손으로 덥수룩한 수염을 잡아당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이내 체념했다는 듯 몸짓을 해 보였다.

“좋소, 고드프리를 보고 싶다면 보게 하겠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를 몰아붙였으니 어쩔 수 없군. 랄프, 고드프리 씨와 켄트 씨에게 전하게. 5분 뒤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겠다고 말이네.”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정원 길을 따라 내려갔다. 길 끝에 다다르자 의문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 앞에는 수염을 기른 작은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정말 갑작스럽군요, 엠스워스 대령님.” 그가 말했다.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켄트 씨.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고드프리 씨를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우리를 안내했다. 앞방은 가구들이 소박하게 놓인 커다란 방이었다. 벽난로를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의뢰인은 손을 내밀며 앞으로 달려 나갔다.

"이거 참, 고드프리! 오랜만이군, 친구!"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그를 제지하며 손을 내저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지미. 좀 떨어져 있어. 그래, 빤히 쳐다봐도 좋아! 내가 B 중대의 그 말쑥하던 랜스 코포럴 엠스워스처럼은 보이지 않지, 그치?”

그의 외모는 확실히 범상치 않았다. 아프리카의 태양에 그을려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검게 탄

피부 위로는 기이하게도 하얀 반점들이 얼룩덜룩하게 번져 있어 피부색을 변색시켜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손님을 반기지 않는 거라네.” 그가 말했다. “지미, 자네는 괜찮네만 자네 친구까지 올 필요는 없었어.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덕분에 내가 아주 난처하게 되었군.”

"고드프리, 자네에게 별일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네. 그날 밤 자네가 내 창문을 들여다보던 모습을 보았거든. 모든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네."

“랄프 영감이 자네가 거기 있다고 알려줘서, 나도 모르게 자네를 슬쩍 훔쳐보고 말았네. 자네가 날 보지 못했기를 바랐는데, 창문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얼른 내 굴로 도망쳐야 했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야기가 그리 길지는 않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프리토리아 외곽, 동부 철도 노선에 있는 버펠스프루이트에서 벌어진 그 아침 전투를 기억하나? 내가 총에 맞았다는 소식은 들었겠지?"

"네,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셋이 다른 대원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형이 아주 험난한 곳이었죠. 우리가 '대머리 심슨'이라 부르던 심슨과 앤더슨,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어족 전사들을 소탕하

던 중이었는데,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셋을 덮쳤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고요. 저는 어깨에 코끼리용 탄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말에 매달려 버텼고, 말이 몇 마일을 더 질주한 뒤에야 저는 정신을 잃고 안장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 상태도 몹시 좋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옆에 집 한 채가 있었다. 넓은 현관과 창문이 많은, 제법 커 보이는 집이었다. 날씨는 죽을 만큼 추웠다. 저녁 무렵이면 찾아오던 그 감각을 기억할 것이다. 상쾌하고 건강한 서리와는 전혀 다른, 몸이 마비될 듯하면서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그런 지독한 추위 말이다.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한기가 몰려왔기에, 저 집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몸을 끌다시피 하며 나아갔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 활짝 열린 문을 지나, 침대가 여러 개 놓인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그리고는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며 침대 중 하나에 몸을 던졌다. 정리되지 않은 침대였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떨리는 몸 위로 옷을 끌어당겨 덮자,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아침이었다. 정신이 맑은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기괴한 악몽 속으로 툭 떨어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커튼도 없는 커다란 창문으로 아프리카의 태양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에 가감 없이 드러난 커다란 백색 석회칠 기숙사의 모습은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내 앞에는 거대하고 울퉁불퉁한 머리를 가진, 난쟁이처럼 작은 남자가 서 있었

다. 그는 갈색 스펀지처럼 보이는 끔찍한 두 손을 휘저으며 네덜란드어로 흥분해서 횡설수설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 뒤로는 이 상황을 무척 즐거워하는 듯한 사람들이 무리 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 몸에는 서늘한 한기가 서렸다. 그들 중 평범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기이한 방식으로 몸이 뒤틀려 있거나, 부어올랐거나, 혹은 형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그 괴물 같은 존재들이 내뱉는 웃음소리는 듣기에 참혹할 정도로 끔찍했다.

그들 중 누구도 영어를 할 수 없는 듯했다. 하지만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야만 했다. 머리가 커다란 그 괴물이 몹시 분노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형적인 손으로 나를 붙잡더니, 내 상처에서 피가 새로 흘러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 밖으로 나를 끌어내려 했다. 그 작은 괴물은 황소처럼 힘이 셌다. 만약 소란을 듣고 방으로 들어온, 분명 권위가 있어 보이는 한 노인이 없었더라면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 노인이 네덜란드어로 엄하게 몇 마디를 내뱉자, 나를 괴롭히던 자는 움찔하며 물러났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가 경악하며 물었다. "잠시만요! 기진맥진하신 데다 어깨의 상처도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제가 의사니까 금방 처치해 드리지요. 그런데 세상에나! 당신은 전장에서 겪었던 그 어떤 위험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은 나병 환자 병원이고, 당신은 방금 나병 환자가 쓰던 침대에서 잠을 잔 겁니다."

"지미, 더 말할 필요가 있겠나? 전투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 불쌍한 환자들을 전날 모두 대피시켰던 모양이야. 그러다 영국군이 진격해 오자, 이 의료 책임자가 환자들을 다시 데려왔다네. 그는 나에게 자신이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면서도, 결코 내가 했던 것 같은 행동은 감히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더군. 그는 나를 개인실로 안내해 친절히 돌봐주었고, 일주일쯤 지나자 나는 프리토리아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네."

"제 비극은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제 얼굴에 나타난 끔찍한 징조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외딴 저택에 홀로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인 두 명뿐이었지요. 제가 머물 수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인 켄트 씨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아주 간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택지는 끔찍했을 겁니다. 평생 낯선 이들 사이에서 격리된 채, 결코 벗어날 희망조차 없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철저한 비밀 유지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조용한 시골이라 해도 소문이 퍼지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결국 저주받은 파멸로 끌려가게 될 터였습니다. 지미, 당신조차도 이 사실을 몰라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마음을 돌리셨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엠스워스 대령이 나를 가리켰다.

“이분이 제 손을 움직이게 만든 분입니다.” 그는 내가 ‘나병’이라고 적어 두었던 종이 조각을 펼쳐 보였다. “그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아는 편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이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듣기로는 켄트 씨만이 환자를 진찰했다고 하던데,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런 질환에 정통하신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병이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도 교육받은 의사라면 갖춰야 할 상식은 갖추고 있네." 그가 다소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선생님께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셨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2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점에도 분명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자를 격리하라는 압박을 받을까 봐 일부러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군요." 엠스워스 대령이 말했다.

"이런 상황이 닥칠 줄 미리 예상했습니다." 내가 설명했다. "그래서 입이 무겁기로는 둘도 없이 믿음직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그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기꺼이 조언을 해줄 겁니다. 이름은 제임스 손더스 경입니다."

로버츠 경을 직접 만난다는 기대감은, 이제 켄트 씨의 얼굴에 서린 기쁨과 경이로움보다 더 큰 설렘을 갓 임관한 초급 장교에게 안겨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말이지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럼 제임스 경을 이쪽으로 모셔 오겠습니다. 지금은 문밖에 세워 둔 마차에 계십니다. 엠스워스 대령님, 그동안 저희는 대령님의 서재에 모여 앉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필요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왓슨이 그립다. 그는 교묘한 질문과 감탄 섞인 외침을 던지며, 체계화된 상식에 불과한 나의 단순한 기술을 경이로운 기적으로 격상시켜 주곤 했다. 내 이야기를 직접 전할 때는 그런 조력자가 없다. 그럼에도 나는 엠스워스 대령의 서재에서 고드프리의 어머니를 포함한 소수의 청중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나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들려주려 한다.

"그 과정은 이런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말했다.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아무리 믿기 힘들더라도 남은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가정 말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설명이 남는다면, 그중 하나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거듭해야겠지요. 이제 이 원칙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 봅시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이

신사가 부친의 저택에 딸린 별채에 격리되거나 갇혀 있게 된 이유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숨어 지내는 것이거나, 정신 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거나, 혹은 격리가 필요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외에 적절한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하나씩 검토하며 무게를 달아보아야 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해결책이라기엔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 지역에서 미해결 사건이 보고된 적도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신했다. 만약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있었다면, 범인을 집에 숨겨두기보다는 차라리 해외로 보내서 치워버리는 것이 가족들에게 훨씬 이득이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행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정신 이상이라는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별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돌보는 간수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문을 잠갔다는 점은 내 추측을 뒷받침했고, 누군가 억류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 구속이 그리 엄격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젊은이가 빠져나와 친구를 살펴보러 내려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

도드 씨,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단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짚어가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켄트 씨가 읽고 있던 신문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 신문이 《란셋》이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었다면 내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간병인이 있고 당국에 정식으로 신고만 되어 있다면, 사유지에 정

신 질환자를 머물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가설은 여전히 사실과 맞물리지 않았다.

세 번째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드물고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 가설에 들어맞는 듯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나병이 드문 병이 아니다. 이 청년이 아주 희박한 확률로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가족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아들을 격리 시설로 보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소문이 퍼져 당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면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다. 충분한 보수만 약속된다면, 환자를 전담할 헌신적인 의사 한 명쯤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가 해가 진 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나병의 흔한 증상이기도 하다.

이 가설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너무나 확실해 보였기에, 나는 마치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식사를 가져다주는 랄프가 소독제가 스며든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내 마지막 의구심마저 사라졌다.

선생님, 제가 던진 단 한 마디의 말은 당신의 비밀이 탄로 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말 대신 글로 이 사실을 전한 이유는, 저의 신중함을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한 짧은 분석을 마무리하던 참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엄격한 인상의 저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가 안으로 들어왔

다. 평소라면 스핑크스처럼 무표정했을 그의 얼굴이 이번만큼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고, 눈빛에는 따스한 인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엠스워스 대령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손을 맞잡았다.

"제 소임이 대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일은 드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겠군요. 다행히 나병은 아니니까요."

"뭐라고?"

"피부가 비늘처럼 변하는 병인 어류형 각화증, 혹은 가성 나병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입니다. 외관상 보기 흉하고 잘 낫지도 않지만, 아마 치료는 가능할 겁니다. 무엇보다 전염성은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홈즈 씨. 우연치고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미묘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청년이 전염병에 노출되었다고 믿은 뒤로 그 공포에 질려 고통받아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리적 불안이, 정작 두려워하던 증상과 흡사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대—— 아, 부인이 기절하셨군요! 켄트 씨, 부인이 이 경악스러운 충격에서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마자린 보석

마자랭 보석의 모험

왓슨 박사는 다시금 베이커가 2층의 그 어수선한 방에 들어서니 기분이 참 좋았다. 그곳은 수많은 놀라운 모험이 시작되었던 출발점이었다. 그는 벽에 걸린 과학 도표와 산성 약품에 그을린 실험대, 구석에 기대어 있는 바이올린 케이스, 그리고 예전에 파이프와 담배를 담아두곤 했던 석탄통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빌리의 생기 넘치고 밝은 얼굴에 머물렀다. 빌리는 어리지만 매우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사환이었다. 그는 위대한 탐정의 침울한 모습 주변을 감싸고 있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채워주는 데 작은 도움을 주곤 했다.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구나, 빌리. 너도 변함이 없고 말이야. 그분도 여전하시길 바랄 뿐이다."

빌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닫힌 침실 문을 슬쩍 살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화창한 여름날 저녁 일곱 시였다. 하지만 왓슨 박사는 오랜 친구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런 시간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 말은 사건이 생겼다는 뜻이겠군요?"

네, 손님. 지금 아주 몰두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될 정도예요. 안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몸은 야위어가는데, 식사도 전혀 안 하시거든요. 허드슨 부인이 '홈즈 씨, 언제쯤 식사하시겠어요?'라고 물었더니, '모레 7시 30분에 하겠소'라고 답하더군요. 사건에 매달릴 때면 저러는 게 그분의 버릇입니다.

"그래, 빌리. 나도 알고 있단다."

"그분은 누군가를 미행하고 계세요. 어제는 일자리를 찾는 일꾼 차림으로 돌아다니셨고요. 오늘은 노파로 변장하셨죠. 제법 완벽하게 저를 속여 넘기시더군요. 제가 이젠 그분 방식을 알 만도 한데 말이에요." 빌리가 싱긋 웃으며 소파에 기대어 있는 헐렁한 양산을 가리켰다. "저것도 그 노파 차림에 들어가는 소품이에요." 빌리가 덧붙였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빌리?"

빌리는 마치 국가의 중대한 기밀이라도 논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크라운 다이아몬드 사건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십만 파운드나 되는 절도 사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소파에 총리님과 내무장관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을 정도니까요. 홈즈 씨는 두 분께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곧 두 분의 긴장을 풀어드린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캔틀미어 경도 계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아주 고집불통이십니다. 총리님과는 잘 지낼 수 있고, 내무부 장관님도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분이라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분만큼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홈즈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은 홈즈 씨를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홈즈 씨를 고용하는 것에도 반대하셨습니다. 차라리 홈즈 씨가 실패하기를 바라실 정도입니다.”

“그 사실을 홈즈 씨도 알고 있단 말입니까?”

"홈즈 씨는 알아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항상 알고 계십니다."

“글쎄, 그가 실패하지 않기를, 그리고 캔틀미어 경이 낭패를 보기를 바랄 뿐이라네. 그런데 빌리, 창문에 저 커튼은 왜 쳐둔 건가?”

"홈즈 씨가 사흘 전에 저기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 뒤에 좀 수상한 게 숨겨져 있거든요."

빌리가 다가와 돌출창 안쪽 벽면의 움푹 들어간 곳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걷어냈다.

왓슨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그곳에는 그의 오랜 친구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대로 있었다. 가운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얼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책이라도 읽는 듯 창문 쪽을 향해 비스듬히 숙이고 있었고, 몸은 안락의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빌리가 그 머리를 분리해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더 생생해 보이도록 각도를 여러 군데 조절해 두었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았다면 감히 손도 못 댔을 겁니다. 하지만 블라인드를 올리면 건너편에서도 이 모습이 다 보이지요."

"전에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었지."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요." 빌리가 말했다. 그는 창문의 커튼을 젖히고 거리 쪽을 내다보았다. "저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창가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직접 한번 보세요."

왓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선 순간 침실 문이 열렸다. 홈즈가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마른 체구의 그는 안색이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으나, 걸음걸이와 태도만큼은 여느 때처럼 활기찼다. 그는 단숨에 창가로 달려가더니 다시 한번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만하면 됐다, 빌리." 홈즈가 말했다. "그때 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 얘야. 난 아직 네가 꼭 필요하단다. 자, 왓슨, 다시 옛 거처에서 자네를 보니 정말 반갑군. 마침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와주었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가봐도 좋다, 빌리.”

홈즈가 말했다.

“왓슨, 저 아이는 골칫거리야. 저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두면서까지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는 걸까?”

"무슨 위험 말인가, 홈즈?"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말이야.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군."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살해당하는 거겠지, 왓슨."

“아니, 아니야. 홈즈,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내 유머 감각이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저런 농담보다는 훨씬 나은 농담을 던질 수 있네. 하지만 일단은 좀 편히 쉬는 게 어떻겠나? 술은 좀 마셔도 되겠지? 탄산수 제조기와 시가는 늘 두던 곳에 있네. 자, 평소처럼 안락의자에 앉게나. 설마 내 파이프와 형편없는 담배 맛에 질려버린 건 아니겠지? 요즘은 음식 대신 담배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네."

"그런데 왜 식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감각이란 굶길수록 예민해지는 법이니까요. 이보게, 왓슨 박사. 자네도 의사로서 인정하지 않나?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뇌로 공급되는 양은 늘어난다는 사실을 말일세. 왓슨, 나는 뇌 그 자체라네.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은 그저 부속물에 불과하지. 그러니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뇌뿐이라네.”

“하지만 홈즈, 이 위험은 어쩌고요?”

“아, 그래요.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면, 차라리 당신 기억 속에 살인범의 이름과 주소를 새겨두는 편이 나을 겁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 내 안부와 작별의 축복을 전하며 그 정보를 넘겨주면 되니까요. 이름은 실비우스입니다. 네그레토 실비우스 백작이죠. 어서 적으세요, 어서! 노스웨스트, 무어사이드 가든 136번지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왓슨의 정직한 얼굴이 불안으로 파르르 떨렸다. 그는 홈즈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홈즈가 하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보다 축소해서 말하는 것에 가까울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언제나 행동파였던 왓슨은 이 위기의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몸을 일으켰다.

"나도 끼워 주게, 홈즈. 하루 이틀 정도는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왓슨, 자네의 도덕성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군. 기존의 악습에 거짓말까지 더했으니 말이야. 매시간 환자가 찾아오는 걸 보니,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사다운 모습이구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를 체포할 수는 없나요?"

“맞네, 왓슨. 나도 할 수 있어.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그토록 걱정하는 거라네.”

"하지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빌리가 말해줬지. 사라진 왕실 보석 말이야!”

“그래, 그 거대한 황색 마자린 보석 말이야. 난 이미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도 낚아 올렸지. 하지만 보석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어. 그놈들을 잡는 게 무슨 소용이겠나? 그놈들을 짓밟아 버림으로써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노리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그 보석뿐이다.”

"그렇다면 이 실비우스 백작이라는 분도 당신이 낚아 올린 물고기 중 하나인가요?"

“맞아요, 그놈은 상어 같은 놈이죠. 아주 사납게 물어뜯는 놈이에요. 다른 한 명은 복서인 샘 머튼입니다. 샘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백작이 그를 이용해 먹었죠. 샘은 상어 같은 놈이 아닙니다. 그저 앞뒤 가리지 못하는 아주 멍청하고 고집 센 놈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제 그물 안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비우스 백작이라는 자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 내내 그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왓슨 박사님은 나를 노부인으로 보셨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변장했었죠. 심지어 그가 내 양산을 직접 들어준 적도 있다니까요. ‘실례하겠습니다, 부인.’ 그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이탈리아 혈통이 섞여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남부인 특유의 우아한 매너를 보여주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그야말로 악마가 따로 없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왓슨 박사님.”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었네."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그를 미노리스에 있는 옛 스트라우벤제의 작업장까지 미행했습니다. 스트라우벤제가 그 공기총을 만들었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물건이라는데, 지금은 아마 맞은편 창가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 모형은 보셨습니까? 빌리가 분명 보여줬을 텐데요. 글쎄요, 언제라도 그 아름다운 머리에 총알이 박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빌리, 무슨 일이냐?”

소년이 쟁반 위에 카드를 받쳐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홈즈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은 채 그 카드를 훑어보았다.

"그 사람 본인이군. 사실 이 정도까지 예상하진 않았네. 자, 왓슨, 용기를 내게! 배짱이 두둑한 사내야. 아마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서 그의 명성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만약 그가 내 사냥감 목록에 나까지 추가한다면, 그의 화려한 사냥 기록에 정말이지 승

리감 넘치는 마침표가 되겠지. 이건 그가 내 발끝이 자신의 뒤꿈치에 아주 바짝 붙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야."

"경찰을 불러오게."

"아마 그렇게 될 걸세.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왓슨, 창밖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겠나? 길가에 누군가 서성거리고 있는지 말이야."

왓슨은 커튼 가장자리 너머를 경계하며 살폈다.

"네, 문 근처에 험상궂게 생긴 사내 하나가 있습니다."

"샘 머튼이겠군. 충직하긴 해도 좀 어리석은 친구 말이야. 빌리, 그분은 어디 계시니?"

"대기실에 계십니다, 선생님."

"내가 신호를 주면 그를 불러오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방에 없더라도, 그대로 그를 들여보내게."

"예, 알겠습니다."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린 왓슨은, 곧바로 동료를 향해 진지한 태도로 몸을 돌렸다.

“이보게, 홈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자라고. 자네를 죽이러 왔을지도 몰라.”

"그렇다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고집하겠소."

"당신은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자한테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 사람아—나한테 방해가 된다는 거지.

"글쎄요, 당신을 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왓슨. 자네는 해낼 거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게임에서 물러선 적이 없지 않나. 끝까지 완수해낼 거라고 확신하네. 이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찾아왔지만, 내 목적을 위해서도 머물게 될 걸세.”

홈즈는 수첩을 꺼내 몇 줄을 휘갈겨 적었다.

“택시를 타고 스코틀랜드 야드로 가게. 그리고 이걸 C.I.D.의 요걸에게 전해주게나. 그러고 나서 경찰과 함께 돌아오게. 그러면 그놈을 체포하게 될 테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돌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시간이 조금은 있을 것 같군.” 홈즈가 벨을 눌렀다. “침실을 통해 나가는 게 좋겠어. 이 두 번째 출구는 아주 유용하거든. 상대가 나를 알아채지 못하게 그 사기꾼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당신도 기억하다시피 나에게는 나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리하여 잠시 후, 빌리가 실비우스 백작을 안내해 들어간 곳은 텅 빈 방이었다. 사냥으로 명성을 떨친 유명한 사냥꾼이자 사교계의 명사였던 그는,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거구의 사내였다. 독하고 얇은 입술 위로는 위압적인 검은 콧수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로는 독수리의 부리처럼 길고 굽은 코가 솟아 있었다. 옷차림은 정중했으나, 화려하게 빛나는 넥타이와 핀, 그리고 번쩍이는 반지들은 지나치게 눈에 띄었다.

문이 뒤로 닫히자, 그는 마치 도처에 함정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처럼 사나우면서도 경계심 어린 눈초리로 주위를 살폈다. 그러다 창가 안락의자 위로 솟아 있는 무표정한 머리와 가운 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처음 그의 얼굴에는 순전한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 어둡고 살기 어린 눈동자 속에서 끔찍한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주변에 보는 이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두꺼운 지팡이를 반쯤 치켜든 채 까치발을 들고 침묵하는 형체를 향해 다가갔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 바로 그 순간, 열린 침실 문 너머에서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부수지 마세요, 백작님! 제발 부수지 마세요!"

암살자는 경련이 일어난 얼굴에 경악을 띠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마치 허수아비가 아닌 실물을 향해 다시 폭력을 휘두르려는 듯, 장전된 지팡이를 한순간 치켜들었다. 하지만 홈즈의 흔들림 없는 회색 눈동자와 조롱 섞인 미소에는 그의 손을 힘없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꽤 예쁘장하게 잘 만들었군." 홈즈가 조각상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프랑스 조각가 타베르니에의 작품이야. 자네 친구 스트라우벤제가 공기총을 다루는 솜씨가 일품인 것처럼, 이 사람도 밀랍 인형을 만드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공기총 말씀입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죠?”

"모자와 지팡이는 옆에 있는 탁자 위에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어서 앉으시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권총도 잠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만약 그 위에 앉는 편이 더 좋으시다면 말입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과 몇 마디 나누고 싶던 참이었거든요."

백작은 짙고 위협적인 눈썹을 치켜뜨며 얼굴을 찌푸렸다.

“나 역시 당신과 할 말이 있었네, 홈즈. 그래서 여기 온 것이지. 방금 전 당신을 공격하려 했던 건 부정하지 않겠네.”

홈즈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몸을 흔들었다.

“당신 머릿속에 이미 대략적인 구상은 들어 있는 것 같더군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개인적인 배려까지 해주는 겁니까?”

"네가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내 뒤를 쫓도록 네 수하들을 풀어놓았으니 말이다."

내 수하들이라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미행을 붙여 두었네. 홈즈, 자네가 하는 방식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실비우스 백작,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를 부르실 때는 제 직함도 함께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업무 특성상 온갖 범죄자들과 안면을 트고 지내야 하는 처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외를 두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홈즈 씨. 그렇게 하죠."

"훌륭하군요! 하지만 제 수하에 있다는 그 요원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오해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실비우스 백작은 경멸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말고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는 노년의 스포츠 애호가가 나타났고, 오늘은 나이 지긋한 부인이 나타났죠. 그들은 하루 종일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과찬이십니다, 선생님. 처형을 앞둔 전날 밤, 노(老) 다우슨 남작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법이 얻은 만큼 무대가 잃은 셈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는 제 보잘것없는 흉내를 두고 이토록 친절한 찬사를 보내주시는군요!

"당신이었단 말인가요? 당신 본인이 직접 말입니다?"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 구석을 보시오. 당신이 나를 의심하기 전, 미노리스에서 아주 정중하게 건네주었던 그 양산이 거기 있소."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당신은 결코——"

"이 초라한 집을 다시 찾게 되었군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놓쳐버린 기회들을 두고 후회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니까요. 마침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백작의 짙은 눈썹이 위협적인 눈빛 위로 더욱 무겁게 일그러졌다. "그대의 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오. 나를 뒤쫓은 건 그대의 요원들이 아니라,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대의 가식적인 태도였단 말이오! 그대가 나를 미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 않소. 대체 이유가 무엇이오?"

"자, 이보게, 백작. 자네 알제리에서 사자 사냥도 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요?"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왜냐고? 스포츠 같은 즐거움, 짜릿한 흥분, 그리고 위험 때문이지!"

"게다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나라를 역병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지요?"

"정확합니다!"

"내 결론을 요약하자면 이렇네!"

백작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뒷주머니로 향했다.

"앉으십시오, 선생님, 어서 앉으세요! 사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란 다이아몬드를 원합니다!"

실비우스 백작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세상에나!" 그가 말했다.

“내가 그 일로 당신을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당신이 오늘 밤 여기 온 진짜 목적은,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테고. 글쎄, 당신 입장에서는 나를 없애는 게 아주 절실할 거라고 말해주고 싶군. 왜냐하면 나는 그 일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 당신이 이제 곧 말하게 될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야.”

“오, 정말입니까! 그런데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빠진 사실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 왕관 다이아몬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백작은 동행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오, 그걸 알고 싶으신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걸 어떻게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정말 그렇군!"

“실비우스 백작, 나를 속일 순 없습니다.” 홈즈가 그를 쏘아보자, 눈동자가 가늘게 수축했다가 다시 번뜩였다. 그 눈빛은 마치 위협적인 두 개의 강철 촉과도 같았다. “당신은 투명한 판유리나 다름없군요. 당신의 머릿속 가장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겠군요!"

홈즈는 즐겁다는 듯 손뼉을 치더니, 비웃는 기색으로 손가락질을 했다. "그렇다면 알고 있었군요. 방금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소."

"자, 백작,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실비우스 백작이 천장을 향해 눈을 치켜떴다. "허풍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말했다.

홈즈는 마치 승리를 결정지을 마지막 수를 고민하는 체스 고수처럼,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탁자 서랍을 활짝 열고는 납작한 수첩 하나를 꺼냈다.

"내가 이 책 안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나?"

아닙니다, 선생님. 전혀 모릅니다!

"당신!"

"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놈입니다! 당신의 그 비열하고 위험천만한 삶이 빚어낸 모든 행적이 바로 여기 다 모여 있단 말입니다!"

"제기랄, 홈즈!" 백작이 눈을 번뜩이며 외쳤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소!"

“여기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백작님. 당신에게 블라이머 저택을 남긴 노부인 해롤드의 죽음에 관한 진짜 사실들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 저택을 얼마나 순식간에 도박으로 날려 버렸는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미니 워렌더 양의 생애 전반에 관한 기록입니다."

"쳇! 그런 걸로 뭘 알겠나!"

"여기에 더 있습니다, 백작님. 여기는 1892년 2월 13일, 리비에라행 호화 열차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같은 해에 리요네 신용은행에서 일어난 위조 수표 사건입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제 판단이 맞군요! 자, 백작님, 당신은 카드 게임을 아는 분 아닙니까. 상대방이 트럼프 카드를 모두 쥐고 있을 때는, 그냥 패를 던져버리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이 말했던 그 보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진정하십시오, 백작. 그 성급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제 방식대로, 이 지루한 설명부터 차근차근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왕관 다이아몬드 사건에 있어서는 당신과 당신의 그 싸움꾼 부하 모두에게 죄를 물을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당신을 화이트홀까지 태워다 준 마부와, 다시 데려다준 마부를 이미 확보했소. 사건 현장 근처에서 당신을 목격한 수위도 잡았지. 당신

의 부탁을 거절했던 아이키 샌더스도 내 손안에 있소. 아이키가 이미 모든 걸 불어버렸으니,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소."

백작의 이마에는 핏대가 솟아올랐다. 털이 숭숭 난 검은 손은 억눌린 감정을 이기지 못해 경련하듯 움켜쥐어졌다. 그는 입을 열어 말을 하려 애썼으나, 차마 문장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게 바로 내가 쥔 패라네." 홈즈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다 내놓았지. 하지만 카드 한 장이 부족해. 바로 다이아몬드 킹이야. 그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군."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니라고요? 자, 백작님,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상황을 좀 보세요. 당신은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샘 머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 봐야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보석을 넘겨준다면, 글쎄요, 제가 범죄를 묵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나 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그 보석뿐입니다. 그것만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저에 관한 한, 앞으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번만 더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이번에 제 임무는 당신을 잡는 게 아니라, 보석을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렇다면—아아, 안타깝지만!—제가 데려가야 할 것은 그 보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되겠군요.

빌리가 벨 소리에 맞춰 나타났다.

“백작님, 이번 회의에는 친구인 샘도 함께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그의 이해관계도 대변되어야 하니까요. 빌리, 정문 앞에 덩치가 크고 못생긴 신사가 와 있을 걸세. 그를 안으로 모셔 오게.”

"만약 그분이 오지 않으시면 어쩌지요, 선생님?"

"폭력은 안 된다, 빌리. 거칠게 굴지 마라. 실비우스 백작께서 그를 찾으신다고 전하면, 그는 분명히 올 게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빌리가 사라지자 백작이 물었다.

"방금 내 친구 왓슨이 여기 함께 있었네. 내 그물에 상어와 피라미가 같이 걸렸다고 말해줬지.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니, 두 놈이 함께 올라오는군."

백작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고, 그의 손은 등 뒤로 감추어져 있었다. 홈즈는 가운 주머니 밖으로 무언가 살짝 삐져나온 채 쥐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할 거다, 홈즈."

"저도 종종 같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 일일까요? 결국 백작님, 당신의 최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건 병적인

일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 온전히 빠져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흉악한 범죄자의 어두운 눈 속에서 갑자기 야수 같은 광기가 번뜩였다. 홈즈는 긴장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평소보다 더 거대해 보이는 듯했다.

"친구여, 리볼버를 만지작거려 봤자 아무 소용없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총을 뽑을 시간을 준다 해도, 자네가 감히 발사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리볼버란 건 지저분하고 소란스럽기만 한 물건이라네, 백작. 차라리 공기총을 쓰는 게 나을 거야. 아! 저기 자네의 존경스러운 파트너가 요정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군. 안녕하십니까, 머턴 씨. 거리 분위기가 꽤나 가라앉아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로 보이는 그 사내는 체격이 건장하고 둔중한 젊은이였다. 멍청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얼굴은 옆으로 넓고 평평했다. 그는 문가에 어색하게 서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홈즈의 세련된 태도는 그에게 생소한 경험이었다. 그 태도가 어딘가 적대적이라는 느낌을 막연히 받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도움을 구하고자 자신보다 눈치가 빠른 동료를 돌아보았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백작? 이 친구는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백작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대답은 홈즈가 했다.

"머튼 씨,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완전히 끝장났다고 할 수 있겠군요."

권투 선수는 여전히 동료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이 친구,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난 지금 농담 따위 받아줄 기분이 아니거든."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군요." 홈즈가 말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기분이 더 나빠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실비우스 백작. 저는 바쁜 사람이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편히 계십시오. 제가 옆에 있으면 조심스러워할 테니, 친구분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이올린으로 호프만의 '뱃노래'를 연주하고 있겠습니다. 5분 뒤에 최종 답변을 듣기 위해 돌아오죠. 선택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셨겠지요? 당신을 데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보석을 가져갈 것인지 말입니다."

홈즈는 방 구석에 놓인 바이올린을 챙겨 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닫힌 침실 문 너머로 그토록 뇌리에 박히는 선율이 길게 늘어지며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머튼이 불안한 듯 물었다. 동행이 그를 돌아보자 그는 다급히 덧붙였다. "그자가 그 보석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요?"

"그는 그 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요."

“세상에!” 권투 선수의 창백한 얼굴이 한층 더 하얗게 질렸다.

"아이키 샌더스가 우리를 배신했어."

"그자가 그랬단 말이지? 만약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 해도, 그놈에게 아주 호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걸로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해."

"잠깐만요." 권투 선수가 침실 문 쪽을 의심스럽게 흘깃거리며 말했다. "그 친구는 아주 교활한 놈이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음악 소리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단 말인가?"

"맞아요. 어쩌면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이 방에는 커튼이 너무 많군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창가에 놓인 인형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채, 그곳을 가리키며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쳇, 이건 그냥 가짜일 뿐이야." 백작이 말했다.

"가짜라고요? 이거 참 기가 막히는군요! 마담 투소의 밀랍인형도 이건 따라오지 못하겠어요. 가운까지, 살아 있는 사람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니까요. 하지만 백작님, 저 커튼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 제기랄, 저 커튼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군.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데 말이야. 저놈은 이 돌을 빌미로 우릴 감옥에 처넣을 수 있어."

"젠장, 정말 그럴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우리가 장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주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놓아줄 거야."

"뭐라고요! 포기하라니요? 십만 파운드나 되는 거금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둘 중 하나뿐입니다."

머튼은 짧게 깎은 머리를 긁적였다.

"안에 혼자 있군. 해치워 버리자고. 저 불빛만 꺼져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는데 말이야."

백작은 고개를 저었다.

“놈은 무기를 들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여기서 총을 쐈다간 이 근방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놈이 가진

증거물은 이미 경찰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아니, 방금 그 소리는 뭐죠?”

창밖에서 무언가 모호한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으나, 주위는 고요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기이한 형상 하나를 제외하면, 방 안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다.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머튼이 말했다. "자, 잘 들어보쇼, 대장. 당신은 머리가 좋지 않소. 분명히 이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요. 주먹질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에게 달린 거요."

"그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도 속여 왔소." 백작이 대답했다. "보석은 여기 내 비밀 주머니에 들어 있소. 이런 걸 아무 데나 두고 모험을 할 수는 없지. 오늘 밤 당장 영국을 떠나서, 일요일이 되기 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네 조각으로 잘라버릴 수도 있단 말이오. 그는 반 세다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반 세다르가 다음 주에 떠나는 줄 알았네."

"그는 분명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그는 다음 배를 타고 떠나야만 하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그 돌을 들고 라임 스트리트로 몰래 가서 그에게 알려줘야 해."

"하지만 밑바닥을 이중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에 맡길 수밖에 없네. 단 한 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어."

사냥꾼의 본능처럼 위험을 감지한 듯,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매섭게 살폈다. 그렇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 곳은 분명 거리였다.

"홈즈 말인가?" 그가 말을 이었다. "그놈은 아주 쉽게 속일 수 있어. 잘 들어보게, 그 빌어먹을 멍청이는 보석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우리를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보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만이야. 놈을 엉뚱한 길로 유인한 뒤, 홈즈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보석은 네덜란드로 보내고 우리는 이미 나라를 떠나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거 좋군요!" 샘 머튼이 싱긋 웃으며 외쳤다.

"가서 그 네덜란드인에게 서두르라고 전하게. 난 이 얼간이를 상대하며 가짜 자백을 털어놓을 테니까. 보석이 리버풀에 있다고 말해버리지. 아, 저 징징거리는 음악 소리 좀 봐. 신경을 긁는군! 그자가 리버풀에 보석이 없다는 걸 알아차릴 때쯤이면, 우린 이미 보석을 4등분으로 나눠 가진 채 푸른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거네. 자, 이 열쇠구멍 정면에서 비켜서게. 여기 보석이 있네."

"그걸 감히 들고 다니다니, 참 대담하시군요."

"이걸 어디에 둔들 이보다 더 안전하겠소? 우리가 화이트홀에서도 그걸 빼낼 수 있었으니, 다른 누군가도 분명 내 숙소에서 그걸 빼낼 수 있을 게요."

"한번 살펴봅시다."

실비우스 백작은 동료를 못마땅하다는 듯 훑어보더니, 자신을 향해 내민 그 지저분한 손은 아예 무시해 버렸다.

"뭐라고요? 내가 그걸 뺏기라도 할까 봐 겁나십니까? 이보쇼, 당신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군요."

“자, 자, 샘.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게. 지금 우리에겐 싸울 여유가 없으니 말이야. 제대로 보고 싶으면 창가로 이리 오게나. 자, 이제 빛에 비춰보게! 여기라네!”

번역할 원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즉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홈즈는 단숨에 몸을 날려 마네킹이 앉아 있던 의자에서 뛰어오르더니, 그 귀중한 보석을 낚아챘다. 그는 한 손에 보석을 움켜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백작의 머리를 향해 리볼버를 겨누었다. 두 악당은 형언할 수 없는 경악에 빠져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홈즈는 전기 벨을 눌렀다.

“진정하십시오, 신사 여러분. 제발 폭력을 쓰지 마십시오! 가구들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찰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작은 분노와 공포를 넘어선 당혹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놀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 침실에서 저 커튼 뒤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테니까요. 인형을 옮길 때 분명 소리가 났을 텐데, 운 좋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셨다면 무척이나 어색해졌을 두 분의 흥미진진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지요."

백작은 체념했다는 듯 몸짓을 해 보였다.

"당신한테는 졌소, 홈즈. 내 생각에 당신은 악마 그 자체인 것 같구려."

"적어도 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겠지요." 홈즈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샘 머튼은 머리 회전이 느린 편이라 상황 파악이 한참이나 늦었다. 마침 계단 너머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그제야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딱 걸렸군!” 그가 외쳤다. “그런데 이보게, 그 빌어먹을 바이올린 소리는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귀에 쟁쟁하단 말일세.”

"허허, 그렇고말고요!" 홈즈가 대답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계속 틀어 두세요! 요즘 나오는 축음기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발명품이군요."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수갑 채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범인들은 대기 중이던 마차로 끌려갔다. 왓슨은 홈즈 곁에 남아, 그의 화려한 경력에 또 하나의 업적이 추가된 것을 축하했다. 그때, 평소처럼 침착한 태도의 빌리가 명함 쟁반을 들고 나타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 한번 중단되었다.

"캔틀미어 경입니다, 선생님."

“빌리, 문을 열어드리게. 이분은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시는 고귀한 귀족이시네.” 홈즈가 말했다. “훌륭하고 충직한 분이지만, 다소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지. 우리가 조금 긴장을 풀어드려 볼까? 약간의 결례를 범해도 괜찮겠나? 짐작건대, 이분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실 걸세.”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엄격한 인상을 풍기는 남자가 들어섰다. 도끼처럼 각진 얼굴에 윤기 나는 검은색 구레나룻이 중기 빅토리아 시대 양식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으나, 그 모습은 둥글게 굽은 어깨와 힘없는 걸음걸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홈즈는 친절하게 다가가 그와 악수를 나누었지만, 상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캔틀미어 경. 이맘때치고는 날씨가 꽤 쌀쌀하군요. 그래도 실내는 제법 따뜻합니다. 코트를 받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벗지 않겠습니다."

홈즈는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단호하게 손을 얹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제 친구인 왓슨 박사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아주 교활하게 건강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그분은 다소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몸을 흔들어 뿌리쳤다.

“전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 더 머무를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당신이 스스로 맡은 그 임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잠시 들러본 것뿐입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노련한 귀족의 말투와 태도에는 명백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홈즈 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과정 덕분에 스스로에게 도취되는 나약함은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선생님. 정말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막막할 따름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군."

"특히 한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조언을 구하러 오기엔 시기가 너무 늦었군요.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해결 방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캔틀미어 경,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 도둑들을 상대로 죄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능합니다."

"그놈들을 다 잡고 나면 말이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물아비에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좋겠지. 자, 이제 장물아비에게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보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고작 그 사실만으로 그를 체포하겠다는 건가요?"

"틀림없습니다."

홈즈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지만, 이때만큼은 오랜 친구 왓슨이 기억하는 한 가장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선생, 유감스럽게도 당신을 체포하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겠군요."

캔틀미어 경은 몹시 분노했다. 노기 어린 감정이 그의 창백한 뺨 위로 번뜩이며 치밀어 올랐다.

“홈즈 씨, 정말 무례하시군요. 내가 50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중요한 업무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농담을 받아줄 시간도, 취미도 없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당신의 능력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건은 정규 경찰 조직에 맡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도 늘 해왔고요. 당신의 이런 행동을 보니 내 생각이 옳았다는 확신만 드는군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홈즈는 재빨리 자리를 옮겨, 캔틀미어 경과 문 사이를 막아섰다.

"잠시만요, 선생님." 그가 말했다. "마자린 보석을 실제로 가지고 달아나는 것은, 잠시 보석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가 될 겁니다."

"선생님,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비켜 주십시오."

"오버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제발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잠시 후, 경악한 귀족은 떨리는 손바닥 위에 커다란 황색 보석을 올려둔 채, 눈을 깜빡이며 말을 더듬으며 서 있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홈즈 씨?"

"안타깝군요, 캔틀미어 경. 정말 안타까워요!" 홈즈가 외쳤다. "여기 있는 내 오랜 친구도 알겠지만, 나는 장난치는 걸 아주 좋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게다가 극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성미이기도 하죠.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주 큰 실례라는 점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무렵 당신의 주머니에 그 보석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노년의 귀족은 보석에서 눈을 들어, 눈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홈즈 씨,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지만…… 네, 그렇군요. 정말로 마자린 보석이 맞습니다. 홈즈 씨,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인정했듯이 유머 감각이 다소 비뚤어져 있고, 그걸 보여주는 타이밍도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지만, 적어도 당신의 놀라운 전문적 능력에 대해 제가 했던 의구심은 거두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사건은 아직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캔틀미어 경, 당신이 돌아가실 그 고귀한 사교계에서 이번 성공담을 즐겁게 늘어놓으신다면, 제 장난에 대한 작은 속죄는 될 수 있겠군요. 빌리, 경을 밖으로 안내해 드리게. 그리고 허드슨 부인께는 가능한 한 빨리 두 사람분의 저녁 식사를 올려 달라고 전해 주게나."

4

세 박공집

세 개의 박공지붕

셜록 홈즈와 함께했던 수많은 모험 중에서도, '세 개의 박공지붕' 사건만큼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시작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며칠 동안 홈즈를 보지 못한 터라, 그가 요즘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홈즈는 꽤나 수다스러운 기분이었다. 그는 벽난로 한쪽에 놓인 낡고 편안한 안락의자에 나를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파이프를 입에 문 채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바로 그때, 우리의 방문객이 도착했다. 만약 내가 미친 황소가 돌진해 들어왔다고 표현한다면, 당시 벌어진 상황을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거구의 흑인 남성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가 입은 옷차림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주 화려한 회색 체크무늬 정장에 연어색 넥타이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웃기지 않았고 오히려 공포스러웠

다. 넓적한 얼굴과 납작한 코를 앞으로 내민 채, 그는 우리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시커먼 눈동자에는 불길한 악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두 분 신사분 중 누가 매서 홈즈 씨입니까?" 그가 물었다.

홈즈는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오, 당신이었습니까?”

우리 방문객이 테이블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불쾌할 정도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였다.

“이보쇼, 매서 홈즈 씨. 남의 일에 참견 좀 하지 마시오. 남의 일은 남이 알아서 하게 두란 말이오. 내 말 알아들었소, 매서 홈즈 씨?”

“계속 말씀하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오, 아주 좋다고?” 그 야만적인 사내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네놈을 좀 다듬어 놓고 나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보자고. 전에도 너 같은 놈들을 상대해 봤는데, 내 손을 거치고 나면 다들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 이것 좀 봐라, 매서 홈즈!”

그는 옹이처럼 거대하고 울퉁불퉁한 주먹을 내 친구의 코끝 아래로 휘둘렀다. 홈즈는 아주 흥미롭다는 듯 그 주먹을 유심히 살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니면 서서히 그렇게 변한 겁니까?"

내 친구의 냉담한 태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내가 부지깽이를 집어 들 때 냈던 작은 소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우리를 찾아온 방문객의 태도는 이전만큼 요란스럽지 않았다.

“자, 미리 경고해 두겠는데.” 그가 말했다. “내 친구 중에 해로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냐. 그 친구는 당신이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 알아들었어? 당신도 법 집행관이 아니고 나도 법 집행관이 아니야. 만약 당신이 끼어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잊지 말라고.”

“한동안 만나고 싶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앉으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 그 악명 높은 주먹잡이 스티브 딕시 아닌가요?”

"그래, 그게 내 이름이지, 매서 홈즈 씨. 나한테 까불다간 아주 호되게 당할 줄 알아."

"분명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 없는 일일 겁니다."

홈즈가 우리를 찾아온 방문객의 흉측한 입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홀본 바 외부에서 벌어진 젊은 퍼킨스의 살인 사건 말입니다. ……아니, 안 가시겠다고요?"

흑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납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 소리는 듣지도 않겠소." 그가 말했다. "이놈의 퍼킨스니, 매서 홈즈니 하는 것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이 애송이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버밍엄의 불 링에서 훈련 중이었다고."

"그래, 스티브. 자네가 치안판사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홈즈가 말했다. "나는 자네와 바니 스톡데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네."

"세상에, 맙소사! 홈즈 씨……!"

"그만해. 당장 나가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

"좋은 아침입니다, 홈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왔다고 해서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겠지요?"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감정이 남게 될 거요."

"아니, 그건 전혀 비밀도 아니에요, 매서 홈즈 씨.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신사분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부추겨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도와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그자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브, 가서 홈즈 씨를 만나. 그리고 경고해. 만약 그가 해로우 쪽으로 내려간다면 목숨이 위험할 거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이에요."

방문객은 더 이상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들어올 때만큼이나 급히 방을 뛰쳐나갔다. 홈즈는 나직하게 껄껄 웃으며 파이프의 재를 털어냈다.

“왓슨, 자네가 그놈의 멍청한 머리통을 깨뜨리지 않아 다행이네. 아까 부지깽이를 휘두르려던 자네의 움직임을 지켜봤네만. 하지만 저놈은 사실 별로 해롭지 않은 부류야. 그저 근육만 비대하고 멍청하며, 허세만 부리는 어린애 같은 놈이지. 자네도 봤겠지만, 겁도 아주 많고 말이야. 저놈은 스펜서 존 일당 중 하나인데, 최근에 저지른 몇몇 지저분한 사건들에 가담했더군. 시간 날 때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네. 저놈의 직속 우두머리인 바니는 좀 더 영악한 놈이야. 저들은 주로 폭행이나 협박 같은 일을 전문으로 다루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네.”

"하지만 대체 왜 당신을 겁주려는 겁니까?"

"바로 그 해로 웰드 사건 때문이라네. 그 사건이 내 마음을 움직였지. 누군가 이토록 수고를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면, 분명 그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막 자네에게 말해주려던 참에 이 우스꽝스러운 소동이 끼어든 거라네. 여기 메이버리 부인이 보낸 쪽지가 있네. 자네만 괜찮다면 함께 가세. 바로 부인에게 전보를 치고 곧장 출발하지.”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에게, (나는 읽었다.)—

이 집과 관련해서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언을 꼭 듣고 싶군요. 내일은 언제든 집에 있을 테니 편하실 때 들러 주십시오. 집은 웰드 역에서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 사별한 남편 모티머 메이버리가 당신의 초기 의뢰인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 메리 메이버리.

주소는 "해로 웰드, 더 쓰리 게이블스"였다.

“그렇게 된 거군!” 홈즈가 말했다. “자, 왓슨. 이제 시간 좀 낼 수 있다면 슬슬 출발하지.”

기차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한 뒤, 다시 차를 타고 조금 더 달리자 목적지인 저택이 나타났다. 그곳은 개발되지 않은 초원 한 에이커 위에 홀로 서 있는 벽돌과 목조로 된 빌라였다. 위층 창문 위로 툭 튀어나온 세 개의 작은 돌출물은 이 집의 이름값을 하려는 듯 애처롭게 솟아 있었다. 저택 뒤편에는 채 다 자라지 못한 쓸쓸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고, 집 전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초라하고도 침울했다. 그럼에도 집 안은 가구가 잘 갖춰져 있었으며, 우리를 맞이한 부인은 교양과 품격이 넘치는 매우 매력적인 노부인이었다.

“부인, 남편분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사소한 일로 제 도움을 받으신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군요.”

"아마 제 아들인 더글러스의 이름을 더 잘 아실 겁니다."

홈즈는 아주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당신이 더글러스 메이버리의 어머니이신가요? 그를 조금 알고 지냈습니다. 물론 런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알았지만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죽었습니다, 홈즈 씨, 죽었다고요! 로마 주재 대사관의 아타셰(외교관)였는데, 지난달에 거기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런 분에게 죽음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너무 열정적이었던 게 문제였어요, 홈즈 씨. 그게 그를 망쳤지요. 당신은 그가 한창 멋지고 당당하던 시절의 모습만 기억하겠지만, 그 이후에 그가 얼마나 침울하고 뚱하며 생각에 잠긴 사람으로 변해갔는지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단 한 달 사이에, 그 용맹하던 청년이 초췌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연애 사건인가요? 여인과 관련된 일 말입니다?"

“아니면 악마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홈즈 씨. 당신을 이리로 모신 건 내 불쌍한 아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왓슨 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은퇴한 뒤의 조용한 삶을 원했기에 이웃들과는 거의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사흘 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는 이 집이 자신의 고객에게 딱 맞는 집이라며, 만약 집을 팔 의향이 있다면 금액은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빈집들 중 이 집만큼 조건이 좋은 곳이 여러 군데나 있었기에, 저는 그 제안이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관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을 샀을 때보다 500파운드 더 얹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는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고객이 가구까지 모두 사고 싶어 하는데, 가구 값은 얼마로 하면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가구 중 일부는 예전 집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제안 역시 곧바로 수락했습니다. 저는 늘 여행을 꿈꿔왔기에, 이 거래는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줄 만큼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계약서 초안을 다 작성해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해로에 사는 제 변호사 서트로 씨에게 그 서류를 보여줄 수 있었죠. 서트로 씨는 서류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아주 이상한 문서입니다. 만약 여기에 서명하신다면, 법적으로 집 안에서 그 어떤 것도—심지어 본인의 개인 소지품조차도—가져나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녁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저는 오직 가구만을 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전부 다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 옷은요? 제 보석들은요?”

“글쎄요, 개인 소지품 정도라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집 안의 물건 중 검사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 의뢰인은 매우 관대한 분이지만, 본인만의 기호와 방식이 확고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법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아니겠군요.” 내가 말했다. 이야기는 거기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내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이례적으로 느껴졌기에, 나는 문득——

그때 아주 기이한 방해가 찾아왔다.

홈즈가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방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을 벌컥 열고는 어깨를 붙잡아 끌고 온 커다란 체구의 수척한 여성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여인은 마치 닭장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거대하고 둔한 닭처럼, 몸부림치며 어설프게 안으로 들어왔다.

"나 좀 내버려 둬요!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수잔, 이게 대체 뭔가요?"

“저기, 부인. 손님들이 점심 식사까지 하고 가시는지 여쭤보려고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저한테 확 달려들더라고요.”

“지난 5분 동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네만, 자네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네. 수잔, 숨소리가 조금 거칠군, 안 그런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숨을 너무 가쁘게 몰아쉬는 것 같아.”

수잔은 심술이 난 듯하면서도 경악한 얼굴로 자신을 붙잡은 이를 돌아보았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무슨 권리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냐고!"

“그저 당신이 계신 자리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메이버리 부인, 혹시 누군가에게 저에게 편지를 써서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홈즈 씨.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누가 부쳤습니까?"

"수잔이 그랬어요."

"맞아. 자, 수잔. 당신의 여주인이 내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였지?"

"거짓말입니다. 난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수잔. 숨 가쁘게 몰아쉬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단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주 나쁜 짓이야.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니?"

"수잔!" 여주인이 소리쳤다. "네가 아주 못되고 배신할 줄 아는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야 기억이 나네. 네가 울타리 너머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었지."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대화를 나눈 상대가 바로 바니 스톡데일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글쎄요, 알고 계신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 수잔, 바니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면 당신에게 10파운드를 주겠소."

"당신이 세상에서 가진 10파운드마다 1,000파운드를 아무렇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남성이라고요? 아니죠. 방금 웃으셨으니 부유한 여성분이겠군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이름도 말씀하시고 10파운드도 챙겨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옥에서나 만나자고."

“오, 수잔! 말조심하게!”

“나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당신들하고는 더는 못 해 먹겠어. 내일 당장 짐을 싸서 떠날 테니까!” 그녀는 문을 향해 씩씩거리며 홱 나가버렸다.

"잘 가요, 수잔. 파레고릭(Paregoric)이 효과가 좋을 거요. 자, 이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화를 내며 나간 여인의 문이 닫히자, 그는 갑자기 활기찬 태도를 버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이 조직은 보통 놈들이 아니오.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보시오. 당신이 내게 보낸 편지의 우체국 소인이 밤 10시로 찍혀 있었지. 그런데 수잔은 그 소식을 바로 바니에게 전달했소. 바니는 고용주를 찾아가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 고용주—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을 때 수잔이 지은 미소를 보니 여자 쪽인 것 같소만—는 계획을 세웠지. 그다음 블랙 스티브를 불러들였고, 나는 바로 다음 날 오전 11시가 되기도 전에 경고를 받았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 않소."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지요. 당신이 이 집을 맡기 전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퍼거슨이라는 은퇴한 선장이 살았습니다."

"그에게서 눈에 띄는 점은 없었나?"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땅에 묻어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보물을 묻는다면 보통 우체국 은행에 맡기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늘 제정신이 아닌 이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이 참 지루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땅에 묻힌 귀중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굳이 당신의 가구까지 탐내겠습니까? 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라파엘로의 그림이나 셰익스피어의 초판본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아니요, 크라운 더비 티 세트보다 더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군요."

“그 정도로 이 모든 수수께끼를 정당화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걸까요? 만약 당신의 찻잔 세트가 탐난다면, 굳이 당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사들이려 할 필요 없이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읽어낸 바에 따르면 상황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무언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왓슨 박사도 동의하니, 그걸로 결정됐군."

"자, 홈즈 씨, 대체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논리적인 분석만으로 이 문제를 더 정밀하게 파헤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당신은 이 집에서 1년 동안 지냈군요."

거의 2년입니다.

"오히려 잘됐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은 아무도 부인께 바라는 게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불과 사나흘 사이에 다급한 요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한 가지 의미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방금 막 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정리가 됐군요." 홈즈가 말했다. "자, 메이버리 부인, 방금 도착한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새로 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음, 상황이 좀 더 진전되어 확실한 자료가 모일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라는 분은 유능한 사람입니까?"

"수트로 씨는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하녀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 그 아름다운 수잔뿐이었습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수트로 씨에게 부탁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이나 이틀쯤 묵게 하십시오. 부인께 보호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누구를 상대로 말입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낼 수 없다면, 반대편에서 접근해야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부터 찾아내는 거죠. 그 부동산 중개인은 주소를 남겼습니까?"

"그저 명함과 직업뿐이었습니다. '헤인즈-존슨, 경매사 및 감정사'라고 적혀 있었죠."

"업체 명부에서 그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정직한 사업가라면 자신의 사업장 위치를 숨기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새로운 진전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사건을 맡기로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홀을 지나갈 때,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홈즈의 눈이 구석에 쌓인 여러 개의 트렁크와 가방들을 포착했다. 그 위에는 라벨들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밀라노, 루체른. 이 이름들은 이탈리아에서 온 것이군."

"그건 불쌍한 더글러스의 물건들이에요."

"아직 짐을 풀지 않으셨다고요? 그것들을 가져온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들은 지난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찾던 마지막 연결 고리일 겁니다. 그곳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없으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홈즈 씨. 불쌍한 더글러스에게는 월급과 적은 연금뿐이었거든요. 그가 가진 것 중에 무슨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홈즈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더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메이버리 부인.”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 물건들은 전부 위층 침실로 옮겨 두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와 경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박공지붕' 저택이 매우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골목 끝에 있는 높은 울타리를 돌아 나가자, 어둠 속에 검은 피부의 권투 선수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아주 갑작스럽게 마주쳤는데, 그 외딴곳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험악하고 위협적이었다. 홈즈는 재빨리 주머니에 손을 가져다 댔다.

"총을 찾고 있나, 매서 홈즈?"

"아니, 내 향수병을 위해서라네, 스티브."

"당신 참 웃기는 사람이구먼, 매서 홈즈, 안 그래?"

"스티브,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면 너한테는 전혀 재미없는 상황이 될 거야. 오늘 아침에 분명히 경고했지."

"글쎄요, 홈즈 씨. 말씀하신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퍼킨스 씨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군요. 만약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홈즈 씨, 기꺼이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죠. 이번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홈즈 씨, 전 전에도 사실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전 모릅니다. 제 상사인 바니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요."

"잘 들어둬, 스티브. 그 집에 사는 여인과 그 지붕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절대 잊지 마."

"알겠습니다, 매서 홈즈. 명심하죠."

"그자가 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주 겁에 질려 있더군, 왓슨."

우리가 계속 걸어가던 중 홈즈가 말했다.

"그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고용주를 배신할 위인이야. 스펜서 존 일당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지. 스티브도 그 무리 중 하나였고 말이야. 자, 왓슨. 이 사건은 랭데일 파이크에게 맡겨야 할 문제야. 지금 바로 그를 만나러 가려 하네. 돌아오면 사건의 실체가 좀 더 명확해질지도 모르겠군."

그날 낮 동안 홈즈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사회적 스캔들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랭데일 파이크는 홈즈의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묘하고 나른한 인물은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세인트 제임스 스트리트에 있는 어느 클럽의 돌출형 창가에서 보냈다. 그는 런던의 온갖 가십이 모여드는 수신처이자, 동시에 이를 퍼뜨리는 발신지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호기심 많은 대중을 겨냥한 저질 신문들에 매주 가십 기사를 기고하여 네 자릿수 수입을 올린다고 했다. 만약 런던 사회라는 탁한 심연 속에서 기묘한 소용돌이나 물결이 일어난다면, 이 인간 나침반은 수면 위에서 그 움직임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포착해 냈다. 홈즈는 신중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랭데일의 지식을 채워주었고, 때로는 그에게서 정보를 얻기도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친구의 방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의 태도를 보고 모든 일이 잘 풀렸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매우 불쾌한 뜻밖의 소식이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전보의 형태였다.

"즉시 나와 주십시오. 밤사이 의뢰인의 저택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수트로."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다. "사건이 위기에 몰렸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야. 왓슨, 이 일의 배후에는 엄청난 추진력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놀랍지도 않네. 물론 이 수

트로라는 자는 그녀의 변호사겠지. 자네에게 밤새 경계를 서 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건 내 실수였던 것 같군. 이 친구는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자,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네. 다시 해로 윌드로 떠나는 수밖에."

'세 개의 박공지붕' 저택은 전날 보았던 질서 정연한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정원 문 앞에는 한가로이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고, 경관 두 명은 창문과 제라늄 화단을 살피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한 백발의 노신사를 만났는데, 그 곁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분주히 움직이는 경위 한 명이 있었다. 그 경위는 홈즈를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했다.

"글쎄요, 홈즈 씨. 이번 사건은 당신이 나설 자리가 없을 것 같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저 흔하디흔한 절도 사건일 뿐이라, 가련한 경찰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전문가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믿음직한 사람의 손에 맡겨졌으니 걱정 마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그저 흔한 절도 사건일 뿐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놈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니 스톡데일 일당입니다. 그중에 덩치 큰 흑인 놈도 포함되어 있죠. 최근 이 근처에서 그놈들이 목격되었습니다."

"훌륭하군!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져갔나?"

“글쎄요, 별로 얻은 게 없는 모양입니다. 메이버리 부인은 클로로포름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집안은…… 아! 마침 부인께서 오시는군요.”

어제 만났던 우리 친구는 안색이 무척 창백하고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린 하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홈즈 씨, 당신은 제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아,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군요! 수트로 씨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탓에, 결국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홈즈 씨는 집에 지인이라도 한 명 두라고 조언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무시했고,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았습니다."

“안색이 아주 안 좋군요.” 홈즈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조차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경위가 두툼한 수첩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도, 그 부인께서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만 아니라면……"

"정말이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사악한 수잔이 그들을 위해 미리 길을 만들어 두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집 안 구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겁니다. 입에 클로로포름 적신 천이 들

이밀어지던 순간을 아주 잠깐 의식하긴 했지만,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남자는 제 침대 곁에 서 있었고, 다른 남자는 제 아들의 짐가방 사이에서 꾸러미 하나를 손에 든 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반쯤 열린 채 내용물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그자가 도망치기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나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큰 위험을 무릅쓰셨군요." 경위가 말했다.

"그를 붙잡으려 매달렸지만 그는 나를 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놈이 저를 때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거든요. 하녀인 메리가 소란을 듣고는 창밖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경찰이 달려왔지만, 그 악당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글쎄요, 없어진 물건 중에 가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의 트렁크 안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자들이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단 말인가?"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붙잡았던 그 사내의 몸에서 찢겨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에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 아들의 필체입니다."

"그렇다면 별로 쓸모가 없다는 뜻이군요." 경위가 말했다. "만약 그게 도둑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정확해." 홈즈가 말했다. "참으로 투박할 정도의 상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군."

경위는 수첩에서 접힌 풀스캡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약간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홈즈 씨,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지난 25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지요. 지문이나 그와 비슷한 흔적이 남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요."

홈즈는 종이 한 장을 면밀히 살폈다.

"경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어떤 기묘한 소설의 결말쯤 되는 것 같군."

"기묘한 이야기의 결말이 될지도 모르겠군." 홈즈가 말했다. "페이지 상단에 적힌 숫자를 보게. 245라고 되어 있지. 그렇다면 나머지 244페이지는 다 어디로 간 건가?"

"글쎄요, 도둑놈들이 가져갔겠지요. 가져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런 서류를 훔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다는 건 좀 이상한 일 같군요. 경위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악당들이 서두르느라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일단 움켜쥐고 도망친 모양입니다. 그들이 가져간 물건이 부디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제 아들의 물건을 뒤져야 하는 거죠?" 메이버리 부인이 물었다.

"글쎄요, 아래층에서 값나가는 걸 하나도 못 찾으니까 위층으로 눈을 돌린 모양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홈즈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군, 경위님. 왓슨, 이쪽 창가로 오게."

그는 나를 불러 창가로 향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 종이 조각을 함께 읽어 내려갔다. 문장은 중간부터 끊겨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베인 상처와 타격으로 인해 얼굴에서는 피가 꽤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가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아름다운 얼굴이, 자신의 비참함과 굴욕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낀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맹세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냉혈한 악마처럼 말이다. 바로 그 순간, 사랑은 죽고 증오가 태어났다.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만 한다. 부인, 만약 당신의 품에 안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반드시 당신을 파멸시키고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살 것이다."

“문법이 참 묘하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경위에게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라고 지칭하던 인물이 갑자기 ‘나’로 바뀌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글쓴이가 자기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착각해 버린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증거물 같군요." 경위가 수첩에 그것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아니, 홈즈 씨, 벌써 가시려는 겁니까?"

“사건이 이렇게 유능한 분들의 손에 맡겨졌으니, 이제 제가 더 할 일은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메이버리 부인, 아까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언제나 저의 꿈이었습니다, 홈즈 씨."

“어디로 가고 싶나? 카이로, 마데이라, 아니면 리비에라?”

"아, 돈만 있다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텐데요!"

“그렇고말고요. 전 세계를 다 돌 겁니다. 자, 그럼 좋은 아침 보내시길. 저녁에 편지 한 통 넣지요.” 우리가 창가를 지나갈 때, 경위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이 똑똑한 친구들은 늘 약간의 광기를 품고 있다니까.” 경위의 미소에는 분명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 왓슨. 이제 우리의 짧은 여정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네."

다시 런던 중심가의 소란스러운 거리로 돌아왔을 때, 홈즈가 말했다.

"이 일을 당장 매듭짓는 게 좋겠어. 자네도 나와 함께 가는 게 좋겠네. 이사도라 클라인 같은 여인을 상대할 때는 목격자가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하니까 말이야."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로브너 광장의 어느 주소를 향해 속력을 내며 달리고 있었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나저나 왓슨, 자네는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나?"

“아니요, 딱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군요. 그저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배후의 여성을 만나러 가는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사도라 클라인이라는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말할 것도 없이 명성이 자자한 미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미모를 따라갈 수 없었죠. 그녀는 순수 스페인 혈통으로, 정복자들의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페르남부쿠에서 대대로 지도자 역할을 해온 집안이지요. 그녀는 나이 많은 독일인 설탕 왕 클라인과 결혼했고,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부유한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즐기며 모험적인 생활을 보냈습니다. 연인도 여러 명 있었는데, 런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남성 중 한 명인 더글러스 메이버리도 그중 하나였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와는 단순한 유희 이상의 관계였다고 합

니다. 메이버리는 사교계의 가벼운 바람둥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강인하고 자존심 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설 속에 나오는 '자비 없는 미녀'와 같습니다. 변덕이 채워지면 상황은 끝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하려 든다면, 그녀는 그가 뼈저리게 깨닫도록 만드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가 직접 한 이야기라는 말씀이군요……."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이군요. 듣자하니 그 여인이 로몬드 공작과 결혼할 예정이라더군요. 그 젊은 공작은 그녀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작의 어머니라면 나이 차이 정도는 눈감아줄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스캔들이 터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 드디어 찾았군요."

그곳은 웨스트 엔드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저택 중 하나였다. 기계처럼 절도 있게 움직이는 하인이 우리의 명함을 받아 들더니, 부인이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그럼 부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겠군." 홈즈가 유쾌하게 말했다.

기계가 고장 났다.

"부재중이라는 말은 손님께 부재중이라는 뜻입니다." 하인이 말했다.

"좋군요." 홈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겠군요. 이 쪽지를 당신의 주인 아주머니께 전해주십시오."

그는 수첩 한 장을 꺼내 서너 단어를 휘갈겨 적더니, 그것을 접어 남자에게 건넸다.

"방금 뭐라고 했나, 홈즈?" 내가 물었다.

"그저 '그럼 경찰을 부를까요?'라고만 적었네. 이 정도면 충분히 통할 걸세."

그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 같은 거실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은 광활하고도 경이로운 공간이었으며, 간간이 비치는 분홍빛 전등만이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공간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여인은 아무리 자부심 강한 미인이라 할지라도 이토록 은은한 조명을 더 반기게 되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도달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키가 크고 여왕 같은 기품이 흐르는 완벽한 체형이었으며, 가면처럼 아름다운 얼굴에는 우리 두 사람을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강렬한 스페인풍의 눈동자가 박혀 있었다.

"이 무례한 침입과 모욕적인 메시지는 대체 무엇인가요?" 그녀가 종이 조각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부인. 부인의 총명함을 존중하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최근 들어 그 총명함이 놀라울 정도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선생님?"

"고용한 불한당들을 보내 나를 겁주어 일을 그만두게 하려 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위험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직업을 택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젊은 메이버리의 사건을 조사하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었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용된 불량배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홈즈는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렇군요, 제가 당신의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멈춰요!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스코틀랜드 야드로."

우리가 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녀가 우리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철처럼 차갑던 그녀의 태도가 순식간에 벨벳처럼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다.

"자, 이리 와서 앉으시지요, 신사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홈즈 씨, 당신에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군요. 당신은 신사다운 마음가짐을 지니셨으니까요. 여자의 직감이란 참으로 놀라워서, 그런 면을 금방 알아차리곤 하죠. 나는 당신을 친구로 대하겠습니다."

"부인, 제가 보답할 수 있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법 집행관은 아니지만, 제 미천한 능력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우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드리죠."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위협하다니, 분명 제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부인,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협박하거나 정체를 폭로할 수도 있는 악당 무리에게 스스로를 내맡기신 셈이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약속했으니 말하자면, 바니 스톡데일과 그의 아내 수잔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고용주가 누구인지 조금도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들에 대해서라면, 글쎄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녀는 매력적이고도 교태 섞인 친근함을 담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시험해 보셨군요."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훌륭한 사냥개들이다."

"그런 사냥개들은 조만간 자신을 먹여 살려준 손을 물어뜯기 마련이지. 이번 절도 사건으로 그들은 체포될 거야. 경찰이 이미 그들을 뒤쫓고 있거든."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일에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까지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말이지."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당신은 신사 아닙니까. 이건 여자의 비밀입니다.”

"우선, 이 원고부터 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벽난로 안에는 하얗게 타버린 재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녀는 부지깽이를 가져와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 "이걸 다시 돌려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 앞에 서서 도전적인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어찌나 장난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지, 홈즈가 상대해 온 그 어떤 범죄자보다도 그녀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하지만 홈즈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으로 당신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부인, 행동력은 아주 빠르시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나치셨습니다."

그녀는 부지깽이를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내던졌다.

"어쩜 이리도 냉정하신가요!" 그녀가 외쳤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홈즈 씨,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평생을 바쳐온 야망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여자의 심정을 이해해달란 말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여자를, 그게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요?”

"원죄는 당신의 것이었소."

“그래요, 그래요! 인정하죠. 더글러스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내 계획에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결혼을 원했습니다. 홈즈 씨, 결혼 말입니다. 그것도 한 푼도 없는 평민과 결혼하라는 거였죠. 그 아이는 그 정도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끈질기게 굴더군요. 내가 예전에 도움을 주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오직 자신에게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그 아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창문 바로 밑에서 불량배들을 고용해 그를 때리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정말이지 당신은 모르는 게 없군요. 뭐, 사실이긴 합니다. 바니와 그 일행이 그를 쫓아낸 건 맞고,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칠게 행동했다는 점은 인정하죠. 하지만 그가 그 후에 한 짓을 보십시오! 신사라는 사람

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자기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당연히 저는 늑대로, 그는 어린 양으로 묘사했지요. 물론 모든 것이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 사람 중에 그 내용을 알아채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홈즈 씨,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네."

마치 이탈리아의 공기가 그의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 그 옛날 이탈리아인 특유의 잔인한 기질을 불러일으킨 것만 같았다. 그는 내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저서 한 권을 함께 보냈다. 기다림의 고통을 맛보게 하려는 심산이었으리라. 그는 책이 두 권 있다고 말했다. 한 권은 내 몫이고, 나머지 한 권은 출판사로 보낼 것이라고 말이다.

"출판사로 갈 책이 아직 출판사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의 출판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쓴 소설은 그 작품 하나뿐만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가 이탈리아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글러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지요. 세상에 그 다른 원고가 남아 있는 한, 제 신변은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원고는 유품 속에 섞여 있을 테고, 유품은 결국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하들을 움직였습니다. 그중 한 명을 하인으로 위장시켜 집에 잠입시켰지요.

저는 이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진심으로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원하는 가격이라면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 뿐입니다.

홈즈 씨, 제가 더글러스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였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미래가 걸린 상황에서, 제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셜록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이런." 그가 말했다. "평소처럼 범죄를 은닉해 주는 대가로 합의를 봐야 할 모양이군. 일등석으로 세계 일주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여인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곳을 응시했다.

"5,000파운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렇고말고요!"

"좋습니다. 그 비용은 수표로 끊어 주시지요. 제가 직접 메이버리 부인께 전달하겠습니다. 부인께는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니 말입니다. 그동안, 부인——" 그는 경고하듯 검지를 흔들어 보였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날카로운 도구를 계속 그렇게 다루다가는, 그 고운 손을 다치고 말 테니까요."

서식스의 흡혈귀

서식스의 흡혈귀

홈즈는 마지막 우편물로 도착한 쪽지를 주의 깊게 읽었다. 그러더니 웃음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 특유의 건조한 헛웃음을 흘리며 내 쪽으로 쪽지를 툭 던졌다.

"현대적인 것과 중세적인 것, 실용적인 것과 터무니없이 공상적인 것이 뒤섞여 있군. 이보다 더한 조합은 없을 걸세." 그가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왓슨?"

나는 다음과 같이 읽었다.

올드 주리 46번지, 11월 19일.

흡혈귀에 관하여

친애하는 선생님께—

민싱 레인의 차 중개업체, 퍼거슨 앤 뮤어헤드의 로버트 퍼거슨 씨가 오늘 날짜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흡혈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기계 감정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에, 이 문제는 우리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거슨 씨에게 당신을 찾아가 이 문제를 직접 설명하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마틸다 브릭스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신의를 다하는, 모리슨, 모리슨, 그리고 도드 드림. E. J. C. 대리.

"왓슨, 마틸다 브릭스는 젊은 여인의 이름이 아니네." 홈즈가 회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수마트라의 거대 쥐와 연관된 배의 이름이지. 세상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흡혈귀에 대해 아는 게 대체 뭐가 있나? 그게 우리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일인가?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정말이지 우리는 그림 동화 속에 던져진 기분이군. 왓슨, 팔을 좀 뻗어서 'V' 항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좀 봐 주게."

나는 몸을 뒤로 기대며 그가 말한 커다란 색인용 장부를 꺼냈다. 홈즈는 그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눈길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정보와 과거 사건들의 기록이 뒤섞인 그 책장을 천천히,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훑어 내려갔다.

"'글로리아 스콧호의 항해'라." 홈즈가 읽어 내려갔다.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었지. 왓슨, 자네가 이 사건을 기록했던 기억이 나네. 그때

내가 자네의 성과를 축하해주지 못해 아쉬웠는데 말이야. 위조범 빅터 린치. 독도마뱀 혹은 길라몬스터.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 서커스의 꽃 비토리아. 밴더빌트와 옐그맨. 바이퍼스. 해머스미스의 경이로운 인물 비거. 오! 오호라! 정말 훌륭한 색인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군. 이것 좀 보게, 왓슨. '헝가리의 흡혈 행위'. 그리고 여기 '트란실바니아의 흡혈귀들'까지." 홈즈는 열정적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잠시 집중해서 훑어보더니, 실망스러운 듯 으르렁거리며 그 커다란 책을 내던졌다.

"헛소리 말게, 왓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만 무덤 속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걸어 다니는 시체라니, 우리가 그런 것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건 순전히 미친 짓이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내가 말했다. "그 흡혈귀가 반드시 죽은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습성을 가질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노인들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젊은이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왓슨. 이 참고 문헌 중 하나에 그 전설이 언급되어 있군.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우리 탐정 사무소는 철저히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하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하지. 세상은 우리가 다루기에 충분히 넓네. 유령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단 말일세. 로버트 퍼거슨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군. 아마 이 쪽지가 그가 보낸 것일 수도 있겠어.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쪽지가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지."

그는 첫 번째 편지에 몰두해 있는 동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두 번째 편지를 집어 들었다. 그는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으나, 그 미소는 이내 강한 흥미와 집중력이 서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읽기를 마친 그는 손가락에 편지를 매단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깜짝 놀라며 상념에서 깨어났다.

"치즈먼스, 램벌리라. 왓슨, 램벌리가 어디 있지?"

"서식스예요. 호스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다는 거지? 그럼 치즈먼스는?"

“그곳 지리는 잘 알고 있네, 홈즈. 수 세기 전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오래된 저택들이 즐비한 곳이지. 올리 저택이나 하비 저택, 캐리턴 저택 같은 곳들 말이야. 사람들은 이미 잊혔을지 몰라도, 그들의 이름은 저택에 남아 살아 숨 쉬고 있다네.”

"정확합니다."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그의 성격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리에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해 두면서도, 정작 정보를 준 사람에게는 좀처럼 고맙다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을 다 해결할 때쯤이면 램벌리의 치즈먼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 같군요. 편지는 내 예상대로 로버트 퍼거슨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 참. 그가 당신과 아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나하고 아는 사이라고!"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 봉투 상단에는 방금 언급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홈즈 씨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연락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대리하고 있는 한 지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신사는 약 5년 전 페루 상인의 딸인 페루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질산염 수입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부인은 매우 아름다웠으나, 외국 태생이라는 점과 이질적인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늘 이해관계와 감정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사랑은 식었을지도 모르며, 이 결혼을 실수라고 여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내의 성격 중 결코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운 아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헌신적이었기에 이 사실은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만났을 때 더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쪽지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당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그 여인은 평소의 상냥하고 온화한 성품과는 전혀 딴판인, 아주 기이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사는 두 번 결혼했으며,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열다섯 살인데, 매우 매력적이고 다정한 청년입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 사고로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불쌍한 아이를 공격하는 모습이 두 번이나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인이 아이를 지팡이로 때려 팔에 커다란 줄 모양의 멍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신의 친자식에게 저지른 행동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아이는 이제 겨우 돌을 앞둔 사랑스러운 사내아이였다. 약 한 달 전, 유모가 아이를 잠시 혼자 두었을 때의 일이다. 아이가 고통스러운 듯 크게 울부짖는 소리에 유모는 급히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곳에서 유모는 고용주인 그 여인이 아이 위로 몸을 굽힌 채, 아이의 목을 깨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다. 아이의 목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 틈으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모는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여인은 간곡히 만류하며 입을 다물어 주는 대가로 5파운드를 건넸다.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일단은 그대로 넘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그 일은 유모의 마음속에 끔찍한 잔상을 남겼다. 그날 이후 유모는 주인 부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고, 자신이 지극히 아끼는 아기 또한 더욱 철저히 보호했다. 유모가 부인을 감시하는 만큼, 부인 역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유모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혼자 두어야 할 때마다, 부인은 마치 아기에게 손을 쓰려는 듯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유모는 밤낮으로 아기를 보살폈지만, 침묵 속에서 눈을 빛내는 부인은 마치 늑대가 어린 양을 기다

리듯 밤낮으로 기회를 노리는 듯했다. 여러분께는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부디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의 생명과 한 남자의 정신 건강이 이 일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남편이 더는 사실을 모른 척할 수 없는 끔찍한 날이 찾아왔다. 유모는 결국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더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황당하게 느껴지듯, 남편에게도 그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는 아내가 사랑이 넘치는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붓아들을 공격한 사건을 제외하면 아내는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그런데 왜 아내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에게 상처를 입힌단 말인가? 남편은 유모에게 아내가 꿈을 꾸는 것이라고, 그 의심은 미친 사람이나 할 법한 생각이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주인에 대한 그런 모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왔다. 유모와 주인은 함께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홈즈 씨, 그가 느꼈을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내가 요람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의 드러난 목과 시트가 피로 물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빛 쪽으로 돌렸고, 아내의 입술 주변이 온통 피로 얼룩진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불쌍한 아기의 피를 마신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반쯤 미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저와 그 사람 모두 '흡혈귀'라는 이름 외에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먼 이국땅에서 떠도는 괴담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곳, 영국 서식스의 심장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한 남자를 돕기 위해 당신의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램벌리의 치즈맨스(Cheeseman's) 저택에 있는 퍼거슨 앞으로 전보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열 시까지 당신의 숙소로 찾아가겠습니다.

로버트 퍼거슨 올림.

추신. 내가 리치먼드 팀의 쓰리쿼터로 뛸 당시, 자네 친구인 왓슨이 블랙히스 팀에서 럭비 선수로 활약했던 것으로 기억하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개인적인 소개는 이것뿐이군.

"물론 기억하고말고요." 편지를 내려놓으며 내가 말했다. "빅 밥 퍼거슨 말이죠. 리치먼드 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쓰리쿼터였으니까요. 성격도 참 좋았던 친구였고요. 친구의 사건을 이토록 걱정하는 것도 그 사람답네요."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자네의 한계가 어디인지 도무지 모르겠군,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네에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그러니 이보게, 어서 전보나 치게나. '기꺼이 사건을 맡겠다'라고 말이야."

"당신의 사건 말입니다!"

"그가 우리 탐정 사무소를 정신이 허약한 자들이나 모여드는 곳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네. 물론 이건 엄연히 그의 사건이지. 일단 전보를 보내게나.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는 이 일을 일단락 짓고 쉬도록 하지."

다음 날 아침 10시 정각이 되자, 퍼거슨이 성큼성큼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기억하는 그는 키가 크고 옆구리가 납작하며, 팔다리가 길쭉길쭉해 달리기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내였다. 그 빠른 속도 덕분에 그는 경기장에서 수많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곤 했다. 전성기를 누리던 훌륭한 운동선수가 몰락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의 건장했던 체구는 움푹 꺼져 있었고, 금발 머리는 눈에 띄게 숱이 적었으며,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나 역시 그와 비슷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을까 봐 두려워졌다.

"여어, 왓슨."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활기찼다.

"올드 디어 파크에서 내가 자네를 밧줄 너머 군중 속으로 던져버렸을 때와 비교하면, 자네 모습이 예전 같지 않군. 나 역시 조금 변했을

테지만 말이야. 하지만 나를 이렇게 늙게 만든 건 바로 지난 이틀간의 일이라네. 홈즈 씨, 보내주신 전보를 보니 내가 누군가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겠더군."

"직접 상대하는 게 더 간단하겠군." 홈즈가 말했다.

"물론 그렇고말고요. 하지만 당신도 짐작하시겠지만, 자신이 반드시 지켜주고 도와야만 하는 여인에 관한 일이라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경찰에 가져가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해야만 합니다. 홈즈 씨, 이것이 미친 짓입니까? 아니면 혈통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경험하신 사례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정말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퍼거슨 씨. 자, 여기 앉아서 마음부터 가라앉히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묻는 말에 차근차근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 역시 전혀 당황하지 않았으니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인께서는 여전히 아이들 곁에 계십니까?"

"끔찍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홈즈 씨, 그녀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여인입니다. 만약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바로 제 아내일 겁니다. 제가 이 끔찍하고도 믿기 힘든 비밀을 알아내 버리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비난 섞인 말을 쏟아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광기와 절망이 서린 채 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러더니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저를 만나주려 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함께 지내온 돌로레스라는 하녀가 하나 있는데, 하녀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내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유모인 메이슨 부인은 밤낮으로 아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걱정되는 건 불쌍한 어린 잭입니다. 지난번 편지에도 적었듯이, 아이가 그 여자에게 벌써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상처를 입은 적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런 해를 끼칠 줄 모르는 가련하고 작은 장애아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끔찍한 일이지요.” 퍼거슨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척한 얼굴을 부드럽게 풀었다. “그 착한 아이의 상태를 본다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척추가 휘었지만, 홈즈 씨,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홈즈는 어제 받은 편지를 집어 들고 다시 읽어 내려갔다. "퍼거슨 씨, 댁에는 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하인이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자는 마이클이라는 마부가 한 명 있고요. 그 밖에 제 아내와 저, 아들 잭, 아기, 돌로레스, 그리고 메이슨 부인까지. 그게 전부입니다."

"결혼하실 당시에는 아내분을 잘 모르셨던 모양이군요?"

"그녀를 안 지는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녀 돌로레스는 그녀의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돌로레스가 그 성품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홈즈는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제 생각에는,” 홈즈가 말했다. “여기 있는 것보다 램벌리에 가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직접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그 부인이 방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간다고 해서 딱히 불쾌해하거나 불편해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물론 숙소는 근처 여관에 잡을 생각입니다.”

퍼거슨은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제 바람대로군요, 홈즈 씨. 빅토리아 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는 아주 좋은 열차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지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은 한가한 편이니까요. 온전히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겠군요. 왓슨 박사도 당연히 동행할 겁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불행한 여인이 아이들을 공격하려 했다는 거죠? 본인의 아기는 물론이고, 당신의 어린 아들까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격의 형태는 제각각 아닌가요? 그녀가 당신의 아들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지팡이로, 또 한 번은 아주 사납게 맨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녀가 왜 그를 때렸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저 그 여자가 그를 증오한다는 것뿐입니다. 여자는 몇 번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계모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후에 찾아온 질투라고나 할까요. 그 부인이 본래 질투심이 많은 편입니까?"

"네, 그 여자는 질투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 뜨거운 열대 지방의 사랑만큼이나 강렬하게 질투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열다섯 살이라고 들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제약이 많았겠지만, 정신은 아마 매우 성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공격을 받은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던가요?”

"아니오, 그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 친구였습니까?"

"아니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가 다정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세상에 이토록 효심 깊은 아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삶은 곧 그의 삶입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해 따릅니다."

홈즈는 다시 한번 메모를 남겼다. 그러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 아이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겠군요. 두 분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고말고요."

"그 아이는 워낙 다정한 성격이라, 틀림없이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하며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겠군요?"

"가장 충성스럽게."

“그 친구는 분명 아주 흥미로운 청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습격 사건들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아기에게 가해진 그 기이한 공격과 당신 아들이 당한 습격이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그랬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광기에 사로잡힌 여인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 같았지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건 잭뿐이었습니다. 메이슨 부인은 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거 참 일이 복잡해지겠군요."

"홈즈 씨,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임시적인 가설을 세워두고, 시간이 흐르거나 더 확실한 정보가 드러나 그 가설이 깨지기를 기다리곤 하니까요. 퍼거슨 씨, 이건 나쁜 습관입니다만 인간의 본성이 그리 강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오랜 친구가 제 과학적 방법론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문제는 결코 해결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시에 빅토리아 역에서 저희를 만나기로 하시지요."

흐릿한 안개가 자욱한 11월의 어느 지루한 저녁이었다. 우리는 람벌리 소재의 '체커스' 여관에 짐을 풀고,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서식스의

진흙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퍼거슨이 살고 있는 외딴 고택이었다. 그 농가는 건물 규모가 크고 여기저기 덧붙여진 듯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중심부는 매우 오래되었으나 양 날개 부분은 아주 새로 지은 형태였으며, 높게 솟은 튜더 양식의 굴뚝과 이끼가 낀 가파른 호샴 슬레이트 지붕이 눈에 띄었다. 문턱은 오랜 세월에 깎여 둥글게 변해 있었고, 현관을 장식한 오래된 타일에는 이 집을 지은 건축가의 이름을 본뜬 치즈와 사람 모양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내부로 들어서니 천장에는 육중한 참나무 들보가 가로질러 있었고, 울퉁불퉁한 바닥은 날카로운 곡선을 그리며 움푹 패어 있었다. 무너져 가는 건물 전체에는 세월의 흔적과 부패한 냄새가 가득했다.

퍼거슨은 우리를 아주 넓은 중앙 거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1670년식 철제 가림막이 달린 거대하고 고풍스러운 벽난로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장작불이 화려하게 타오르며 탁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그곳은 여러 시대와 장소가 기묘하게 뒤섞인 공간이었다. 벽면의 절반을 채운 판벽은 17세기 자영농의 집이었을 법한 고풍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벽 하단에는 엄선된 현대식 수채화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참나무 판벽 대신 노란 회반죽이 발린 윗부분에는 남미의 도구와 무기들이 정교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분명 위층에 머무는 페루 여인이 가져온 물건들일 터였다. 홈즈는 명석한 두뇌 특유의 날카로운 호기심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세심한 태도로 그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잠시 후,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한 채 그가 돌아왔다.

"이봐요!" 그가 외쳤다. "이봐요!"

구석에 놓인 바구니 안에는 스패니얼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개는 주인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지만, 걸음걸이는 매우 힘겨워 보였다. 뒷다리는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꼬리는 바닥에 끌리고 있었다. 개는 퍼거슨의 손을 핥았다.

"무슨 일입니까, 홈즈 씨?"

"개 말입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거죠?"

“그 점이 수의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네. 일종의 마비 증세였지. 수의사는 척수수막염이라고 생각했네만, 다행히 지나가는 중이야. 곧 괜찮아질 걸세. 그렇지, 카를로?”

축 처진 꼬리가 동의하듯 파르르 떨렸다. 개의 슬픈 눈망울이 우리 중 한 명에게서 다른 한 명에게로 옮겨갔다. 녀석은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시작된 일입니까?"

"단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얼마나 전의 일입니까?"

"네 달 전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놀랍군.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아."

"여기서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홈즈 씨?"

"이미 짐작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는군요."

“제발 부탁입니다, 홈즈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는 그저 머리싸움 같은 수수께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내가 살인 미수범이라니요, 제 아이는 끊임없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홈즈 씨, 저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덩치 큰 럭비 삼분수(three-quarter) 선수는 온몸을 사정없이 떨고 있었다. 홈즈는 그를 달래듯 그의 팔 위에 손을 얹었다.

“퍼거슨 씨, 해결책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고통이 따를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 그가 말했다. “할 수 있는 한 당신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 집을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부디 그래 주십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신사 여러분, 저는 아내의 방에 올라가 상태가 좀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그사이 홈즈는 벽에 걸린 진기한 골동품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주인장이 돌아왔을 때, 그의 침울한 표정만 보아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하며 갈색빛 피부를 가진 한 소녀를 데리고 나타났다.

"차를 준비했네, 돌로레스." 퍼거슨이 말했다. "네 주인님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갖추도록 신경 쓰게나."

"주인님, 아주 많이 아파요!" 소녀가 주인님을 향해 분개 섞인 눈빛을 던지며 외쳤다. "음식도 안 드셔요.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도 없이 혼자 계시게 두려워요."

퍼거슨은 의아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댁의 여주인께서 왓슨 박사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를 데려가겠습니다. 허락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격한 감정에 몸을 떨고 있는 그 소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 오래된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 끝에는 철제 장식이 박힌 육중한 문이 있었다. 그 문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만약 퍼거슨이 아내에게 가기 위해 억지로 문을 부수려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고 생각했다. 소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자, 무거운 참나무 문이 낡은 경첩을 따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소녀도 재빨리 뒤따라 들어오며 문을 잠갔다.

침대 위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누가 보아도 고열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으나,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아름다운 눈을 들어 나를 불안하게 노려보았다. 그러다 낯선 이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했는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베개 위로 다시 몸을 뉘었다. 나는 안심시키려는 말을 건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맥박과 체온을 재는 동안 그녀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맥박과 체온 모두 높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녀의 상태는 신체적인 발작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신경적 흥분 상태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 여자, 하루 이틀 저러고 누워만 있어요. 이러다 죽을까 봐 겁나요." 소녀가 말했다.

여인은 상기된 아름다운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제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그분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반복해서 외치더니, 이내 정신이 나간 듯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악마예요! 악마라고요! 오, 이 악마 같은 자를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단 말입니다."

그 여자는 분명 무언가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힌 게 틀림없다. 정직한 밥 퍼거슨에게서 악마나 괴물의 모습을 찾아낼 수는 없었으니까.

"부인," 내가 말했다. "남편분께서는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번 일로 무척 상심하고 계시고요."

그녀는 다시금 그 눈부신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저를 사랑해요. 맞아요. 하지만 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의 소중한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희생하고 말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저를 어떻게 생각한 걸까요.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도무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제안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 끔찍한 말들과 그의 얼굴에 서린 표정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에게 딱 한 가지

만 전해주세요.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요. 내 아이를 만날 권리가 내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래층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퍼거슨과 홈즈가 여전히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퍼거슨은 내가 면담 내용을 들려주는 동안 침울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여자에게 보낸단 말입니까?" 그가 말했다. "그 여자에게 어떤 기괴한 충동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입가에 피를 묻힌 채 그 아이 곁에서 일어났던 그 여자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아이는 메이슨 부인과 함께 있으니 안전합니다. 아이는 반드시 그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본 유일하게 현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리한 하녀가 차를 내왔다. 하녀가 차를 따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한 청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눈에 띄는 소년이었다. 창백한 얼굴에 금발을 가진 그는,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감정과 기쁨으로 눈을 번뜩이는 예민하고 맑은 푸른 눈을 지니고 있었다. 청년은 앞으로 달려가더니,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격정적으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다.

"아빠!" 그가 외쳤다. "아빠가 벌써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마중을 나갔어야 했는데. 아, 정말 만나서 너무 기뻐요!"

퍼거슨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포옹을 풀었다.

"이보게, 친구." 그는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금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일찍 온 건 내 친구들인 홈즈 씨와 왓슨 박사가 우리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러 내려오기로 했기 때문이라네."

"저분이 탐정인 홈즈 씨인가요?"

"네."

그 청년은 아주 날카롭고, 내 눈에는 다소 적대적으로까지 보이는 시선으로 우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퍼거슨 씨,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 아기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메이슨 부인에게 아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전하게." 퍼거슨이 말했다. 소년은 기묘하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물러갔다. 의사로서의 내 눈에는 소년의 척추가 약하다는 사실이 단번에 읽혔다. 잠시 후 소년이 돌아왔고, 그 뒤를 키가 크고 수척한 여인이 따랐다. 여인의 품에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가 안겨 있었다. 검은 눈동자에 금발을 가진 그 아이는 색슨족과 라틴족의 특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퍼거슨은 아이를 무척 아끼는 듯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주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누가 감히 그를 해칠 마음을 먹겠나." 그는 천사의 목에 남은 작고 붉게 부어오른 상처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우연히 홈즈를 곁눈질했다가 그의 표정이 무척이나 기이할 정도로 진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상아를 깎아 만든 것처럼 굳어 있었다. 아버지와 아이를 잠시 훑어보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방 건너편의 무언가를 향해 열렬한 호기심을 띠며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지만,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창밖으로 비에 젖어 쓸쓸한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밖에는 덧문이 반쯤 닫혀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나, 홈즈가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곳은 분명 창가였다. 그러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아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기의 통통한 목에는 작고 주름진 자국이 있었다. 홈즈는 아무 말 없이 그 자국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고는 마침내 아기가 눈앞에서 흔들어대는 보드라운 주먹 하나를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잘 가게, 작은 친구. 인생의 시작이 참으로 기구하군. 유모,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하네.”

그는 여자를 따로 불러내어 몇 분 동안 간곡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대화의 마지막 말만을 들을 수 있었다. "조만간 걱정거리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었다. 퉁명스럽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인상의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메이슨 부인은 어떤 분인가?" 홈즈가 물었다.

"보시다시피 겉모습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지만, 마음씨만큼은 금처럼 고우며 아이에게 헌신적인 분이라네."

“잭, 그 애를 좋아하니?”

홈즈가 갑자기 소년을 향해 몸을 돌리며 물었다. 표정이 풍부하고 변화무쌍하던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재키는 호불호가 아주 분명한 아이라네." 퍼거슨이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다행히 내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

소년은 옹알거리며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부드럽게 기댔다. 퍼거슨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떼어 놓았다.

“이제 가 보렴, 우리 꼬마 재키.”

그는 아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아이가 떠나자 그는 말을 이었다.

“홈즈 씨, 제가 정말이지 헛수고를 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위로를 건네는 것뿐일 텐데 말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일은 무척이나 섬세하고 복잡한 사건임이 분명하니까요.”

“확실히 까다로운 사건이긴 하네.” 내 친구가 즐거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복잡함에 압도당한 적은 없었어. 이 사건은 지적인 추론이 필요한 문제였지. 하지만 그 독창적인 추론이 수많은 독립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될 때, 주관적인 추측은 객관적인 사실로 변한다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사실 나는 베이커가를 나서기도 전에 이미 결론에 도달했네. 그 이후의 과정은 그저 관찰하고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이야.”

퍼거슨은 주름진 이마에 커다란 손을 얹었다.

“제발 부탁이네, 홈즈.”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의 진상을 알아냈다면 제발 사람 애간장 태우지 말게나. 내 처지가 어떤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자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실을 알아냈는지는 상관없네. 그저 그 사실이 진짜이기만을 바랄 뿐이야.”

"물론 당신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네. 하지만 이 일은 내 방식대로 처리하도록 허락해주겠나? 왓슨, 그 부인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녀는 몸이 아프긴 하지만, 정신은 아주 또렷합니다."

"좋습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요. 어서 올라갑시다."

"그녀가 저를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퍼거슨이 외쳤다.

“오, 그럼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는 종이 한 장에 몇 줄을 휘갈겨 썼다. “적어도 왓슨, 당신은 그분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쪽지를 그분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 돌로레스에게 쪽지를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듯한 외침이었다. 돌로레스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만날 거예요. 이야기도 들어주실 거고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부르자 퍼거슨과 홈즈가 올라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퍼거슨은 아내 쪽으로 한두 걸음 다가갔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아내는 그를 밀어내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퍼거슨은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듯 주저앉았고, 홈즈는 부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부인은 눈을 크게 뜬 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돌로레스는 빼놓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알겠습니다, 부인. 만약 그 아이가 여기 있는 편이 낫겠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퍼거슨 씨, 저는 만남이 잦아 꽤 바쁜 몸이라 결론부터 짧고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수술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통증이 적은 법이니까요. 우선 마음을 놓으실 수 있도록 말

씀드리죠. 당신의 부인은 매우 선량하고 자애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분입니다."

퍼거슨은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그걸 증명해 주십시오, 홈즈 씨.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당신의 다른 부분을 깊게 상처 입혀야만 합니다."

"내 아내의 결백만 밝힐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소. 세상 그 무엇도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베이커가에서 제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드리죠. 흡혈귀라니, 제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영국에서 범죄 사건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입가에 피를 묻힌 여인이 아이의 요람 곁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셨으니까요."

"그랬습니다."

"피를 뽑아내려는 목적 말고, 다른 이유로 상처를 빨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영국 역사에 상처를 빨아 독을 뽑아냈던 여왕이 있지 않았던가?"

"독이야!"

"남미의 가정집이었네. 내 눈이 직접 보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벽에 걸린 무기들의 존재를 느꼈을 정도였지. 다른 독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네. 작은 새를 잡는 활 옆에 놓인 작은 화살통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음을 확신했지. 만약 아이가 쿠라레나 다른 악마 같은 약물을 바른 화살에 찔리기라도 한다면, 그 독을 즉시 빨아내지 않는 한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 개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독을 사용한다면, 독의 효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개가 나타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개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해하고 있었고 제 재구성된 추리 과정에도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인께서는 그런 공격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셨습니다. 부인은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덕분에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고, 진실이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재키!"

"당신이 방금 아이를 어루만지는 동안 나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덧문이 배경이 된 창유리 위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더군요. 인간

의 얼굴에서 그토록 질투심 어린, 그토록 잔인한 증오를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 재키!"

"퍼거슨 씨,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뒤틀린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리고 어쩌면 죽은 어머니를 향한 광기 어린 과잉된 사랑이 그를 이렇게 몰아넣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대조되는 저 아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보며, 그 눈부신 아이를 향한 증오로 영혼마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부인?"

여인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나, 밥? 자네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뻔히 보였는데 말이야. 차라리 내가 입을 떼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소식을 듣는 편이 나았을 걸세.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한 이 신사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적어 보내셨을 때,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네."

"재키 도련님께는 1년 정도 바다를 항해하며 지내는 것이 처방전이 될 것 같군요."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부인, 아직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도련님을 엄하게 다스리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어떻게 아이를 홀로 두고 집을 비울 수 있었던 겁니까?”

"메이슨 부인에게는 이미 말해 두었네. 부인도 알고 있었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상한 것이지요."

퍼거슨은 침대 곁에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양손을 앞으로 뻗은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왓슨, 지금이 우리가 물러날 때인 것 같군.”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가 저 너무나 충직한 돌로레스의 한쪽 팔을 붙잡아 주게. 나머지 한쪽은 내가 잡겠네. 자, 됐네.” 홈즈는 뒤로 문을 닫으며 덧붙였다. “남은 일은 저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는 게 좋겠어.”

이 사건에 대해 덧붙일 기록은 이제 하나뿐이다.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던 그 편지에 대해, 홈즈가 최종적인 답변으로 써 보낸 답장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이커가, 11월 21일.

흡혈귀에 대하여.

선생님께,

19일 자 귀하의 편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민싱 레인의 차(茶) 중개업체인 퍼거슨 앤 뮤어헤드의 로버트 퍼거슨 씨가 의뢰한 조사 건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셜록 홈즈 올림.

6

세 명의 개리데브

세 개리데브의 모험

그것은 희극이었을지도, 혹은 비극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그 일로 정신을 잃었고, 나는 피를 흘려야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그 사건에는 분명 희극적인 요소가 있었다.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아주 또렷이 기억한다. 홈즈가 언젠가 설명될지도 모를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던 바로 그달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파트너이자 측근으로서 경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기에, 그 일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만 언급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덕분에 그 시기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 때는 1902년 6월 말, 남아프리카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다. 홈즈는 가끔 그러하듯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긴 복사 용지 한 장을 손에 들고 방에서 나왔다.

엄격해 보이던 그의 회색 눈동자에는 즐거움이 어린 빛이 감돌고 있었다.

"자네에게 돈을 좀 벌 기회가 생길 것 같네, 왓슨 친구." 홈즈가 말했다. "혹시 개리데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나는 그러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글쎄, 만약 자네가 개리데브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만한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세."

"어째서입니까?"

“아, 그건 이야기가 좀 깁니다. 아주 기묘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인간사의 복잡한 면면을 그토록 오랫동안 탐구해 왔지만, 이보다 더 특이한 사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곧 그자가 심문을 받으러 올 테니,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내야 할 이름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옆 탁자 위에는 전화번호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거의 희망도 없는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기묘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승리감에 젖어 나직이 탄성을 내뱉었다.

"여기 있네, 홈즈! 바로 이거야!"

홈즈가 내 손에서 책을 가져갔다.

"'개리데브, N., 리틀 라이더가 136번지, W.'라고 적혀 있군." 홈즈가 전화번호부를 읽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왓슨, 자네를 실망시켜야겠어. 이건 바로 그 사람 본인이야. 그가 보낸 편지에 적힌 주소가 바로 그것이거든.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와 짝이 맞는 또 다른 인물이야."

허드슨 부인이 쟁반에 명함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나는 명함을 집어 들어 슬쩍 훑어보았다.

"세상에, 여기 있잖아요!" 나는 깜짝 놀라 외쳤다. "이니셜이 달라요. '미국 캔자스주 무어빌, 법률 고문 존 개리데브'라고 적혀 있다고요."

홈즈는 카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왓슨, 아무래도 한 번 더 힘을 써야겠군." 그가 말했다. "이 신사 역시 이미 사건의 음모에 연루되어 있네. 오늘 아침에 그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많은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네."

잠시 후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법률 고문인 존 개리데브 씨는 키가 작지만 체격이 건장한 사내였다. 그는 수많은 미국 사업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글고 깨끗하게 면도한 생기 넘치는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전체적인 인상은 통통하고 다소 아이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덕분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꽤 젊은 청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인간의 얼굴에서 이토록 강렬한 내면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눈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의 눈은

매우 밝았고, 기민했으며, 생각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말투에는 미국식 억양이 묻어났으나, 딱히 특이한 말투는 아니었다.

"홈즈 씨입니까?"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아, 그렇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초상화가 선생님을 꼭 닮았군요. 제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네이선 개리데브 씨에게 편지를 받으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선 앉으시지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논의해야 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군요." 그는 놓여 있던 연습장 몇 장을 집어 들었다. "당신이 바로 이 문서에 언급된 존 개리데브 씨군요. 하지만 영국에 오신 지는 꽤 되셨을 텐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홈즈 씨?" 그 표정이 풍부한 눈동자에서 갑작스러운 의구심을 읽어낸 듯했다.

"당신의 옷차림 전체가 영락없는 영국식이군요."

개리데브 씨가 억지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씨, 당신의 수법에 대해서는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대체 어디서 그런 글을 읽으셨습니까?"

"코트의 어깨선이며 장화의 앞코까지, 이 모든 걸 보고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 제가 이렇게 대놓고 영국인처럼 보일 줄은 몰랐군요. 하지만 얼마 전 사업차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옷가지며 소지품

이 거의 다 런던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군요. 제 양말 모양새를 논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니까요. 자, 이제 손에 들고 계신 그 서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홈즈가 무슨 수를 썼는지 우리 방문객의 기분을 상하게 한 모양이었다. 통통하던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의 상냥한 기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세요, 개리데브 씨!" 내 친구가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왓슨 박사라면 내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고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네이선 개리데브 씨는 왜 같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대체 왜 당신까지 이 일에 끌어들인 겁니까?"

방문객이 갑자기 울컥 화를 내며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건 신사들끼리 해결해야 할 전문적인 문제였는데, 그중 한 명이 굳이 탐정을 불러들이다니요! 오늘 아침에 그를 만났는데, 그가 나를 상대로 어떤 어리석은 속임수를 썼는지 다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마음이 영 좋지 않군요."

"개리데브 씨, 결코 당신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의욕을 앞세웠을 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목적이 두 분 모두에게 매우 절실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방문객의 험악했던 얼굴이 점차 부드럽게 풀렸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 그분을 찾아뵈었을 때, 탐정을 불렀다는 말씀을 듣고는 곧장 당신의 주소를 물어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적인 일에 경찰이 끼어드는 건 원치 않거든요. 하지만 그저 그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시는 정도라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글쎄요,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으니 직접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제 친구는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개리데브 씨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가 알아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우리는 보통 함께 일합니다."

"글쎄요, 굳이 비밀로 할 이유도 없겠군요. 최대한 간결하게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캔자스 출신이었다면 알렉산더 해밀턴 개리데브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그 후에는 시카고의 곡물 시장에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돈을 쏟아부어 포트 도지 서쪽, 아칸소 강을 따라 펼쳐진 당신네 카운티 하나와 맞먹을 만큼의 땅을 사들였지요. 그곳은 목초지

이자 삼림지이며, 농경지이자 광산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땅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온갖 종류의 땅을 다 갖춘 셈이지요."

"그에게는 친척도, 가까운 혈육도 없었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점을 꽤 자랑스럽게 여기곤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바로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토피카에서 법률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신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세상에 개리데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기세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찾아내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워낙 바쁜 몸이라, 개리데브를 찾아 세상을 떠돌며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 해도,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린다면 자네는 결국 그렇게 하게 될 걸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농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듯, 그 말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남기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을 남겼거든요. 캔자스주에 접수된 유언장 중 가장 기묘한 유언장이었죠. 재산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가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개리데브 두 명을 찾아낸다는 조건하에 저에게도 한 몫이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도 각자 500만 달러는 될 테지만, 우리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전까지는 그 돈에 손을 댈 수조차 없습니다."

"워낙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 변호사 업무도 뒷전으로 미뤄둔 채 가리데브를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쥐 잡듯 샅샅이 뒤졌는데도 가리데브라는 이름은커녕 흔적조차 없더군요. 그래서 고국인 영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런던 전화번호부에 그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이틀 전에 그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저처럼 혼자 지내는 사람이라, 여자 친척들은 좀 있어도 남자 친척은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성인 남성 세 명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사례하겠습니다."

"자, 왓슨,"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좀 기발한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나? 선생님, 제 생각에 당신이라면 당연히 신문의 고난 광고란에 광고를 냈을 것 같군."

"그렇게 해봤습니다, 홈즈 씨. 하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더군요."

“세상에나! 정말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문제로군요. 시간이 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토피카에서 오셨다니 참 신기하군요. 예전에 편지를 주고받던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890년에 시장을 지냈던 라이샌더 스타 박사님입니다.”

“정말 훌륭한 스타 박사님이시군요!” 방문객이 말했다. “그분의 명성은 여전하더군요. 자, 홈즈 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알려드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내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 우리 미국인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떠났다.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한동안 묘한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래서요?" 마침내 내가 물었다.

"궁금해서 그래, 왓슨. 그저 궁금할 뿐이야!"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홈즈가 입술에서 파이프를 떼어냈다.

“왓슨, 대체 저자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속이려 드는지 도무지 모르겠군. 나도 하마터면 직접 물어볼 뻔했네.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정면 돌파하는 게 최선의 전략일 때도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저자가 우리를 완벽히 속였다고 믿게 두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네.

자, 이 남자를 보게. 팔꿈치 부분이 해진 영국식 코트를 입고, 무릎 부분이 1년은 족히 입은 듯 헐렁해진 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서류와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최근 런던에 상륙한 미국 지방 출신이라네. 신문 개인 광고란에 광고가 올라온 적도 없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난 거기서 하나라도 놓치는 법이 없지 않나. 그곳은 내가 사냥감을 몰아낼 때 가장 즐겨 찾는 은신처 같은 곳이라네. 저런 화려한 수꿩 같은 먹잇감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야.

토피카 출신의 라이샌더 스타 박사라는 인물은 들어본 적도 없네. 건드리기만 해도 거짓이 묻어나는 자야. 내 생각에 저자는 진짜 미국인이긴 한 것 같지만, 런던에서 수년간 지내며 억양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듬어 놓은 모양이야. 그렇다면 저자의 속셈은 무엇일까? 가리데브를 찾는 저 터무니없는 수색 뒤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 걸까?

이 사건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네. 설령 저자가 악당이라 할지라도, 분명 복잡하고 교묘한 인물임이 틀림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연락자가 역시 사기꾼인지 확인해 봐야겠군. 왓슨, 어서 그에게 전화를 걸게."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네이선 가리데브 씨입니다. 홈즈 씨 계십니까? 홈즈 씨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내 친구가 전화기를 건네받자, 평소처럼 주고받는 리드미컬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네, 그분은 여기 오셨었습니다. 그분을 모르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됐지요? ……겨우 이틀이라니! ……네, 네, 물론입니다. 정말 매혹적인 전망이군요. 오늘 저녁에 집에 계십니까? 성함이 같은 그분은 아마 안 계시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분 없이 차라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나을 것 같군요. ……왓슨 박사가 저와 함께 갈 겁니다. ……보내주신 쪽지를 보니 평

소 외출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더군요. ……알겠습니다, 6시쯤 방문하죠. 미국인 변호사에게는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만!”

사랑스러운 봄날 저녁, 해 질 녘의 황혼이 내려앉고 있었다. 에지웨어 로드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골목인 리틀 라이더 스트리트조차 불길한 기억을 간직한 옛 타이번 나무에서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 있었지만, 지는 해의 비스듬한 빛줄기를 받으니 황금빛으로 빛나며 경이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우리가 찾아간 집은 큼직하고 고풍스러운 초기 조지아 양식의 건물이었다. 평평한 벽돌 외벽에는 1층에 돌출된 두 개의 깊은 베이 창문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도 바로 이 1층이었다. 실제로 낮게 위치한 창문들은 그가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거대한 방의 전면부였다. 우리가 지나갈 때 홈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기묘한 이름이 새겨진 작은 황동 명판이 붙어 있었다.

"꽤 오래된 것이군, 왓슨." 홈즈가 변색된 표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쨌든 이게 그의 본명이야. 그 점은 주목할 만하군."

건물에는 공용 계단이 있었고, 현관 홀에는 사무실과 개인실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라기보다는, 자유분방한 독신자들이 모여 사는 거처에 가까웠다. 의뢰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며, 관리인이 네 시에 퇴근하는 바람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네이선 가리데브 씨는 키가 매우 크고 관절이 헐거운 데다 등이 굽은 체형이었다. 예순을 조금 넘긴 듯한 그는 수척하고 머리숱도

적었다. 운동이라곤 전혀 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생기 없고 푸석한 피부를 가진,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이었다. 커다란 원형 안경에 밖으로 툭 튀어나온 염소수염,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가 어우러져 마치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괴짜 같으면서도 상냥해 보였다.

방 안은 그 주인만큼이나 기묘했다. 마치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공간이었다. 방은 가로세로로 꽤 넓고 깊었는데, 사방에는 지질학 표본과 해부학 표본이 가득 찬 찬장과 진열장이 늘어서 있었다. 입구 양옆에는 나비와 나방을 담은 표본 상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탁자 위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사이로 강력한 현미경의 높은 황동 관이 삐죽 솟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나는 이 남자의 관심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한쪽에는 고대 동전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부싯돌 도구들이 담긴 진열장이 있었다. 중앙 탁자 뒤편에는 화석화된 뼈들을 보관하는 커다란 찬장이 놓여 있었다. 그 위쪽 벽면에는 석고로 만든 해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는데, 해골 아래에는 각각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크', '크로마뇽인'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분명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한 학자임이 분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 서서 오른손에 부드러운 사슴 가죽을 쥐고 동전 하나를 닦고 있었다.

"시라쿠사 양식입니다. 가장 전성기 시절의 작품이죠." 그는 유물을 들어 올리며 설명했다. "말기에는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알

렉산드리아 학파를 더 선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전성기의 시라쿠사 양식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홈즈 씨, 여기 의자에 앉으시지요. 우선 이 뼈들부터 좀 치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왓슨 박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일본식 도자기를 옆으로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제 소소한 취미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제 주치의는 제게 도대체 왜 밖에 나가지 않느냐며 잔소리를 늘어놓곤 합니다만, 집에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한데 굳이 나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수납장 중 하나를 제대로 분류하는 데만 꼬박 석 달은 걸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홈즈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 번도 외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가 물었다.

"가끔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장에 가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방을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체력이 그리 좋지 못한 데다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하지만 홈즈 씨, 이 전례 없는 행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는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즐거우면서도 엄청난 충격이었지요. 이 일을 완성하려면 가리데브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할 뿐인데, 분명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있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성 친척들은 자격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다른 이들이 더 있을 겁니다. 당신이 기이한 사건들을 다룬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미국 신사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원래는 그의

조언을 먼저 따랐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정말 현명하게 처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로 미국에 저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그 무엇도 제 수집품을 포기하게 만들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사분께서는 저희의 권리가 확립되는 대로 제 지분을 모두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시된 금액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제 수집품의 빈틈을 채워줄 만한 표본이 열두 점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수백 파운드가 부족해서 그것들을 사지 못하고 있지요. 500만 달러가 생긴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국가적 규모의 수집품을 구축할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한스 슬론이 될 것입니다."

커다란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네이선 가리데브 씨가 자신과 이름이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명백해 보였다.

"그저 얼굴이나 익히려고 들른 것이니, 공부하는 데 방해할 이유는 없네." 홈즈가 말했다. "나는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직접 대면하여 친분을 쌓는 편이라네. 물어볼 질문은 그리 많지 않아. 자네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둔 서술문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 이 미국 신사분이 찾아왔을 때, 그 서술문을 토대로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었네. 자네는 이번 주 전까지는 그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들었네만."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가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실을 그가 말하던가요?"

“네, 그는 곧장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무척 화가 난 상태였죠.”

"그가 왜 화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다시 아주 쾌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제안하던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돈을 가져갔거나, 혹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가 노리는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가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약속한 사실을 그에게 말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수집품 중에 아주 귀중한 물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집품이 꽤 괜찮기는 합니다만, 아주 값비싼 것들은 아닙니다."

"도둑이 들까 봐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5년이 되었군요."

홈즈의 신문이 이어지던 중, 문을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와 흐름이 끊겼다. 의뢰인이 문고리를 풀자마자, 미국인 변호사가 흥분한 기색으로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종이를 머리 위로 흔들며 외쳤다. "제시간에 맞춰 당신을 데리러 올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네이선 개리데브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부자입니다. 우리 일은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고,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홈즈 씨, 저희가 괜한 수고를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가 종이를 의뢰인에게 건넸다. 의뢰인은 무언가 표시가 된 광고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홈즈와 나는 의뢰인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 | | 하워드 개리데브 | | | | 농기계 제조 및 제작 | | | | 결속기, 수확기, 증기 및 수동 쟁기, 파종기, | | 써래, 농부용 수레, 버크보드 및 기타 모든 농기구. | | | | 아르테지안 관정 견적 문의 | | | | 애스턴, 그로브너 빌딩으로 연락 바람 | | | +---+

"장하군!" 우리의 주인이 숨을 몰아쉬며 감탄했다. "이로써 세 번째 사람이로군."

"버밍엄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이 말했다. "그곳의 대리인이 현지 신문에 실린 이 광고를 저에게 보내왔더군요. 서둘러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미 편지를 써 두었습니다. 내일 오후 네 시에 당신이 그의 사무실로 직접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를 만나보라는 게, 정녕 _저더러_ 하라는 말씀입니까?"

“홈즈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저는 그저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떠도는 미국인일 뿐입니다. 그가 왜 제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확실한 신분 보증이 되는 영국인이니, 그는 분명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원하신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만, 내일은 워낙 바쁜 날이라서요. 대신 일이 생기면 언제든 뒤따라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여행은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개리데브 씨. 당신의 일정은 이미 다 계산해 두었습니다. 12시에 출발하면 2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당일 밤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이 사람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선서 진술서를 받아내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가 미국 중부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달려온 것을 생각하면,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신이 100마일을 이동하는 것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 신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이선 개리데브 씨는 낙담한 기색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정 그러시다면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삶에 희망이라는 영광을 가져다주신 분인데, 무엇을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군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홈즈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보고서를 보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국인이 말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자, 이제 가봐야겠군요. 네이선 씨, 내일 다시 들러서 버밍엄으로 떠나시는 길을 배웅해 드리지요. 홈즈 씨도 이쪽 방향으로 가시나요? 그럼 이만 작별 인사를 나누죠. 내일 밤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인이 방을 나가자 친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고민에 빠진 듯하던 표정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개리데브 씨, 당신의 수집품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제 직업에서는 온갖 기묘한 지식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거든요. 당신의 이 방은 그런 지식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의뢰인은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고, 커다란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였다.

"선생님께서 매우 명석한 분이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본들이 워낙 잘 분류되어 있고 이름표도 꼼꼼히 붙어 있어서, 굳이 직접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혹시 내일 제가 잠시 살펴보러 가도 괜찮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천만에요. 물론 그곳은 문을 닫아 두겠지만, 손더스 부인이 네 시까지 지하에 머물 예정이니 그분이 열쇠로 문을 열어줄 겁니다."

"글쎄요, 마침 내일 오후에는 시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손더스 부인에게 말 한마디만 전해 준다면 아주 적절할 것 같군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어디를 통하십니까?"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다.

"에지웨어 로드에 있는 홀로웨이 앤 스틸이라니. 그런데 대체 왜?"

"집을 볼 때라면 나도 나름 고고학자라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이 집이 앤 여왕 양식인지, 아니면 조지 양식인지 궁금하던 참이었어."

"의심할 여지 없이 조지언 양식입니다."

"정말요? 저는 좀 더 이른 시기의 양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럼 이만 작별 인사를 나누죠, 개리데브 씨. 버밍엄으로 떠나는 여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바로 근처에 있었지만, 이미 영업이 끝난 상태였다. 결국 우리는 발길을 돌려 베이커가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홈즈는 다시 그 화제를 꺼냈다.

"우리의 작은 문제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네." 홈즈가 말했다. "자네도 이미 머릿속으로 해결책을 그려보았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군."

"앞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으니, 뒷부분은 내일 확인해 봅시다. 그 광고에서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plough'라는 단어의 철자가 틀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 그걸 알아챘나? 이보게, 왓슨, 자네 실력이 갈수록 느는군. 그래,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미국식 표현이었네. 인쇄업자가 받은 그대로를 옮겨 적은 모양이야. 그다음의 '버크보드(buckboards)'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네. 그것 역시 미국식이지. 그리고 '아르테지안 우물(artesian wells)'도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훨씬 흔하게 쓰이는 말이고. 영국의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내용은 전형적인 미국식 광고였던 셈이지. 자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 미국인 변호사가 직접 넣은 수밖에 없겠군요. 대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 다른 설명도 가능하네. 어쨌든 그가 이 고리타분한 노인을 버밍엄까지 데려가려 했다는 사실만큼은 아주 분명해. 그가 완전히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줄 수도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내버려 두어 상황을 정리하는 게 낫겠더군. 내일이면 알게 될 걸세, 왓슨. 내일이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까."

홈즈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다. 점심 무렵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안색이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군,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네에게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어. 물론 이 말이 자네를 위험 속으로 더 깊이 몰아넣는 이유가 될 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말이야. 이제 자네를 모를 리도 없지. 하지만 분명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자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네."

"글쎄요, 홈즈. 우리가 이런 일을 함께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주 까다로운 사건을 마주하고 있네. 변호사 존 개리데브 씨의 정체를 밝혀냈네. 그는 다름 아닌, 불길하고 잔인한 살인마로 악명 높은 '킬러' 에반스라네."

"유감스럽게도 저는 전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아, 기억 속에 휴대용 뉴게이트 달력을 통째로 넣고 다니는 게 당신 직업은 아니니까요. 방금 스코틀랜드 야드에 가서 친구 레스트레이드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직관이 가끔 부족할지는 몰라도, 철저함과 체계적인 방식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야드의 기록을 뒤지다 보면 우리 미국인 친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범죄자 초상화 목록에서 통통한 얼굴 하나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임스 윈터, 별명 모크로프트, 혹은 킬러 에반스라고 적혀 있었죠."

홈즈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수사 기록에서 몇 가지 사항을 급히 적어 왔습니다. 나이 마흔네 살. 시카고 출신. 미국에서 세 명을 총으로 쏜 전력이 있음.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교도소를 탈출함. 1893년 런던으로 입국. 1895년 1월, 워털루 로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카드 게임 도중 한 남자를 총으로 쏨. 피해자는 사망했으나,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가해자

임이 밝혀짐. 사망자는 시카고의 유명한 위조범이자 위조 화폐범인 로저 프레스콧으로 확인됨. 킬러 에반스는 1901년에 석방됨. 그 이후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으나, 알려진 바로는 성실하게 살아옴. 매우 위험한 인물로, 대개 무기를 소지하며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 왓슨, 우리가 찾는 인물이 바로 이자입니다. 인정하시겠지만, 아주 대담한 놈이죠."

"하지만 그의 속셈이 대체 무엇이지?"

"자, 이제 사건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네. 부동산 중개소에 다녀왔다네. 의뢰인이 말한 대로, 그는 그 집에서 5년 동안 살았더군. 그전에는 1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말이야. 이전 세입자는 월드론이라는 이름의 자유직 신사였다네. 중개소 직원들이 월드론의 인상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더군. 그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네. 키가 크고 수염을 길렀으며,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검은 인상의 사내였다더군. 그런데 프레스콧, 즉 킬러 에반스에게 총을 맞은 그 남자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보고에 따르면 키가 크고 수염이 난 검은 인상의 사내였다네. 따라서 가설을 하나 세워보자면, 미국인 범죄자 프레스콧이 지금 우리 결백한 친구가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바로 그 방에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 보게나, 드디어 연결 고리를 찾아냈네."

"그다음 연결 고리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가서 그것을 찾아봐야겠군."

그는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예전에 즐겨 쓰던 물건을 가져왔네. 만약 그 서부 개척 시대 친구라는 자가 별명에 걸맞게 행동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왓슨, 자네는 한 시간 정도 낮잠이라도 자게나. 그러고 나면 라이더가에서 벌어질 모험을 시작할 시간이 될 것 같군."

네이선 가리데브의 기묘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정확히 네 시였다. 관리인인 손더스 부인이 막 떠나려던 참이었으나, 우리를 들여보내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문은 스프링 잠금장치로 닫혔고, 홈즈는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바깥문이 닫히고 그녀의 보닛이 돌출된 창 너머로 사라졌다. 이제 이 집 1층에는 우리뿐이었다. 홈즈는 신속하게 주변을 살폈다. 어두운 구석에는 벽에서 약간 튀어나온 찬장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결국 그 찬장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홈즈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했다.

"그는 우리 친절한 친구를 방에서 끌어내고 싶어 했어. 그 사실만큼은 아주 명백하지. 수집가가 워낙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꽤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을 거야. 가리데브라는 인물을 꾸며낸 것도 분명 그 목적을 위해서였겠지. 왓슨, 내 생각엔 이 계획에 아주 악마적인 기발함이 담겨 있다고 말해야겠군. 비록 세입자의 그 기묘한 이름이 예상치 못한 실마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말이야. 그는 아주 교묘하게 음모를 엮어냈어."

“하지만 그가 원한 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자, 바로 그 사실을 알아내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네. 내가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이 일은 우리 의뢰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 오히려 그가 살해한 남자, 즉 범죄를 함께 모의했을지도 모를 그 남자와 관련된 문제지. 분명 저 방 안에는 죄를 숨긴 비밀이 있을 거야. 내 판단은 이렇다네. 처음에는 우리 친구가 자신의 수집품 중에 가치를 잘 모르는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 거물급 범죄자의 관심을 끌 만한 물건 말이야. 하지만 악명 높은 로저 프레스콧이 이 방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자, 왓슨. 이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마음을 다스리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지켜볼 수밖에 없네."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깥쪽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우리는 어둠 속에 몸을 더 바짝 웅크렸다. 이어 열쇠가 돌아가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리더니, 그 미국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뒤로 문을 조용히 닫고는,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날카로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코트를 벗어 던지더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특유의 활기찬 걸음걸이로 중앙 탁자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탁자를 한쪽으로 밀어내고는 탁자가 놓여 있던 사각형 카펫을 뜯어냈다. 카펫을 완전히 말아 올린 그는 안주머니에서 지렛대를 꺼내더니,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힘차게 바닥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무판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바닥 판자 사이에 사각형의 구멍이 생겼다. 킬러 에반스는 성냥을 그어 양초 토막에 불을 붙이고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홈즈가 신호를 보내듯 내 손목을 툭 쳤다. 우리는 함께 발소리를 죽이며 열려 있는 트랩도어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해도 낡은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던 모양이다.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던 미국인의 머리가 열린 구멍 사이로 갑자기 쑥 솟아올랐다. 그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자신의 머리에 권총 두 자루가 겨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눈빛은 이내 멋쩍은 미소로 바뀌었다.

“허, 이거 참!”

그는 수면 위로 기어 올라오며 차분하게 말했다.

“홈즈 씨, 아무래도 당신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던 모양이군요. 처음부터 내 수작을 다 꿰뚫어 보고는, 나를 바보로 만들 작정이었던 거지요? 좋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인정하죠. 당신이 나를 완전히 압도했으니, 이제 나는——”

그는 순식간에 품 안에서 리볼버를 꺼내 들더니 두 발의 총성을 울렸다. 그와 동시에 달궈진 인두를 허벅지에 갖다 댄 듯한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이어 홈즈의 권총이 남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남자의 몸을 뒤지며 무기를 찾을 때, 그 남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러고는 친구의 탄탄한 팔이 나를 감싸 안았고, 그는 나를 의자로 이끌었다.

"다치지 않았나, 왓슨? 제발, 다치지 않았다고 말해주게!"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충성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만 있다면, 상처 하나쯤은, 아니 수많은 상처를 입어도 아깝지 않았다. 맑고 단단하던 눈동자는 잠시 흐릿해졌고, 굳게 다물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생애 단 한 번, 그가 지닌 명석한 두뇌뿐만 아니라 거대한 심장까지도 엿볼 수 있었다. 겸손하지만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보필해 온 나의 지난 세월은,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홈즈. 그냥 살짝 긁힌 것뿐입니다."

그는 주머니칼로 내 바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당신 말이 맞소." 그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외쳤다. "겉으로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군." 홈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앉아 있는 우리 죄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세상에, 당신은 천운을 타고났군. 만약 왓슨을 죽였다면, 당신은 이 방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했을 테니까. 자, 이제 당신의 입장을 말해 보시오."

그는 자신을 변호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누운 채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다. 나는 홈즈의 팔에 몸을 기댄 채, 비밀 덮개가 열리며 드러난 작은 지하실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에반스가 가지고 내려간 양초 덕분에 그곳은 여전히 밝았다. 우리 시선이 닿은 곳에는 녹슨 기계 더미와 커다란 종이 뭉치들, 여기저기 널브러진 병들이 보였다.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꾸러미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인쇄기군. 위조범의 도구야." 홈즈가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죄수가 비틀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런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조범이죠. 저건 프레스콧의 기계고, 탁자 위에 놓인 돈뭉치들은 프레스콧이 찍어낸 지폐 이천 장입니다. 장당 백 파운드의 가치가 있고 어디서든 통할 물건들이죠. 마음껏 가져가시지요, 여러분. 거래를 성사시킨 걸로 치고 저를 그냥 놓아주십시오."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에반스 씨. 이 나라에는 당신이 숨어들 구멍 따위는 없습니다. 당신이 프레스콧을 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말고요, 선생님. 덕분에 5년이나 복역했죠. 정작 저를 덮친 건 그놈이었는데 말입니다. 5년이라니요, 국물 그릇만 한 훈장이라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프레스콧과 영란은행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놈을 잡아넣지 않았다면, 런던은 온통 가짜 지폐로 넘쳐났을 겁니다. 그놈이 지폐를 찍어내는 곳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름도 해괴한 곤충 사냥꾼 놈이 나타나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곳을 딱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제가 어떻게든 그놈을 쫓아내려 했던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차라리 그놈을 아예 치워버렸다면 더 현명한 처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마음이 약해서,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지 않으면 먼저 총을 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홈즈 씨.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전 이 설비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 늙은이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저를 무엇 때문에 몰아세우시는 겁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살인 미수에 불과하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그건 다음 단계에서 다룰 일이지. 지금 우리가 원한 건 바로 자네라는 그 귀하신 몸뚱이뿐이었네. 왓슨, 자네가 야드에 연락 좀 해주게. 그쪽도 그리 놀라지는 않을 걸세."

킬러 에반스와 그가 만들어낸 세 명의 가리데브라는 놀라운 발명에 관한 사실은 여기까지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불쌍한 옛 친구가 자신이 꿈꿨던 허황된 환상이 무너진 충격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공중에 세운 그의 궁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는 그 잔해 아래에 파묻히고 만 것이다. 그의 마지막 행방은 브릭스턴의 한 요양원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프레스콧 일당이 발각되었을 때 스코틀랜드 야드는 환호했다. 그 일당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주동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도무지 찾아낼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반스는 실제로 큰 공을 세웠으며, 여러 유능한 경시청 형사들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었다. 위조범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그 자체로 독보적인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그 범죄자가 언급했던 그 국그릇 모양의 메달을 기꺼이 수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인색한 법관

들은 그를 너그럽게 보지 않았고, 결국 킬러는 방금 막 빠져나왔던 어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7

토르 다리의 수수께끼

토르 다리의 수수께끼

채링 크로스에 있는 콕스 앤 코(Cox and Co.) 은행 금고 어딘가에는 낡고 찌그러진 양철 발송 상자 하나가 놓여 있다. 그 덮개에는 '전(前) 인도 육군 소속, 존 H. 왓슨 의학박사'라는 내 이름이 적혀 있다. 상자 안에는 서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서류들은 대부분 셜록 홈즈 씨가 여러 차례 마주했던 기묘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들이다. 그중 일부는, 그것도 결코 흥미가 덜하지 않은 사건들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그런 사건들은 끝내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에 차마 이야기로 풀어내기가 어렵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연구가에게는 흥미로울지 몰라도, 가볍게 읽는 독자에게는 짜증만 불러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완의 이야기 중에는 제임스 필리모어 씨의 사건이 있다. 그는 우산을 챙기려 자신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그 이후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사건은 소형 범선 '알리시아호'의 이야기다. 어느 봄날 아침, 안개 자욱한

구역으로 항해를 시작한 이 배는 다시는 안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선원들과 배의 행방에 대해서도 그 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세 번째 사건은 유명한 기자이자 결투가인 이사도라 페르사노의 사례다. 그는 넋이 나간 채 미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의 앞에는 기이한 벌레 한 마리가 담긴 성냥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벌레는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이라고 전해졌다.

이처럼 풀리지 않은 사건들 외에도, 어떤 사건들은 개인 가문의 비밀을 깊숙이 다루고 있다. 만약 이런 비밀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류층 사회에 엄청난 파문이 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친구인 홈즈가 이제야 비로소 이 일에 전념할 여유가 생겼으니, 해당 기록들은 따로 분류하여 파기할 것이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흥미를 끄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예전 같으면 이 기록들을 편집해 보았겠지만, 내가 무엇보다 존경하는 이 사람의 명성에 해가 될 만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대중에게 쏟아내는 것은 두려웠다. 어떤 사건에는 내가 직접 관여하여 목격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은 현장에 없었거나 역할이 너무 미미하여 제삼자의 입장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0월의 어느 거친 아침이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보니, 우리 집 뒷마당을 지키고 있는 외로운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마지막 남은 잎들이 휘몰아치며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며,

동료인 홈즈의 기분이 다소 가라앉아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가 그러하듯, 그 역시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홈즈는 식사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게다가 그의 기분은 유난히 밝고 즐거워 보였는데, 이는 그가 기분이 좋을 때면 나타나는 특유의 다소 불길한 활기였다.

"사건이 들어왔나 보군, 홈즈?" 내가 물었다.

“연역적 추리 능력은 확실히 전염성이 있군, 왓슨.” 홈즈가 대답했다. “자네 덕분에 내 비밀을 들키고 말았어. 그래, 사건이 하나 있네. 한 달 동안이나 사소한 일들만 다루며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다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군.”

"제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나눌 이야기가 그리 많지는 않네. 하지만 우선 새로 온 요리사가 대접한 삶은 달걀 두 개부터 다 먹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지. 달걀 상태를 보니 어제 현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패밀리 헤럴드' 잡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군. 달걀을 삶는 것처럼 사소한 일조차도 시간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법인데, 그 잡지에 실린 연애 소설에 빠져 있다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야."

15분쯤 지나 식탁이 정리되자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골드 킹이라 불리는 닐 깁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그가 물었다.

"미국 상원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한때는 서부 어느 주의 상원의원이기도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금광 재벌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네, 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영국에서 꽤 오래 살았을 겁니다. 이름이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는 5년 전쯤 햄프셔에 꽤 큰 저택을 하나 샀지요. 아마 그의 아내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군요."

"물론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름이 낯익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홈즈가 의자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 사건이 내게 맡겨질 줄 알았다면 미리 발췌해 둔 자료라도 준비해 두었을 텐데 말이야." 홈즈가 말했다.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자극적이긴 하지만, 딱히 난처한 점은 없어 보이네. 피고인의 개성이 워낙 독특해서 그렇지, 증거 자체는 아주 명확하거든. 검시관 배심원단과 경찰 법정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지. 이제 사건은 윈체스터의 형사 재판소로 넘어갔네. 아무래도 보람 없는 일이 될 것 같아 걱정이군. 왓슨, 나는 사실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이미 벌어진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내 의뢰인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

"의뢰인 말입니까?"

“아,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군. 왓슨, 자네도 나처럼 이야기를 거꾸로 늘어놓는 버릇이 생기려나 보군. 이것부터 먼저 읽어보는 게 좋겠네.”

그가 내게 건넨 편지에는 힘 있고 거침없는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클래리지 호텔, 10월 3일.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께—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선한 여인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지도 않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군요. 하지만 던바 양이 결백하다는 사실만큼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로 떠들썩하니까요. 그런데도 그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공정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 여인은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만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일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지요. 어쩌면 저도 모르는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됐든, 당신이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는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기꺼이 바

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번 사건에 그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J. 닐 깁슨 올림.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셜록 홈즈가 아침 식사 후에 피우는 파이프의 재를 털어내고 천천히 다시 채우며 말했다. "저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분입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 서류들을 다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래야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남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며,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매우 격렬하고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번 비극의 희생자가 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부인에 대해서는 전성기가 지난 나이였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었지요. 관련 인물은 이 세 사람이며, 사건의 배경은 영국의 유서 깊은 영지의 중심인 웅장하고 오래된 저택입니다.

이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죠. 부인은 늦은 밤, 저택에서 거의 반 마일 떨어진 정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입었던 드레스 차림에 어깨에는 숄을 걸치고 있었는데, 머리에 권총 탄환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근처에서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살인을 입증할 만한 현장의 단서도 없었습니다. 왓슨, 근처에 무기가 없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범행은 저녁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밤 11시경 사냥터지기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의사가 시신을 검사한

뒤 저택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요약했나요, 아니면 명확히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상황이 아주 명확하군요. 그런데 왜 가정교사를 의심하는 겁니까?"

“우선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의 옷장 바닥에서 탄환과 구경이 일치하는, 한 발이 발사된 리볼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고정하더니, 끊어질 듯한 말투로 다시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옷장…… 바닥에서요.” 그러고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의 흐름에 빠져들었음을 직감했고, 감히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움찔하며 다시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왓슨, 증거가 발견되었지. 아주 결정적이지 않은가? 두 배심원단도 그렇게 판단했네. 게다가 죽은 여인의 몸에서는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긴 쪽지가 나왔는데, 거기엔 가정교사의 서명까지 되어 있었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동기가 있네. 깁슨 상원의원은 매력적인 사람이지. 만약 그의 아내가 죽는다면, 이미 고용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그 젊은 여인보다 누가 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좋겠나? 사랑과 재산, 그리고 권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중년 여인의 목숨에 달려 있는 셈이지. 추악하네, 왓슨. 정말이지 아주 추악해!”

"정말 그렇네, 홈즈."

“알리바이도 증명하지 못했네. 오히려 그 시각에 비극이 일어난 토르 다리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기에, 그녀로서는 부정할 수도 없었네.”

"정말이지, 이제 끝난 것 같군요."

“하지만 왓슨, 하지만 말일세! 이 다리를 좀 보게나. 난간이 달린 넓은 석조 다리 하나가, 길고 깊으며 갈대로 둘러싸인 호수의 가장 좁은 부분 위로 진입로를 이어 주고 있네. 사람들은 이곳을 토르 미어라고 부른다네. 다리 입구에는 한 여인이 죽은 채 발견되었지.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사실들이라네. 그런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 의뢰인이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모양이군.”

빌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으나, 그가 전한 이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마를로 베이츠 씨라는 인물은 우리 둘 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을 한 채, 경련하듯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마르고 초조한 체구의 사내였다. 의사로서의 내 안목으로 보건대, 그는 당장이라도 정신적 붕괴가 일어날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태였다.

"베이츠 씨, 무척 불안해 보이시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우선 좀 앉으시지요. 안타깝게도 제가 11시에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길게 내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방문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마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사람처럼 짧은 문장들을 툭툭 내뱉었다. "깁슨 씨가 오고 있습니다. 깁슨 씨는 제 고용주입니다. 저는 그분

의 저택을 관리하는 관리인이고요. 홈즈 씨, 그자는 악당입니다. 정말이지 지독한 악당이란 말입니다!"

"말이 좀 거치군요, 베이츠 씨."

"홈즈 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여기서 저를 발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도착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비서인 퍼거슨 씨가 오늘 아침에서야 당신과의 약속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그분의 관리인이시군요?"

"그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면 그 빌어먹을 노예 생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홈즈 씨, 그는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주변 모든 이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지요. 그가 운영하는 자선 단체들은 사실 자신의 사적인 악행을 감추기 위한 가림막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잔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잔인했단 말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아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아내는 열대 지방 출신이었죠. 당신도 아시겠지만, 브라질 태생이었습니다."

"아니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태생부터 열정적이었고, 성품 또한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태양과 정열을 품고 태어난 아이였지요. 그녀는 그런 여인들이 그러하듯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육체적 매력이 시들었을 때—듣기로는 한때 대단했다고 하더군요—그를 붙잡아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를 가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대하는 그의 방식에 모두가 분노했지요. 하지만 그는 말솜씨가 좋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붙잡지 마세요! 그가 곧 도착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이한 손님은 시계를 보고는 겁에 질린 듯하더니, 말 그대로 문을 향해 달려가더니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허어, 이거 참!"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홈즈가 입을 열었다.

"깁슨 씨의 집안 식구들은 아주 충직하고 보기 좋군요. 하지만 이번 경고는 꽤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제 그 남자가 직접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히 그 시각,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유명한 백만장자가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를 마주한 순간, 나는 그의 관리인이 왜 그토록 두려워하고 싫어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업 경쟁자들이 왜 그를 그토록 저주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조각가이고, 강철 같은 신경과 가죽처럼 질긴 양심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나는 닐 깁슨 씨를 모델로 삼

을 것이다. 키가 크고 수척하며 울퉁불퉁한 그의 체구에서는 굶주림과 탐욕의 기운이 느껴졌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형상을 가져다 놓고, 고결한 정신 대신 저급한 욕망을 채워 넣는다면 이 남자의 느낌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마치 화강암을 깎아 만든 듯했다. 단단하고 거칠며 무자비한 그 얼굴에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남은 흉터 같은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덥수룩한 눈썹 아래로 날카롭게 빛나는 차가운 회색 눈동자가 우리를 차례로 훑었다. 홈즈가 내 이름을 언급하자 그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고는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한 위압적인 태도로 내 동료의 곁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의 뼈마디 굵은 무릎이 내 동료에게 닿을 듯 가까웠다.

“홈즈 씨, 미리 말씀해 두겠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서 돈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 돈이 진실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면, 그냥 태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이 여인은 결백합니다. 반드시 누명을 벗겨줘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해낼 사람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 수임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홈즈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 기준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임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할 때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글쎄요, 돈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명성을 생각하십시오. 이번 일을 성공시킨다면 영국과 미국의 모든 신문이 당신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겁니다. 두 대륙 전체가 당신 이야기로 떠들썩해지겠지요.”

"고맙습니다, 깁슨 씨. 하지만 칭찬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지도 모르겠군요. 저를 움직이는 건 오로지 사건 그 자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사실 관계를 짚어봅시다."

"주요한 내용은 신문 기사만 봐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더 보탤 만한 정보는 딱히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혹시라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기꺼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던바 양과 당신은 정확히 어떤 관계였습니까?"

골드 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러다 이내 특유의 묵직한 침착함을 되찾았다.

"홈즈 씨,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신의 권리일 것이고, 어쩌면 의무를 다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계는 철저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젊은 숙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으

며, 그녀가 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얼굴을 마주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깁슨 씨, 나는 꽤 바쁜 사람이라네." 그가 말했다. "목적 없는 잡담을 나누기에는 시간도, 흥미도 없으니 이만 실례하지. 좋은 아침이길 바라네."

방문객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덩치가 크고 풍채가 넉넉한 그의 체구가 홈즈를 압도하듯 높게 솟았다. 빳빳하게 솟은 눈썹 아래로는 분노 섞인 안광이 번뜩였고, 창백하고 누르스름한 뺨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홈즈 씨? 제 사건을 거절하시겠다는 건가요?"

"자, 깁슨 씨. 어쨌든 이제 그만 가보셔도 좋습니다. 제 말이 충분히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은 충분히 알겠소.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오? 나를 상대로 값을 올리려는 속셈인가, 아니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가 겁이라도 나는 건가? 대체 무엇 때문이오? 나는 명확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소."

“글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 드리지요. 이번 사건은 잘못된 정보라는 추가적인 난관이 없더라도, 시작하기에 충분히 복잡하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글쎄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만, 정 그 단어를 쓰시겠다면 굳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백만장자의 얼굴에 서린 표정이 소름 끼칠 정도로 격렬해진 데다, 그가 커다란 주먹을 치켜들었기 때문이다. 홈즈는 나른하게 미소 지으며 파이프를 집으려 손을 뻗었다.

“너무 소란 피우지 마세요, 깁슨 씨. 아침 식사 후에는 아주 사소한 말다툼조차 마음을 어지럽히더군요. 차라리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생각에 잠겨 보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골드 킹은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나는 그를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하여, 불꽃처럼 타오르던 분노를 단 한 순간 만에 차갑고 경멸 어린 무관심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글쎄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당신 사업은 당신이 알아서 잘 운영하시겠지요. 당신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사건을 맡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홈즈 씨, 오늘 아침 당신은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린 셈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도 꺾어 놓았거든요. 나를 거스르고도 무사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더군. 그런데도 난 여전히 여기 있지 않나.”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좋은 아침이네, 깁슨 씨. 아직 배울 게 아주 많구먼.”

방문객은 소란스럽게 떠나갔지만, 홈즈는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몽상에 잠긴 눈빛으로 흔들림 없는 침묵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왓슨?" 마침내 그가 물었다.

"글쎄, 홈즈. 솔직히 고백하자면 말이야, 그자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무엇이든 가차 없이 치워버릴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게다가 베이츠라는 자가 분명히 말했듯 그의 아내가 장애물이었거나 혹은 그가 싫어하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가 가정교사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셨는지요?"

“허풍이야, 왓슨. 전부 허풍이라고! 그가 보낸 편지의 격정적이고 파격적이며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먼 어조를 떠올려 보게. 그리고 그 어조를 그의 절제된 태도 및 외양과 대조해 보았지. 그랬더니 아주 명확해지더군. 그가 품은 깊은 감정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인 그 여인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 말이야. 진실에 도달하려면 이 세 사람의 정확한 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네. 내가 그를 정면으로 몰아붙였을 때 그가 얼마나 침착하게 받아넘겼는지 자네도 보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허풍을 떨었네. 사실은 그저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을 뿐이었는데 말이야."

"어쩌면 그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 저거 초인종 소리 아닙니까? 그래요,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자, 깁슨 씨, 마침 왓슨 박사에게 당신이 예정보다 좀 늦으시는 것 같다고 말하던 참이었습니다."

골드 킹은 처음 방을 나설 때보다 한결 차분해진 모습으로 다시 들어왔다.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눈빛에는 분함이 서려 있었으나, 목적을 달성하려면 결국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도 이성적으로 깨달은 모양이었다.

"홈즈 씨,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제가 당신의 말을 오해하고 성급하게 반응했던 것 같군요.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사실 관계를 파헤치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던바 양과 저의 관계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

"네, 그런 것 같군요. 당신은 진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상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외과의사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외과 의사를 속이려는 목적이 있는 환자만이 자신의 병세를 숨기려 드는 법이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홈즈 씨, 당신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만약 정말로 진지한 감정이 얽힌 문제라면, 대부분의 남자는 어떤 여자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움찔하며 물러서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생각에 남자들은 누구나 영혼의 어느 구석에, 타인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사적인 영역을 남겨두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그 영역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녀를 구하려던 목적이 있었으니 그 점은 참작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판은 깔렸고 당신의 침범도 허용되었으니, 마음껏 파헤쳐 보시지요. 대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골드 킹은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깊게 파인 주름이 잡힌 그의 엄숙한 얼굴에는 슬픔과 침울함이 더욱 짙게 배어 있었다.

"홈즈 씨,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말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금을 찾으러 다닐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마리아 핀토는 마나오스의 정부 관료의 딸이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당시의 저는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금 되돌아봐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참으로 보기 드물고 경이로웠습니다. 성격 또한 깊고 풍부했습니다. 정열적이

고, 진심을 다하며, 열대 지방의 기운이 느껴지면서도 다소 불안정했지요. 제가 알던 미국 여성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자,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가 지나가고 나서야—그 감정은 수년간 이어졌지만—우리가 공통점이 전혀, 정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사랑은 식어버렸지요. 만약 그녀의 사랑도 함께 식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녀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가혹하게, 심지어 누군가의 말처럼 야만적일 정도로 대했다면, 그것은 그녀의 사랑을 죽일 수만 있다면, 혹은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하기만 한다면 우리 둘 모두에게 차라리 편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아마존 강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이 영국 숲속에서도 여전히 저를 숭배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녀는 변함없이 저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레이스 던바 양이 왔습니다. 우리 광고를 보고 찾아온 그녀는 두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었지요. 아마 신문에서 그녀의 초상화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녀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니까요. 저는 이웃들보다 도덕적인 척할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런 여인과 한 지붕 아래 살며 매일 마주하면서 그녀에게 뜨거운 연정을 느끼지 않을 자신은 없습니다. 홈즈 씨, 저를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 이해하네.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냈다면 나는 자네를 비난했을 거야. 어떤 의미에서든 이 젊은 숙녀는 자네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으니까."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백만장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꾸짖음을 들은 탓인지, 아주 잠깐 그의 눈에 예전의 그 분노 어린 빛이 스쳤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뽐내려는 건 아닙니다. 평생을 원하는 건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 달려드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한 사랑과 소유욕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오, 그랬단 말이지요?"

홈즈는 감정이 격해질 때면 매우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그녀에게 말했소. 만약 결혼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겠지만, 지금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오.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소."

"분명 아주 후한 금액이겠지." 홈즈가 비웃듯 말했다.

"이보시오, 홈즈 씨. 나는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증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러 온 것이오. 당신의 비판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오."

“오로지 그 아가씨를 위해서만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겁니다.” 홈즈가 엄중하게 말했다. “그녀가 저지른 혐의가 당신이 스스로 인정한 죄보다 더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무력한 소녀를 파멸시키려 했으니까요. 당신 같은 부유한 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죄를 눈감아주도록 매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놀랍게도 골드 킹은 그 질책을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였다.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계획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녀는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더니, 당장이라도 집을 떠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녀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선, 그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생계를 포기해서 그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지요. 내가 그녀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서야 그녀는 남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영향력보다도 강력하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녀는 그 힘을 선한 곳에 쓰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글쎄요, 그녀는 제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 씨, 제 사업은 규모가 아주 큽니다. 일반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

죠. 저는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무너뜨리는 쪽이었죠. 단순히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와 도시, 심지어 국가까지 휘말렸습니다. 비즈니스는 냉혹한 게임이고, 약한 자는 도태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 게임에 임했습니다. 저 자신은 결코 우는소리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우는소리를 하든 말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보더군요. 제 생각에 그녀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부를 쌓으려면, 생계 수단을 잃고 몰락한 만 명의 사람들을 발판 삼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너머에 있는, 더 영속적인 가치를 꿰뚫어 볼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녀는 제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듣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영향력이 제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 곁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뭐 좀 밝혀낼 수 있겠나?"

골드 킹은 머리를 두 손에 파묻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한동안, 어쩌면 1분 넘게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녀에게 불리한 정황이 아주 많다는 점은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여성은 내면의 세계를 중시하기에, 남자의 판단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녀가 평소 성품과는 전혀 딴판인 아주 기이한 방식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가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홈즈 씨, 이 생각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려 보죠. 제 아내가 지독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질투는 육체적인 집착만큼이나 광기 어린 법이지요. 제 아내는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스스로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영국 여인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신에게는 결코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영향력이 선한 것이었을지라도,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증오로 미쳐 있었고, 아마도 아마존 여인 같은 열정이 피에 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던바 양을 살해하려 계획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적어도 총으로 위협해서 겁을 준 뒤 우리 곁을 떠나게 만들려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총이 발사되어 총을 들고 있던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사실, 계획적인 살인 외에는 그 방법이 유일하고 명백한 대안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결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꼭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토록 끔찍한 상황에 처한 여자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권총을 손에 쥔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옷가지 사이에 권총을 내팽개쳤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권총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했다면 무조건 부

인하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설에 반대할 근거가 있습니까?”

"던바 양 본인이군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홈즈가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오전 중에 필요한 허가증을 받고, 저녁 기차를 타고 윈체스터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젊은 숙녀분을 만나고 나면, 제가 이 사건에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다만 제 결론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리라고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행증 발급이 다소 지체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날 윈체스터에 도착하는 대신 닐 깁슨 씨의 햄프셔 저택인 토르 플레이스로 향했다. 깁슨 씨가 직접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지역 경찰의 코번트리 경사가 머무는 주소는 알고 있었다.

코번트리 경사는 키가 크고 마른 데다 안색이 창백하여 마치 시체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 신비로운 태도를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입 밖으로 내뱉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또한 그는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별것 아닌 평범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마치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처럼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기이한 태도 뒤에 숨겨진 그는 곧 본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어떤 도움이라도 기꺼이 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어찌 됐든, 홈즈 씨, 스코틀랜드 야드보다는 당신을 믿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야드에서 사건을 맡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지역 경찰의 공은 사라지고 실패하면 비난만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정직하게 수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에 제가 직접 나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 말에 우리의 우울한 지인, 즉 코번트리 경사는 눈에 띄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사건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분명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인 왓슨 박사님도 믿음직한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홈즈 씨, 그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말입니다." 그는 마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조심스럽다는 듯 주위를 살폈다. "혹시 닐 깁슨 씨 본인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던바 양을 아직 못 보셨나 보군요.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내를 제거하고 싶어 했을 법도 하지요. 게다가 미

국인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권총을 꺼내 들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그의 권총이었으니까요."

"그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한 쌍 중 하나였습니다."

"한 쌍 중 하나라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그 신사분은 이런저런 종류의 총기를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권총 하나를 정확히 맞춘 적은 없었지만, 상자는 분명 두 자루를 넣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개가 한 쌍인 물건이라면, 분명히 짝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그것들을 모두 늘어놓아 두었으니, 직접 살펴보시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하죠. 일단 같이 걸어가면서 비극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대화는 코번트리 경사가 사는 소박한 오두막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지역 경찰서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을 반 마일 정도 가로질러 걸어가자, 시들어가는 고사리들이 금빛과 청동빛으로 물든 풍경이 펼쳐졌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토르 플레이스 저택의 부지로 이어지는 측면 출입문에 다다랐다. 꿩 사육장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탁 트인 공터 너머로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저택이 보였다. 튜더 양식과 조지아 양식이 절묘하게 섞인, 넓게 퍼진 반목조 양식의 집이었다. 우리 옆으로는 갈대가 무성한 긴 연못이 흐르고 있었다. 연못은 중앙의 돌다리 아래로 마차 길이 지나면서 폭이 좁아졌으나, 다리 양옆으로는 다시 작은 호수처럼 넓게 퍼져 나갔다. 안내인이 이 다리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깁슨 부인의 시신이 놓여 있던 곳이 바로 저기였습니다. 저 돌을 이정표 삼아 표시해 두었지요."

"시신이 옮겨지기 전에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즉시 저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깁슨 씨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경보가 울리자마자 집안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온 깁슨 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네. 신문 기사를 보니 총탄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다고 하더군."

"네, 선생님. 아주 가깝습니다."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 말입니까?"

"바로 그 뒤입니다, 선생님."

"시신은 어떤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까?"

"등 쪽입니다, 선생님. 몸싸운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상처도 없고, 무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던바 양이 보낸 짧은 쪽지는 그녀의 왼손에 꽉 쥐여 있었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요?"

"예, 선생님. 손가락이 거의 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군가 거짓 단서를 남기려고 죽은 뒤에 그 쪽지를 갖다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쪽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9시에 토르 브리지에 있겠음. —G. 던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던바 양이 직접 썼다고 인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녀는 변호 내용을 순회재판소까지 아껴두기로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분명 아주 흥미로운 문제군요. 편지의 요점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모호하지 않습니까?"

“저, 선생님.” 가이드가 말을 이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이 사건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명확한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그 편지가 진짜이고 실제로 쓰인 것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분명 얼마 전에, 한두 시간 전쯤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인은 여전히 왼손에 편지를 꼭 쥐고 있는 걸까요? 왜 이토록 조심스럽게 편지를 들고 있는 겁니까? 면담하는 동안 편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 봐야겠군.”

그는 다리 돌 난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날카로운 회색 눈동자는 사방을 훑으며 무언가를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은편 난간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더니 석조 구조물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거 참 기묘하군."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난간 턱에 생긴 깨진 흔적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석조 벽면은 온통 회색이었으나, 단 한 곳만은 6펜스 동전 크기 정도의 작은 면적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날카로운 충격을 받아 표면이 깨져 나간 듯한 흔적이 보였다.

“꽤 강한 충격이 가해졌군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는 지팡이로 난간의 턱을 몇 번 두드려 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주 세게 내리친 것이 분명해요. 게다가 위치도 묘하군요. 위에서 내려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친 겁니다. 보시다시피 난간의 ‘아랫부분’에 충격 흔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신으로부터 적어도 15피트는 떨어져 있습니다."

“네, 시신에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군요. 발자국은 없었다고 하셨습니까?”

"땅이 철처럼 딱딱했습니다, 선생님. 발자국은커녕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합시다. 우선 저택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그 무기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군요. 그러고 나서 윈체스터로 이동합시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던바 양을 꼭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닐 깁슨 씨는 아직 시내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아침에 우리를 찾아왔던 신경질적인 베이츠 씨가 집 안에 있었다. 그는 고용주가 모험적인 삶을 살며 모아온, 형체와 크기가 제각각인 무시무시한 총기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마치 불길한 즐거움이라도 느끼는 듯한 태도로 그 무기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깁슨 씨에게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를 알고 그의 수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가 말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에 장전된 리볼버를 두고 잡니다. 그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선생님. 우리 모두가 그를 두려워할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돌아가신 그 가련한 부인께서도 자주 겁에 질려 계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한 말들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내뱉던,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의 말들 말입니다."

"우리 백만장자 신사께서는 사생활이 그리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군요."

역으로 향하는 길에 홈즈가 말했다.

"자, 왓슨. 우리는 꽤 많은 사실을 알아냈고 그중 일부는 새로운 정보이기도 하네. 하지만 아직 결론에 도달하려면 멀었군. 베이츠 씨가 고용주를 아주 싫어하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그에게서 들은 바로는 경보가 울렸을 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서재에 있었다네. 저녁 식사는 8시 30분에 끝났고,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 경보가 밤늦게 울린 것은 사실이지만, 비극은 분명 쪽지에 적힌 시간대에 일어났네.

깁슨 씨가 오후 5시에 시내에서 돌아온 이후로 밖을 나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니까.

반면에 던바 양은 깁슨 부인을 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네. 하지만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더군. 변호사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 젊은 여성에게 물어야 할 아주 결정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군. 솔직히 말하자면, 단 한 가지 예외가 없다면 이 사건은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네만."

"그건 무엇입니까, 홈즈?"

"그녀의 옷장 안에서 권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맙소사, 홈즈!" 내가 외쳤다. "내 눈에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처럼 보였단 말일세."

"그렇지 않네, 왓슨. 처음 대충 훑어봤을 때부터 무언가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네.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그 점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질 정도야. 우리는 일관성을 찾아야 하네. 만약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 기만일 것이라고 의심해야 하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왓슨. 잠시 상상해 보게나. 자네가 냉혹하고 치밀하게 라이벌을 제거하려는 한 여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일세. 모든 계획은 끝났네. 편지도 이미 써 두었지. 희생자도 나타났고, 자네 손에는 무기도 들려 있네. 범행은 완벽하게 끝났어. 아주 능숙하고 깔끔한 범죄였지. 그런데 자네는 그토록 교묘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제 와서 무기를 영영 덮어 감춰 줄 근처 갈대밭에 던져 버리는 것을 깜빡하고, 도리어 그것을 고이 집으로 가져가 가장 먼저 수색당할 자네 옷장에 넣어 둠으로써 범죄자로서의 명성을 스스로 망치겠는가? 왓슨, 자네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자네를 책략가라고는 부르지 못할 걸세. 그런데도 나는 자네가 그렇게 조잡한 짓을 저지르는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네.”

"그 순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니, 아니네, 왓슨. 난 그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네. 범죄를 냉정하게 계획했다면, 그 흔적을 감추는 방법 또한 냉정하게 계획했을 것이네. 그러니 이건 우리가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길 바라네.”

"하지만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군요."

“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지요. 관점을 바꾸고 나면, 그토록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던 것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키는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리볼버를 보십시오. 던바 양은 이 총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설에 따르면, 그녀의 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그녀의 옷장에 이 총을 몰래 넣어둔 것이지

요.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범인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주 유익한 수사 방향이 즉시 도출됩니다."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윈체스터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변호를 맡은 유망한 변호사 조이스 커밍스 씨와 동행하여 우리는 그녀의 구금실에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아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던바 양이 나에게 준 인상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기세등등한 백만장자조차 그녀에게서 자신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 즉 자신을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힘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강인하고 또렷하면서도 섬세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설령 그녀가 다소 충동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타고난 고결함이 있어 결국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훤칠한 체격에 위엄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흑발의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 검은 눈동자에는 그물에 걸린 채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쫓기는 짐승 특유의 애처롭고 무력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러다 나의 유명한 친구가 이곳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창백했던 그녀의 뺨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혹시 닐 깁슨 씨에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으셨나요?" 그녀가 낮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그 부분까지 일일이 설명하며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직접 만나고 나니, 당신이 그에게 끼쳤던 영향력이나 두 분의 관계가 결백하다는 깁슨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그런데 왜 법정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까?”

"그런 비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가족의 사생활을 구태여 들추어내지 않아도 모든 의혹이 자연히 풀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아가씨,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홈즈가 간곡하게 외쳤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커밍스 씨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승리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아가씨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것은 잔인한 기만일 뿐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아가씨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게 주십시오.”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깁슨 씨의 부인과 어떤 관계인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녀는 저를 증오했습니다, 홈즈 씨. 열대 지방 사람 특유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저를 미워했지요. 그녀는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법이 없

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저를 향한 증오 또한 그만큼이나 깊었지요. 아마도 그녀는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오해했을 겁니다. 그녀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녀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를 묶어주는 정신적, 심지어 영적인 유대감을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그저 남편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그의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을 테지요. 이제 와 생각하니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집을 떠났더라도, 그 불행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던바 양," 홈즈가 말했다. "그날 저녁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즈 씨, 제가 아는 한은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사실을 밝혀낸다면, 다른 이들은 아마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제가 토르 브리지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날 아침 깁슨 부인으로부터 쪽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쪽지는 교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부인이 직접 두고 간 듯했습니다. 쪽지에는 저녁

식사 후에 그곳으로 와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게 할 중요한 말이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또한 우리 사이의 비밀을 지키고 싶으니, 답장은 정원에 있는 해시계 위에 남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부인의 요청대로 만남에 응하며 답장을 남겼습니다. 부인은 쪽지를 파기해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교실 벽난로에서 그 쪽지를 태워 버렸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매우 거칠게 대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를 자주 꾸짖곤 했습니다. 부인이 이토록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은, 남편이 우리의 만남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답변을 아주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네.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자, 그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한 대로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이 되어서야 저는 이 가련한 여인이 저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미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이들이 가진 특유의, 교묘하고도 깊은 기만술을 품은 미친 여자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마주하면서, 마음속에는 그토록 격렬한 증오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밝히

지 않겠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듯한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며 온갖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렸을 뿐입니다. 저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는 두 귀를 틀어막고 그곳을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제가 떠날 때 그녀는 다리 입구에 서서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그 지점에서 불과 몇 야드 안쪽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떠난 직후에 그녀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정말이지 이 끔찍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너무나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저 제 방으로 돌아가 마음을 추스르기에 급급했지, 다른 일이 일어나는지 살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다고 하셨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밖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그 가여운 생명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깁슨 씨를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를 보았을 때는 막 다리에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의사와 경찰을 불러둔 상태였고요.”

"그가 무척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깁슨 씨는 매우 강인하고 자기 절제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위인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를 아주 잘 아는 제가 보기에는, 그가 깊이 상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죠. 당신의 방에서 발견된 그 권총 말입니다. 이 권총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맹세코 그렇단 말입니다."

"언제 발견되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수색을 벌였을 때였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말입니까?"

"네, 제 드레스들이 걸린 옷장 바닥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옷장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누군가 당신의 방에 들어와서,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그 권총을 거기 가져다 놓은 겁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식사 시간이었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있었을 시간뿐이었을 겁니다."

"그 쪽지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상태였습니까?"

"네, 그때부터 오전 내내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던바 양.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항은 더 없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리 석조물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시신 바로 맞은편에 아주 최근에 떨어져 나간 돌 조각이 있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 단순한 우연일 겁니다."

"참으로 기묘하군요, 던바 양. 아주 기묘해요. 왜 하필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 그것도 바로 그 장소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정도의 충격은 오직 엄청난 폭력을 가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백하고 열의에 찬 그의 얼굴에는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그 표정은, 홈즈의 천재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임을 나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중대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변호사와 피고인, 그리고 나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오로지 홈즈에게만 온 정신을 집중하며 침묵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이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듯, 신경질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요동치고 있었다.

"어서 오게, 왓슨, 어서!" 그가 외쳤다.

"무슨 일입니까, 홈즈 씨?"

"걱정 마십시오, 부인. 커밍스 씨, 조만간 제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정의의 신이 도우신다면, 온 영국을 뒤흔들 만한 사건을 당신에게 안겨드리지요. 던바 양, 내일이면 소식이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안심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진실의 빛이 마침내 드러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윈체스터에서 소르 플레이스까지의 여정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조바심이 난 내게는 그 길이 멀게만 느껴졌고, 홈즈에게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신경질적인 불안함에 휩싸인 홈즈는 도저

히 가만히 앉아 있지 못했다. 그는 마차 안을 서성거리거나, 예민하고 긴 손가락으로 옆자리 쿠션을 톡톡 두드려댔다.

그러다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홈즈는 갑자기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는 일등석 마차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내 양 무릎 위에 손을 얹더니,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평소 그가 장난꾸러기 같은 기색을 보일 때면 나타나곤 하는 특유의 눈빛이었다.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가 우리 외출 때마다 무기를 챙겨 나간다는 기억이 나는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홈즈는 일단 문제에 몰두하면 자신의 안전 따위는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내가 그의 곁을 지키며 리볼버로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 그래, 그런 일에는 내가 좀 덜렁대는 구석이 있지. 그나저나, 지금 리볼버는 가지고 있나?"

나는 뒷주머니에서 짧고 다루기 편하면서도 아주 유용한 작은 무기 하나를 꺼냈다. 그는 걸쇠를 풀고 실탄을 털어낸 뒤, 주의 깊게 무기를 살펴보았다.

"무겁군요. 놀라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 아주 제대로 된 작업이군."

그는 잠시 동안 그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왓슨, 그거 아나?"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조사 중인 이 미스터리와 자네의 리볼버가 아주 긴밀하게 얽히게 될 것 같군."

"이보게 홈즈, 농담하는 거지?"

“아니네, 왓슨. 난 아주 진지하네. 우리 앞에는 시험이 하나 놓여 있어. 이 시험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걸세. 그리고 그 시험의 성패는 이 작은 무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지. 탄환 하나를 뺐네. 이제 나머지 다섯 발을 다시 채워 넣고 안전장치를 걸겠네. 자, 됐군! 이렇게 해야 무게가 늘어나서 실제 총과 더 비슷해지거든.”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햄프셔의 작은 역에 도착할 때까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역에서 낡아빠진 마차 한 대를 빌려 탔다. 그리고 15분쯤 달렸을까, 우리의 신뢰하는 친구인 경사(sergeant)의 집 앞에 도착했다.

"단서라고요, 홈즈 씨? 그게 대체 뭡니까?"

"모든 건 왓슨 박사의 리볼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네." 내 친구가 말했다. "여기 있군. 자, 경관님, 실 열 야드만 빌려줄 수 있겠나?"

마을 상점에서 튼튼한 노끈 한 타래를 구할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군." 홈즈가 말했다. "자, 이제 괜찮다면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믿고 싶은, 그 마지막 과정으로 넘어가 보세."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햄프셔의 황무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환상적인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경사는 내 동료의 정신 상태를 깊이 의심하는 듯, 의구심과 불신이 가득 담긴 눈초리를 연신 보내며 우리 곁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범죄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던 내 친구가 사실은 몹시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맞네." 내 말에 그가 대답했다. "왓슨, 자네도 예전에 내가 헛다리를 짚는 걸 본 적이 있지. 나에게도 그런 일에 대한 직감이 있지만, 때로는 그 직감이 나를 속이기도 하지. 윈체스터 감옥의 독방에서 처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는 분명 확실하다고 믿었네. 하지만 머리가 활발히 돌아가는 게 단점이라면, 우리가 쫓는 단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식의 다른 가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된다는 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왓슨,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네."

그는 걸어가면서 실 한쪽 끝을 권총 손잡이에 단단히 묶었다. 우리는 어느덧 비극이 일어난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시신이 놓여 있던 정확한 위치를 아주 세심하게 표시해 나갔다. 그러고는 헤더와 고사리 덤불 사이를 뒤지더니 꽤 큼직한 돌 하나를 찾아냈다. 그는 실의 다른 쪽 끝에 그 돌을 묶은 뒤, 다리 난간 너머로 매달았다. 돌은 물 위 허공에서 흔들거렸다. 이제 그는 다리 가장자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바로 그 비극적인 지점에 섰다. 그의 손에는 내 권총이 들려 있었고, 권총과 다리 건너편의 무거운 돌 사이로 연결된 실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해 보지!" 그가 외쳤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권총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이내 손을 놓아버렸다. 권총은 돌덩이의 무게에 휩쓸려 순식간에 날아갔다. 총은 난간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이내 난간 너머 물속으로 사라졌다. 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홈즈는 이미 돌벽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것을 찾아냈음을 알리는 환희에 찬 외침이 터져 나왔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 그가 외쳤다. "보게, 왓슨. 자네의 리볼버가 이 문제를 해결했네!" 말을 마친 홈즈는 돌 난간 아래쪽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첫 번째 흠집과 크기 및 모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두 번째 흠집이 나 있었다.

"우리는 오늘 밤 여관에 머물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한 경사를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당연히 갈고리를 가져와서 제 친구의 리볼버를 손쉽게 건져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리볼버와 줄, 그리고 추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악독한 여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무고한 희생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죠. 깁슨 씨에게는 제가 내일 아침에 찾아가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던바 양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를 그때 취하면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늦게, 마을 여관에 나란히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던 중 홈즈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간략히 정리해 주었다.

"왓슨, 걱정되는군." 홈즈가 말했다. "자네의 기록에 '토르 다리 미스터리 사건'을 추가한다고 해서 내 명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네. 그동안 내 정신은 무뎌져 있었고, 내 기술의 근간인 상상력과 현실의 조화도 부족했어. 석조물에 생긴 파편이 진상을 암시하기에 충분한 단서였다는 점을 인정하네.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있네."

불행한 여인이 품은 마음의 작용은 매우 깊고도 교묘했다. 그렇기에 그녀가 꾸민 음모를 파헤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우리가 겪은 여러 모험 중에서도, 뒤틀린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토록 기이한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던바 양이 육체적인 경쟁자였든, 아니면 그저 정신적인 라이벌이었든, 여인의 눈에는 그 차이가 무의미했다. 그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남편이 자신의 지나친 애정을 밀어내려 했던 그 모든 가혹한 처사와 모진 말들에 대해, 여인은 이 결백한 숙녀를 원망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녀의 첫 번째 결심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희생자가 겪게 될 운명을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밟은 여러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네. 그 단계들을 보면 그녀의 두뇌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는지 알 수 있지. 던바 양에게서 아주 교묘하게 쪽지 한 장을 받아냈는데, 마치 던

바 양이 직접 범행 장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었네. 그런데 그녀는 그 쪽지가 발견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손에 그것을 꼭 쥐고 있는 바람에 일을 다소 지나치게 만들고 말았지. 사실 이것만 보았어도 나는 훨씬 더 일찍 의심을 품었어야 했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편의 리볼버 중 하나를 집어 들었네. 자네도 보았다시피 그 집에는 무기가 아주 많았지. 그녀는 그 총을 자신이 쓸 용도로 챙겨 두었네. 그리고 그날 아침, 총구 하나를 발사해 비운 뒤 비슷한 총을 던바 양의 옷장에 숨겨 두었지. 총알 한 발을 발사하는 일쯤은 숲속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후 그녀는 다리로 내려갔네. 그곳에서 무기를 처리하기 위해 그 지극히 정교한 방법을 고안해 두었던 거지. 던바 양이 나타나자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증오를 쏟아냈고, 던바 양이 듣지 못할 곳으로 물러난 뒤 마침내 그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네. 이제 모든 고리가 제자리를 찾았으니 사슬이 완성되었군. 신문에서는 왜 처음부터 못을 훑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일이 다 벌어진 뒤에야 아는 체하기란 쉬운 법이고, 어쨌든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갈대 가득한 호수를 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자, 왓슨, 우리는 놀라운 여성을 도왔고, 동시에 가공할 만한 남성도 도왔네. 만약 앞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그럴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네만—금융계는 닐 깁슨 씨가 우리네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슬픔이라는 교실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걸세."

8

기어다니는 남자

기어다니는 남자

셜록 홈즈는 프레스버리 교수와 관련된 기이한 사실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 약 20년 전,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런던의 학술계에까지 파장을 일으켰던 그 불쾌한 소문들을 단번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몇 가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에,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은 내 친구의 모험담이 가득 담긴 양철 상자 속에 봉인된 채 남아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홈즈가 은퇴하기 직전에 맡았던 마지막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허락을 받았다. 다만 이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신중함과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1903년 9월 초순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홈즈로부터 간결한 메시지 한 통을 받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시간이 되면 즉시 오게. 안 된다 해도 어쨌든 오게나. —S.H." 당시 우리 사이의 관계는 꽤나 독특했다. 홈즈는 습관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습관은 매우 좁고도 집

중적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그의 수많은 습관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있어 바이올린이나 셰그 담배, 오래된 검은 파이프, 색인용 장부 같은 존재였다. 어쩌면 이보다 덜 용서받을 만한 것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본격적인 사건이 터져서 그의 신경을 믿고 의지할 동료가 필요할 때면, 나의 역할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다른 쓰임새도 있었다. 나는 그의 정신을 갈고닦는 숫돌이었다. 나는 그에게 자극을 주었다. 홈즈는 내 앞에서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을 즐겼다. 사실 그가 하는 말들을 나에게 건네는 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 말들은 차라리 그의 침대에 대고 하는 말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습관이 들어 있었고, 내가 그 말을 기록하거나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다. 만약 나의 다소 느릿하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그를 짜증 나게 한다면, 그 짜증조차도 홈즈의 불꽃 같은 직관과 통찰이 더욱 선명하고 빠르게 번뜩이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 동맹에서 내가 맡은 미천한 역할이었다.

베이커가에 도착했을 때, 홈즈는 안락의자에 무릎을 세워 끌어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입에는 파이프를 물고 미간에는 깊은 고민의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분명 골치 아픈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 홈즈는 손을 휘저어 내 낡은 안락의자를 가리켰을 뿐, 그 후 30분 동안은 내가 왔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상념에서 깨어난 그는, 특유의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한때 나의 집이기도 했던 이곳으로 돌아온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여보게, 왓슨. 내가 잠시 딴생각에 잠겨 있더라도 이해해주게나.” 홈즈가 말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꽤 기묘한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네. 그 사실들을 접하고 나니,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추측해 볼 만한 점들이 떠오르더군. 탐정 업무에서 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짧은 논문을 하나 써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네.”

"하지만 홈즈, 그건 분명 이미 연구된 분야 아니오?" 내가 말했다. "블러드하운드나 추적견 같은 것들 말이오……."

“아니, 아니네, 왓슨. 그쪽 문제는 당연히 뻔한 사실이지. 하지만 훨씬 더 미묘한 다른 측면이 또 있네. 자네가 그 자극적인 필치로 ‘구리너도밤나무’ 사건과 엮어서 썼던 그 사건을 기억하나? 그때 나는 아이의 심리를 관찰함으로써, 아주 거만하고 점잖기까지 한 그 아버지가 사실은 범죄적인 습성을 지녔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었지.”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한 내 생각도 이와 비슷하네. 개는 그 집안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한다네. 침울한 분위기의 집에서 활기 넘치는 개를 보거나, 화목한 집에서 슬픈 표정의 개를 본 적이 있는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사람 곁에는 사나운 개가 있고, 위험한 사람 곁에는 위험한 개가 있기 마련이지. 그리고 개들의 일시적인 기분 변화는 그 주인들의 변덕스러운 기분을 그대로 투영하기도 한다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홈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지스럽군." 내가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파이프에 담배를 다시 채우고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방금 한 말은 지금 조사 중인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선가 실마리 하나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실마리가 될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의 충직한 사냥개 로이가, 왜 주인인 교수를 물려고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실망감을 느끼며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고작 이런 사소한 질문을 하려고 나를 업무 중에 불러낸 것이란 말인가? 홈즈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여전하시군요, 왓슨!" 홈즈가 말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 중대한 문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군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잖고 연로한 철학자가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프레스버리 교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겠지요? 캠퍼드 출신의 유명한 생리학자 아닙니까? 평생을 충직한 사냥개와 함께해 온 그런 사람이, 어째서 자기 집 개에게 두 번이나 공격을 당한 걸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가 아픕니다."

"글쎄, 그 점은 고려해 봐야겠지. 하지만 그놈은 다른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 주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딱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고 말이야. 기묘하군, 왓슨. 아주 기묘해. 그런데 젊은 베넷

씨가 예정보다 일찍 왔군. 저게 그가 누른 초인종 소리라면 말이야. 그가 오기 전에 자네와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말이지."

계단을 오르는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이어졌다. 잠시 후 새로운 의뢰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옷차림은 세련되고 품위가 넘쳤지만, 몸가짐에는 세상 물정에 밝은 신사의 여유보다는 학구적인 학생 특유의 수줍음이 묻어났다. 그는 홈즈와 악수를 나눈 뒤, 약간 놀란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 이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제가 프레스버리 교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려해 주십시오. 제삼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제 입장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베넷 씨. 왓슨 박사는 입이 아주 무거운 사람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제게 조력자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일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홈즈 씨.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왓슨,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네도 충분히 이해할 걸세. 이 신사, 트레버 베넷 씨는 위대한 과학자의 전문 조수라네. 그 과학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그의 외동딸과 약혼한 사이이기도 하지. 그러니

교수가 그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충성심은 이 기이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장 잘 증명될 수 있을 것이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홈즈 씨. 그것이 제 유일한 목적이니까요. 왓슨 박사님도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었네."

"그럼 새로운 진전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군요."

"내가 직접 하겠네." 홈즈가 말했다. "사건의 경위를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야. 왓슨, 그 교수는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라네. 평생 학문에만 전념해 온 사람이지. 단 한 번의 추문도 없었네. 아내와 사별하고 에디스라는 딸 하나를 두고 있네. 내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정력적이고 확신에 찬, 어쩌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겠군.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상황이 이랬다네."

그렇게 그의 평온했던 삶의 흐름이 끊기고 말았다. 그는 예순한 살이었지만, 비교해부학 교수직을 함께 맡고 있는 동료, 모피 교수의 딸과 약혼했다. 내가 알기로 그것은 노신사가 이성적으로 구애한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청춘의 격정적인 열망에 가까웠다. 그보다 더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여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인

인 앨리스 모피는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완벽한 처녀였기에, 교수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교수 본인의 가족들로부터 온전한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

"그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문객이 말했다.

"정확합니다. 지나치게 과하고, 다소 폭력적이며 부자연스럽기까지 하죠. 하지만 프레스버리 교수는 부유했기에, 아버지 쪽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반면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청혼하려는 후보가 여럿 있었거든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교수보다 조건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이만큼은 훨씬 적절했습니다. 그 소녀는 교수의 괴팍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직 나이 차이만이 걸림돌이었을 뿐입니다."

이 무렵, 프레스버리 교수의 평온한 일상에 갑작스러운 의문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는 전례 없는 행동을 보였다. 집을 나서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기색도 내비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보름 동안 자리를 비웠고, 돌아왔을 때는 여행의 피로가 역력한 모습이었다. 평소 누구보다 솔직한 성격이었음에도,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연히도 우리의 의뢰인인 베넷 씨가 프라하에서 온 동창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다. 그 편지에는 프라하에서 프레스버리 교수를 보게 되어 반가웠으나, 아쉽게도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교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은 오직 이 편지를 통해서뿐이었다.

"이제 핵심에 다다랐군요. 그 시점부터 교수의 모습에 기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은밀하고 교활해졌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마치 어떤 그림자가 그의 고결한 인품을 잠식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지적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강의 또한 예전처럼 눈부셨지요. 하지만 늘 무언가 새로운 것, 불길하고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를 지극히 아꼈던 딸은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쓰고 있는 듯한 이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몇 번이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생님께서도 같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자, 베넷 씨. 이제 그 편지들에 얽힌 사건을 당신의 말로 직접 들려주십시오."

"왓슨 박사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수는 저에게 숨기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아들이나 남동생이었다 해도, 그만큼 완벽하게 신뢰를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의 비서로서 저는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서류를 처리했고, 편지를 개봉하여 분류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돌아온 직후,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오는 편지 중 우표 아래에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편지는 반드시 그가 직접 확인해야 하니 따로 빼두라는 지시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편지 몇 통이 제 손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E.C.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고,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쓴 듯한 악필이었죠. 만약 그가 그 편지들에 답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답장만큼은 제 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모아두는 편지 바구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 맞습니다. 그 상자 말이죠. 교수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독일에서나 볼 법한 기묘한 조각이 새겨진 물건이었는데, 그가 유럽 대륙을 여행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유일한 단서였죠. 그는 그 상자를 자신의 의료 기구 보관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캐슐라를 찾다가 그 상자를 집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무척 화를 냈고,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를 아주 거칠게 꾸짖었습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저 실수로 상자를 건드린 것뿐이라고 설명하려 애썼지만, 저녁 내내 그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고 그 일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응어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베넷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날은 7월 2일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증인이십니다." 홈즈가 말했다. "적어 두신 날짜들 중 몇 개는 나중에 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방법론을 저는 저의 위대한 스승께 배웠습니다. 교수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순간부터, 저는 그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느꼈지요. 그래서 여기 기록해 둔 바로는, 바로 그날, 7월 2일에 교수가 서재에서 나와 홀로 들어서던 순간 로이가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7월 11일에도 같은 종류의 소동이 있었고, 7월 20일에도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로이를 마구간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이

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다정한 동물이었는데 말이지요. 아, 제가 너무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넷 씨는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홈즈가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했기 때문이다. 홈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멍하니 천장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었다.

"기묘하군요! 정말 기묘합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베넷 씨, 이 세부 사항들은 제게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존의 사실들은 충분히 짚어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방문객의 유쾌하고 밝던 얼굴이 어떤 암울한 기억에 사로잡힌 듯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말씀드린 일은 그저께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새벽 2시쯤 잠이 오지 않아 누워 있는데, 복도 쪽에서 둔탁하고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을 살폈지요. 아,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교수는 복도 끝방에서 잠을 잡니다만……"

"날짜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은 이토록 무관한 방해를 받은 것에 분명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그날은 그저께 밤, 그러니까 9월 4일이었다고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계속하시게.” 그가 말했다.

"그는 복도 끝방에서 잠을 자는데, 계단으로 가려면 반드시 제 방문 앞을 지나야만 합니다. 홈즈 씨,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이웃들만큼은 담력이 센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컴컴했고, 중간쯤에 있는 창문 하나에서 새어 나오는 빛줄기만이 바닥에 작은 빛 덩어리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 복도를 따라 무언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둡고 몸을 잔뜩 웅크린 무언가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것이 빛 속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홈즈 씨, 그는 기어오고 있었어요. 기어오고 있었다고요! 손과 무릎을 짚은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손과 발을 짚고 얼굴을 두 손 사이에 파묻은 채 움직였다고 하는 게 맞겠군요. 그런데도 아주 능숙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린 탓에, 그가 제 문 앞까지 다다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도와드릴까 하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정말 기괴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아주 험악한 욕설을 내뱉고는, 저를 지나쳐 계단 아래로 서둘러 내려가 버렸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려 보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분명 날이 밝은 뒤였을 겁니다."

“자,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홈즈가 물었다. 마치 희귀한 표본을 내보이는 병리학자 같은 태도였다.

"요통일지도 모르겠군. 심한 통증이 찾아오면 사람 걸음걸이가 딱 저렇게 변하곤 하지. 정말이지 신경질이 날 만한 상황이야."

"좋아, 왓슨! 자네는 언제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군. 하지만 요통 때문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네. 그가 순식간에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섰으니까 말이야."

"그의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베넷이 말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봐왔던 모습보다 훨씬 더 정정할 정도지요. 하지만 홈즈 씨,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왠지 모르게 재앙을 향해 떠밀려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에디스 양, 그러니까 프레스버리 양도 저와 같은 심정입니다.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입니다."

"분명 아주 기묘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왓슨?"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말했다. "이 사건은 정신과 의사가 맡아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그 노신분은 연애 문제로 인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 열병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외여행까지 떠나셨던 거고요. 편지들과 상자는 아마 다른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대출 증서나 주식 증권 같은 것 말입니다."

"그 늑대 사냥개도 분명 그 금전적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야. 아니, 아니네, 왓슨. 이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라네만……."

셜록 홈즈가 막 무엇을 제안하려 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방 안으로 안내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베넷 씨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그녀가 내민 손을 맞잡으려 두 팔을 뻗으며 급히 달려 나갔다.

"에디스, 여보! 별일 없는 거지?"

"당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 잭,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곳에 혼자 남겨지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홈즈 씨,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가씨입니다. 제 약혼녀예요."

"우리도 서서히 그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지, 안 그런가, 왓슨?"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프레스버리 양,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생겨서 저희에게 알려주러 오신 것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새로 찾아온 손님은 전형적인 영국 미인형의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녀는 베넷 씨의 옆자리에 앉으며 홈즈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베넷 씨가 호텔을 비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이곳에 와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홈즈 씨를 찾아가 상담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긴 했지요. 하지만, 오, 홈즈 씨. 제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라도 좀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프레스버리 양, 희망은 있습니다만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불분명하군요. 아마 당신이 들려줄 이야기가 이 사건을 밝힐 새로운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이었어요, 홈즈 씨. 그는 하루 종일 아주 이상한 상태였죠. 분명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기묘한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살고 있거든요.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제 곁에 있던 건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겉모습은 분명 아버지였지만, 그 속은 정말 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밤중에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불쌍한 로이, 지금은 마구간 근처에 묶어 두었습니다. 저는 항상 방문을 잠그고 잡니다. 잭이—아니, 베넷 씨가 말해주겠지만—우리 모두는 언제든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제 방은 2층에 있습니다. 마침 창문의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었고, 밖에는 밝은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이 들어오는 사각형 모양의 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개의 광기 어린 짖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의 얼굴이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홈즈 씨,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하마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은 창유리에 바짝 붙어 있었고, 한 손은 마치 창문을 밀어 올리

려는 듯 들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 창문이 열렸더라 그랬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홈즈 씨,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환각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 얼굴을 마주한 채 마비된 듯 멍하니 바라보던 시간이 20초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얼굴이 사라졌지만, 저는 차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저는 몸을 떨며 차갑게 식은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님은 평소처럼 날카롭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셨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런던에 오게 된 이유를 대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프레스버리 양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홈즈의 얼굴에는 명백한 놀라움이 스쳤다.

"아가씨, 방이 2층에 있다고 하셨지요. 혹시 정원에 긴 사다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홈즈 씨. 바로 그 점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창문에 다다를 방법이 전혀 없는데도, 그는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날짜가 9월 5일이라니." 홈즈가 말했다. "그 점이 상황을 확실히 복잡하게 만드는군."

이번에는 젊은 숙녀가 놀란 기색을 보였다. "홈즈 씨, 벌써 두 번째예요. 날짜를 언급하시는 건 말이에요." 베넷이 말했다. "그 날짜가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가진 자료가 충분하지 않군요."

"혹시 정신 이상과 달의 위상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장담컨대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입니다. 일단 수첩을 제게 맡겨 주시면 제가 날짜들을 확인해 보죠. 자, 왓슨,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주 명확해진 것 같군. 이 숙녀분은 자신의 아버지가 특정 날짜에 일어난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네. 나는 그녀의 직관을 전적으로 신뢰하네. 그러니 우리는 마치 그날로 약속을 잡은 것처럼 그를 찾아가기로 하세. 그러면 그는 자신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그를 가까이서 면밀히 관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걸세.”

"아주 좋군요." 베넷 씨가 말했다. "하지만 미리 경고해 두겠습니다. 그 교수는 때때로 성미가 까다롭고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즉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가설이 맞다면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죠. 베넷 씨, 내일이면 당신은 분명 캠포드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곳에 '체커스'라는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포트 와인 맛이 제법 훌륭하고 침구류도 아주 깨끗한 곳이었죠. 왓슨, 아마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머물 곳은 그리 유쾌한 장소는 아닐 것 같군."

월요일 아침, 우리는 그 유명한 대학 도시로 향했다. 떠날 곳이 없던 홈즈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진료를 보던 내게는 이 여정을 위해 정신없이 계획을 세우고 서둘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다. 홈즈는 그가 미리 말해두었던 오래된 여관에 짐을 풀고 나서야 비로소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왓슨, 점심 식사 직전에 교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그는 11시에 강의를 하니, 집에 돌아오면 마침 휴식 시간일 거야."

"우리가 무슨 구실로 찾아간단 말인가?"

홈즈는 자신의 수첩을 힐끗 쳐다보았다.

8월 26일에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그가 그런 시기에 무엇을 하는지 기억이 다소 가물가물하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우리가 약속을 잡고 그곳에 갔다고 우긴다면, 홈즈도 감히 우리 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네는 이 일을 밀어붙일 만큼 뻔뻔한 배짱이 있는가?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겠군."

"훌륭해, 왓슨! '부지런한 벌'과 '엑셀시오르'를 혼합한 것이군. '우리는 그저 노력할 뿐이다'라, 이 회사의 좌우명이 아주 마음에 들어. 현지인 중 친절한 사람을 만난다면 분명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거야."

그렇게 만난 친절한 현지인 한 사람이 멋진 한섬 마차 뒤편 마부석에 앉아 우리를 태우고는, 오래된 대학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달렸다. 마차는 나무가 늘어선 진입로로 꺾어 들어갔고, 마침내 잔디

밭에 둘러싸인 채 보랏빛 등나무꽃이 만발한 매력적인 저택 앞에 멈춰 섰다. 프레스버리 교수의 저택은 안락함을 넘어 사치스러움이 느껴질 만큼 풍요로웠다. 우리가 마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앞창문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머리가 나타났다. 덥수룩한 눈썹 아래로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쓴 날카로운 눈동자가 우리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후 우리는 그의 서재에 들어섰고, 그 기묘한 행보로 우리를 런던에서 이곳까지 불러들인 신비로운 과학자와 마주했다. 그는 행동이나 외양에서 괴짜 같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풍채가 좋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는 키가 크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프록코트를 입은 모습에서는 강연자에게 필요한 품위가 느껴졌다. 무엇보다 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 눈은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영악함에 가까울 정도로 명석했다.

그는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자, 어서 앉으시지요, 신사 여러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홈즈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교수님, 바로 그 질문을 제가 막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입니다, 선생님!"

“아마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캠포드의 프레스버리 교수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오, 정말 그렇군요!” 그 강렬한 회색 눈동자에서 악의 어린 빛이 번뜩이는 듯했다. “그런 얘길 들으셨다, 이 말이지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워낙 비밀스러운 사안이라서 말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라면 별다른 해는 없을 겁니다.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쳐 보고 싶군요.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필적이나 편지, 혹은 전보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설마 내가 당신을 불러들였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편이 좋겠군." 홈즈가 말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네." 교수가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자네 도움 없이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벨 앞으로 걸어갔다. 런던에 있는 우리 친구, 베넷 씨가 벨 소리를 듣고 응답했다.

"들어오게, 베넷 씨. 이 두 신사분은 자신이 호출되었다고 생각해서 런던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네. 자네가 내 모든 서신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 혹시 홈즈라는 이름으로 온 편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게."

"아닙니다, 선생님." 베넷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결정적인 증거로군." 교수가 내 동료를 분노 섞인 눈빛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자, 선생." 그는 두 손을 탁자 위에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의 입장이 아주 의심스럽구려."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불필요하게 끼어들어 결례를 범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걸로는 턱도 없습니다, 홈즈 씨!" 노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악의가 가득했다. 그는 말을 내뱉으며 우리와 문 사이를 가로막아 섰다. 그러고는 격분한 기색으로 두 손을 우리를 향해 휘둘렀다.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소?" 노인의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졌고, 그는 이성을 잃은 분노에 휩싸여 히죽거리며 횡설수설했다. 만약 베넷 씨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우며 그 방을 빠져나와야만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교수님, 제발 부탁입니다!" 그가 외쳤다. "교수님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대학에 닥칠 스캔들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홈즈 씨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께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라 불러야 할 그 남자는 뾰루퉁한 얼굴로 문까지 가는 길을 터주었다. 우리는 어서 집 밖으로 나와 나무가 늘어선 한적한 진입로에 들어설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홈즈는 이번 소동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었다.

“우리 학식 높은 친구의 신경이 좀 예민해진 모양이군.” 그가 말했다. “우리가 불쑥 끼어든 것이 다소 무례했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덕분에 내가 원했던 직접적인 접촉은 이뤄냈으니 다행이야. 그런데 이런, 왓슨, 그자가 분명 우리 뒤를 쫓고 있어. 악당이 여전히 우리를 추격 중이라네.”

뒤편에서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다행히도 진입로의 굽이진 길을 돌아 나타난 이는 그 위압적인 교수가 아니라 그의 조수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홈즈 씨.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직업적 경험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그가 이토록 위험한 기색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불길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어요. 왜 그의 딸과 제가 이토록 겁에 질려 있는지 이제는 이해하시겠지요.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아주 또렷한 상태입니다."

“너무 명확하군!” 홈즈가 말했다. “그게 내 실수였어. 그의 기억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게 분명해졌어. 그나저나, 출발하기 전에 프레스버리 양의 방 창문부터 좀 볼 수 있을까?”

베넷 씨가 관목들을 헤치고 나아가자, 저택의 옆면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 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예요."

“세상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아래쪽에는 덩굴 식물이 있고 위쪽에는 수도관이 있어서, 발을 디딜 곳이 좀 있을 겁니다.”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넷 씨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명 위험천만한 모험이 될 겁니다."

“홈즈 씨,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가 편지를 보낸 런던에 있는 그 남자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편지를 쓴 모양인데, 흡수지를 확인해서 알아냈습니다. 신뢰받는 비서로서 참으로 품위 없는 행동입니다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홈즈는 종이를 훑어보고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도락이라, 참으로 기묘한 이름이군요. 슬라브 계통의 이름이겠지요. 뭐, 어찌 됐든 이 사건의 사슬을 잇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베넷 씨, 우리는 오늘 오후에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더 머물러 본들 얻을 이득이 없으니까요. 교수를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를 구금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직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베넷 씨,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곧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제 착각이 아니라면 다음 주 화요일이 고비가 될 것 같군요. 그날 우리는 분명 캠포드에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 프레스버리 양이 체류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좋겠군요.”

"그건 간단한 일이지요."

"그럼 모든 위험이 지나갔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를 머물게 합시다. 그동안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절대로 그의 앞길을 막지 마세요. 그가 기분만 좋다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릴 겁니다."

“저기 있습니다!” 베넷이 깜짝 놀라 속삭였다. 나뭇가지 사이를 살피자, 키가 크고 곧은 체격의 남자가 홀 문에서 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인 채 양손을 앞을 향해 곧게 흔들며,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있었다. 비서가 마지막으로 손을 한 번 흔들고는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곧이어 그는 고용주에게 돌아갔고, 두 사람은 무언가 활기차고 흥분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으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노신사께서 이미 앞뒤 정황을 다 맞추어 보고 계신 것 같군."

호텔로 향하는 길에 홈즈가 말했다.

"잠깐 뵈었을 때 느낀 거지만, 아주 명석하고 논리적인 분이더라고. 성격이 불같으시긴 하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

지. 형사들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심지어 자신의 집 안사람들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니까 말이야. 내 짐작건대, 친구인 베넷은 꽤나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네."

가는 길에 홈즈는 우체국에 들러 전보를 한 통 보냈다. 답신은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 홈즈는 내 쪽으로 전보를 휙 던졌다.

"커머셜 로드를 방문하여 도락을 만났음. 매너가 좋고 보헤미안 기질이 있는 노인임. 큰 잡화점을 운영 중임. — 머서."

"머서는 당신이 떠난 이후에 온 사람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나의 만능 조수죠. 우리 교수가 그토록 비밀스럽게 서신을 주고받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자의 국적을 보니 프라하 방문 건과 연결되는군요."

"무언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예를 들어, 화가 난 울프하운드와 보헤미아 방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혹은 그 두 사건이 밤중에 복도를 기어 다니는 남자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말한 날짜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군요."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비볐다. 당시 우리는 그 오래된 호텔의 고풍스러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 탁자 위에는 홈즈가 이전에 말했던 그 유명한 빈티지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자, 우선 날짜부터 살펴봅시다."

그는 손가락 끝을 맞대고 마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처럼 엄숙한 태도로 말했다.

"이 유능한 청년의 일기를 보면 7월 2일에 첫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9일 간격으로 사건이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예외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마지막 사건은 9월 3일이었고, 이는 앞선 8월 26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세, 왓슨. 교수는 9일마다 한 번씩 일시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강력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 약물 때문에 그의 본래 폭력적인 성정이 더욱 심해지는 걸세. 그는 프라하에 머물 때 이 약물을 복용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런던에 있는 보헤미아 중개인을 통해 약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지. 이 모든 정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왓슨!"

"하지만 그 개는요? 창문에 나타난 얼굴과 복도에서 기어다니던 남자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시작이군.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 같네. 그동안은 베넷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마을의 정취나 만끽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

아침이 되자 베넷 씨가 최신 소식을 전하러 우리를 찾아왔다. 홈즈의 예상대로, 그에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교수는 우리가 이곳에 머물게 된 원인이 그에게 있다고 딱 잘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거칠고 무례한 말투를 내뱉으며 분명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특유의 명석한 강의를 펼쳤다.

"그 이상한 발작들만 빼면 말입니다." 베넷 씨가 말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때보다도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두뇌 회전도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저는 바쁜 몸이고, 왓슨 박사도 돌봐야 할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 그때까지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저도 놀랄 일이지요. 그사이에는 무슨 일이 생기든 저희에게 계속 알려주십시오."

그 후 며칠 동안 친구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홈즈로부터 짧은 쪽지 한 통이 날아왔다. 다음 날 기차역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캠퍼드(Camford)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홈즈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것이 평온했다. 교수의 저택은 아무런 소란 없이 평화로웠고, 교수의 행동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예전에 머물던 '체커스(Chequers)' 숙소로 찾아온 베넷 씨도 우리에게 똑같은 보고를 했다.

"오늘 런던에서 서신을 주고받는 상대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지 한 통과 작은 꾸러미 하나가 왔더군요. 둘 다 우표 아래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경고였지요.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르겠군요."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다. "자, 베넷 씨, 제 생각에는 오늘 밤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추론이 맞다면, 이제 사건을 정점으로 몰아붙일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넷 씨는 밤을 지새우며 경계를 서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방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방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뒤쫓아야 합니다. 왓슨 박사와 저는 멀지 않은 곳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작은 상자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중시계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사가 그 방향으로 향해야 할 것 같군요. 최악의 경우라도 자물쇠를 부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그곳에 건장한 일꾼이 더 있습니까?"

"마크페일이라는 마부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잠을 잡니까?"

"마구간 위쪽이야."

"어쩌면 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다시 뵙게 될 것 같군요."

교수의 저택 현관문 바로 맞은편, 덤불 사이에 자리를 잡은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날씨는 맑았으나 쌀쌀해서, 우리는 두툼한 오버코트를 입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흘러가면서, 반달을 때때로 가렸다. 만약 우리가 품은 기대와 흥분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기이한 사건의 연쇄가 이제 막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동료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 밤샘 감시는 참으로 암울했을 것이다.

"만약 9일 주기가 확실하다면, 오늘 밤 교수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될 걸세." 홈즈가 말했다. "그의 증상이 프라하를 방문한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점, 그가 런던에 있는 보헤미아 상인과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상인이 아마도 프라하의 누군가를 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그가 바로 오늘 그 상인으로부터 꾸러미를 받았다는 점까지. 이 모든 사실이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네. 그가 무엇을, 왜 복용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프라하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점만큼은 아주 명확해. 그는 9일 주기를 조절하는 특정한 지침에 따라 그것을 복용하고 있네. 내가 처음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점이었지. 하지만 그의 증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야. 자네, 그의 손가락 마디를 보았나?"

나는 모른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두껍고 굳은살이 박여 있군. 내 경험상 이런 형태는 처음이야. 왓슨, 손부터 먼저 살피게. 그다음엔 소맷단, 바지 무릎, 그리고 장화 순이야. 아주 기묘한 손가락 마디들이군. 이건 오직 그가 이동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어. 바로——"

홈즈는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오, 왓슨, 왓슨! 내가 이토록 바보 같았다니!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분명 사실이야. 모든 단서가 한곳을 가리키고 있어. 어떻게 이 생각들의 연결 고리를 놓칠 수 있었지? 저 손가락 마디들을 보고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개와 담쟁이덩굴까지! 이제 정말 내가 꿈꾸던 그 작은 농장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된 모양이야. 조심하게, 왓슨! 저기 온다!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등불 빛을 등진 실루엣 사이로 프레스버리 교수의 키 큰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가운 차림이었다. 문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지난번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몸을 곧게 세우고 있으면서도 양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이고 있었다.

그가 진입로 쪽으로 한 걸음 내딛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몸을 낮게 웅크리더니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해 기어가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넘치는 활력과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는 이따금씩 몸을 툭툭 튀어 오르며 나아갔다. 그는 집 외벽을 따라 움직

이더니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베넷은 홀 문을 통해 빠져나가 조용히 그의 뒤를 쫓았다.

"어서 오게, 왓슨, 어서!"

홈즈가 외쳤다. 우리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덤불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마침내 반달 빛이 쏟아지는 저택 반대편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도착했다.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벽 아래, 교수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우리가 그를 지켜보는 사이, 그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한 동작으로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능력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도 없이 나뭇가지 사이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거침없이 올라갔다. 양옆으로 펄럭이는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박쥐가 달빛 비치는 벽에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그는 달빛 아래 벽에 드리운 커다란 네모난 검은 얼룩처럼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유희에 흥미를 잃은 듯했다. 나뭇가지를 타고 내려온 그는 다시 예전처럼 몸을 웅크린 채 마구간 쪽으로 움직였다. 아까와 똑같이 기괴한 자세로 기어가는 모습이었다. 밖으로 나온 늑대 사냥개가 맹렬하게 짖어댔는데, 주인의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자 흥분은 극에 달했다. 개는 사슬이 끊어질 듯 몸을 뒤틀며 열광과 분노로 파르르 떨었다.

교수는 사냥개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아주 침착하게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온갖 방법으로 개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입로에서 자갈을 한 움큼 집어 개가 있는 얼굴 쪽으로 던졌고, 근처에서 주운 막대

기로 개를 쿡쿡 찔렀다. 또한 벌어진 입 바로 앞 몇 인치 거리에서 손을 휘저으며,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짐승의 분노를 부추겼다.

우리가 겪은 그 수많은 모험 중에서도 이토록 기이한 광경은 본 적이 없다. 마치 개구리처럼 바닥에 웅크린 채, 저토록 무표정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인물이라니. 그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수법을 동원해, 제 눈앞에서 날뛰며 광분하는 사냥개를 더욱 격렬한 분노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 끊어진 것은 사슬이 아니라 목줄이었다. 애초에 목이 굵은 뉴펀들랜드 종에 맞춰 제작된 탓에 목줄이 미끄러져 버린 것이다. 쇠붙이가 덜컥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음 순간 개와 사람이 뒤엉켜 바닥을 뒹굴었다. 개는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고, 사람은 공포에 질려 기괴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교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나운 짐승은 교수의 목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었고, 송곳니는 살점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우리가 달려가 둘을 떼어놓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우리에게도 위험한 작업이 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베넷이 나타나 목소리를 높이자 거대한 울프하운드는 즉시 진정되었다. 소란을 듣고 마구간 위층 방에서 잠을 자다 놀라 달려 나온 마부도 있었다.

"놀랍지도 않군요." 마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에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 개가 저 사람을 물어뜯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개를 제압한 뒤, 우리는 함께 교수를 방까지 옮겼다. 의학 학위가 있던 베넷이 내 곁에서 교수의 찢어진 목을 소독하고 처치하는 것을 도왔다. 날카로운 이빨이 경동맥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간 탓에 출혈이 심각했다. 나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주사했고, 삼십 분쯤 지나서야 고비는 넘겼다. 교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제야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필 수 있었다.

“일류 외과의를 불러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내가 말했다.

"제발, 안 됩니다!" 베넷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지금 이 스캔들은 우리 집안 내부의 문제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전해요. 하지만 이 일이 집 밖으로 새 나가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가 대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유럽 전역에 퍼진 명성, 그리고 그의 딸이 느낄 감정까지 생각해서라도 제발 참아 주십시오."

“그렇고말고요.” 홈즈가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로운 재량권이 생겼으니, 이 일을 우리끼리만 알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베넷 씨, 시계 줄에서 나온 그 열쇠 말입니다. 맥파일에게 환자를 잘 돌보라고 일러두고,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알려달라고 합시다. 자, 이제 교수의 그 의문의 상자 안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물건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서는 충분했다. 빈 약병 하나와 거의 다 비어가는 약병 하나, 주사기, 그리고 알아보기 힘든 외국어 필체로 휘

갈겨 쓴 편지 몇 통이 보였다. 봉투에 남은 흔적을 보니 비서의 일상을 방해했을 법한 것들이었다. 편지들은 모두 커머셜 로드에서 발송되었으며, 'A. 도락'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내용은 프레스버리 교수에게 새 약병을 보낸다는 송장이나,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중에는 필체가 훨씬 정갈하고, 프라하 소인이 찍힌 오스트리아 우표가 붙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군!"

홈즈가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며 외쳤다.

"존경하는 동료여,"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의 방문 이후 귀하의 사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네. 귀하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처치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싶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방식에는 분명 어떤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네.

"유인원의 혈청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할 수 있는 표본이 있었기에 검은얼굴랑구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물론 랑구르는 기어 다니거나 나무를 타는 습성이 있지만, 유인원은 직립 보행을 하니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가깝지요."

"이 과정이 성급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국에는 의뢰인이 한 명 더 있는데, 도락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한 나의 대리인입니다."

"매주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은 경의를 담아, H. 로웬슈타인 올림."

로웬슈타인! 그 이름을 듣자 신문에서 읽었던 단편적인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이름 모를 어느 과학자가 불로장생의 비결과 생명의 영약을 미지의 방식으로 찾으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프라하의 로웬슈타인! 경이로운 힘을 주는 혈청을 개발했지만, 그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학계에서 금기시된 인물이었다.

나는 기억나는 내용을 짧게 설명했다. 그러자 베넷은 선반에서 동물학 입문서를 한 권 꺼내 들었다.

"'랑구르,'" 그가 책을 읽어 내려갔다. "'히말라야 경사면에 서식하는 검은 얼굴의 거대한 원숭이로, 나무를 타는 원숭이 중 가장 크고 인간과 가장 닮았다.'"

책에는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자, 홈즈 씨, 당신 덕분에 악의 근원을 아주 명확하게 찾아낸 것 같군요."

“진짜 원인은 당연히 그 성급한 교수의 잘못된 사랑에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 사랑 때문에 교수는 스스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만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지요.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들면, 결국 그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고결한 인간이라도 정해진 운명의 길을 벗어나면 짐승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홈즈는 손에 든 유리병 속의 투명한 액체를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자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유포하는 독극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보하면 문제는 일단락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니까요. 거기엔 인류를 향한 아주 실질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왓슨, 생각해보게. 물질과 쾌락, 그리고 세속적인 것만을 쫓는 이들이 그 가치 없는 생명을 연장하려 든다면 어떻게 되겠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한 부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네. 결국 부적격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말 거야. 우리 불쌍한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오물통으로 변하겠나?”

갑자기 사색에 잠겨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행동파인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베넷 씨,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 사건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춰질 겁니다. 물론 개는 당신보다 훨씬 빨리 변화를 알아챘을 겁니다. 후각이 뒷받침되었을 테니까요. 로이가 공격한 것은 교수가 아니라 원숭이였습니다. 로이를 괴롭힌 것도 원숭이였고요. 그 짐승에게 나무를 타는 건 즐거움이었을 뿐이고, 그 놀이 끝에 우연히 젊은 여인의 창가까지 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왓슨, 시내로 나가는 이른 기차가 있네만, 기차를 타기 전에 '체커스'에서 차 한 잔 마실 시간은 충분할 것 같군.”

9

사자의 갈기

사자의 갈기

내 오랜 탐정 생활 동안 마주했던 그 어떤 사건만큼이나 난해하고 이례적인 문제가, 은퇴한 내게 찾아온 것도 모자라 마치 내 집 문 앞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이 사건은 내가 서식스의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 일어났다. 런던의 암울한 시절을 보내며 그토록 갈망해 왔던, 자연이 주는 평온한 삶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나의 충직한 친구 왓슨 박사는 내 시야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가끔 주말에 찾아오는 것이 그를 볼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니 이제 내가 직접 나의 기록자가 되어야만 한다. 아, 만약 그가 곁에 있었다면, 이 놀라운 사건과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거둔 나의 최종적인 승리를 얼마나 멋지게 기록해 주었을까!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나는 나만의 담백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밖에 없다. '사자 갈기'의 수수께끼를 좇으며 내 앞에 놓였던 그 험난한 여정의 발자취를, 나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아내면서 말이다.

내 별장은 다운스 언덕의 남쪽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어, 채널 해협의 광활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지점의 해안선은 온통 백악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으로 내려가려면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 하나에 의지해야 한다. 그 길은 길고도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다. 만조 때조차 길 끝에는 백 야드에 달하는 자갈과 조약돌 해변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곳곳에 굽이진 곳과 움푹 파인 곳이 있어, 밀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곳에는 근사한 천연 수영장이 만들어진다. 이 아름다운 해변은 양옆으로 수 마일씩 길게 이어지지만, 풀워스라는 작은 만과 마을이 나타나는 지점에서만 잠시 끊길 뿐이다.

내 집은 적막하기 그지없다. 늙은 가정부와 나, 그리고 벌 떼만이 이 넓은 저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해롤드 스택허스트가 운영하는 유명한 사립 교육 기관이 있다. '더 게이블스'라 불리는 그곳은 꽤 규모가 큰 곳으로, 여러 명의 교사가 상주하며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는 스무 명 남짓한 청년들이 머물고 있다. 스택허스트 본인도 젊은 시절에는 유명한 조정 선수였으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다. 내가 이 해안가로 이사 온 날부터 그는 줄곧 나와 친하게 지냈다. 그는 내가 별도의 초대 없이도 저녁에 언제든 편히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유일하게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1907년 7월 말 무렵,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해협에서 불어온 강풍은 파도를 해안 절벽 끝까지 밀어 올렸고, 조수가 바뀔 때면 절벽 아래에 커다란 웅덩이가 남을 정도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날 아침에는 바람이 잦아들어, 온 세상이 갓 씻어낸 듯 상쾌하고 싱그러웠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는 도저히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윽

한 공기를 만끽하려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밖으로 나섰다. 해변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을 따라 절벽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한참을 걷고 있을 때 뒤쪽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해럴드 스택허스트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정말이지 대단한 아침이군요, 홈즈 씨! 이런 날이면 밖에 나와 계실 줄 알았습니다."

"수영하러 가시는 모양이군요."

"또 예전처럼 장난을 치시는군요." 그는 불룩해진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맥퍼슨이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아마 그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군요."

피츠로이 맥퍼슨은 과학 담당 교사였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올곧은 청년이었으나, 류머티즘 열병을 앓은 뒤 심장병을 얻어 삶이 제약받는 처지였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운동선수였다. 몸에 너무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종목이라면 어떤 경기에서든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수영을 즐겼는데, 나 또한 수영을 즐기는 편이라 그와 함께 수영하러 나간 적이 많았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남자를 직접 목격했다. 길이 끝나는 절벽 끝으로 그의 머리가 보였다. 이어 그의 전신이 꼭대기에 나타났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두 손을 허공으로 치켜들더니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땅에 박고 쓰러졌다. 스택허스트와 나는 50야드쯤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그를 돌려 눕혔다.

그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다. 움푹 들어간 채 초점을 잃은 눈과 끔찍할 정도로 창백한 뺨을 보니 그 사실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 찰나의 순간, 그의 얼굴에 생기가 잠시 돌더니 무언가 경고하려는 듯 간절한 태도로 두세 마디 말을 내뱉었다. 발음은 뭉개져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비명처럼 터져 나온 마지막 말만큼은 내 귀에 분명히 들렸다. "사자의 갈기." 전혀 상관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그가 바닥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더니, 두 팔을 허공에 내저으며 옆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숨을 거두었다.

내 동료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지만, 짐작하시겠지만 나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임이 곧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버버리 오버코트와 바지, 그리고 끈을 매지 않은 캔버스화를 신은 차림이었다. 그가 쓰러지면서 어깨에 대충 걸치고 있던 버버리 코트가 흘러내렸고, 그의 몸이 드러났다. 우리는 경악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마치 가느다란 채찍으로 끔찍하게 매를 맞은 듯 짙은 붉은색 선들로 뒤덮여 있었다. 매질을 한 도구는 분명 유연한 것이었다. 길고 붉게 부어오른 채찍 자국이 어깨와 갈비뼈를 따라 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 아랫입술을 깨물었는지, 턱

을 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수척하고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내가 무릎을 굽히고 스택허스트가 시신 곁에 서 있을 때, 우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돌아보니 이언 머독이 우리 곁에 와 있었다. 머독은 그 학교의 수학 강사로, 키가 크고 피부가 검으며 마른 체격의 사내였다. 워낙 과묵하고 냉담한 성격이라 그와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무리수나 원뿔 곡선 같은 고차원의 추상적인 세계에만 파묻혀 사는 듯 보였다. 학생들은 그를 괴짜로 여겼고, 평소 같았으면 놀림감이 되었을 테지만 그에게는 묘하게 이질적인 기질이 흐르고 있었다. 그 기질은 칠흑 같은 눈동자와 검은 얼굴뿐만 아니라, 가끔 터져 나오는 맹렬한 분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번은 맥퍼슨의 작은 개가 그를 괴롭히자, 그는 그 짐승을 덥석 잡아채 유리창 너머로 내던져 버린 적도 있었다. 스택허스트가 그를 매우 유능한 교사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분명 그 자리에서 해고했을 법한 행동이었다. 지금 우리 곁에 나타난 이 사내가 바로 그런 기묘하고 복잡한 인물이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물론 개를 내던졌던 전례를 보면, 죽은 이와 그 사이에 별다른 유대감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었다.

"가엾기도 해라! 가엾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그와 함께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늦게 출발했습니다. 해변에는 전혀 가지 않았어요. ‘더 게이블즈’에서 곧장 왔단 말입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풀워스 경찰서로 서둘러 가시오. 가서 이 일을 즉시 보고하시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전속력으로 자리를 떴다. 나는 곧바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비극적인 상황에 망연자실한 스택허스트는 시신 곁을 지켰다.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산책로 꼭대기에서 해변 전체를 내려다보았으나, 멀리서 풀워스 마을을 향해 움직이는 두세 명의 검은 형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해변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나는 천천히 길을 따라 내려갔다.

길에는 백토와 섞인 점토나 부드러운 이회토가 깔려 있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온 흔적인 듯한 동일한 발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날 아침, 이 길을 통해 해변으로 내려간 사람은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한 지점에서는 손바닥을 펼친 듯한 자국이 보였는데, 손가락 방향이 경사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는 불행한 맥퍼슨이 올라가던 중에 넘어졌음을 의미했다. 또한 둥글게 파인 자국들도 있었는데, 이를 보아 그가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던 듯했다.

길 끝에는 썰물이 빠져나가며 남긴 커다란 웅덩이가 있었다. 맥퍼슨은 웅덩이 옆에서 옷을 벗은 모양이었다. 바위 위에 그의 수건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수건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마른 상태였으므로, 결국 그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딱딱한 자갈밭 사이를

뒤지던 중, 나는 모래가 조금 뭉쳐 있는 곳을 한두 번 발견했다. 그곳에는 그의 캔버스 신발 자국과 맨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맨발 자국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목욕할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었지만, 수건의 상태로 보아 실제로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문제는 명확히 드러났다. 내가 지금까지 마주한 사건 중 가장 기이한 사건이었다. 남자가 해변에 머문 시간은 길어야 15분 남짓이었다. 스택허스트가 '더 게이블즈'에서부터 그를 뒤쫓았으니, 그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남자는 목욕을 하러 가서 옷을 벗었다. 맨발로 남긴 발자국이 이를 증명했다. 그러다 갑자기 옷을 다시 급히 껴입었다. 옷매무새는 엉망이었고 단추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남자는 목욕을 마치지도, 적어도 몸을 말리지도 않은 채 돌아왔다.

그가 갑자기 행동을 바꾼 이유는 명확했다. 무언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고통에 겨워 입술이 뚫릴 정도로 고문을 당했고, 겨우 기어서 도망쳐 나와 죽음에 이를 정도의 기력만 남은 상태였다. 대체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물론 절벽 아래쪽에 작은 동굴이나 구석진 곳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낮게 뜬 태양 빛이 그곳들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어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없었다. 또한 해변 저 멀리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범행과 연관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맥퍼슨이 목욕하려 했던 넓은 석호가 그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바위까지 밀려들고 있었

다. 바다 위에는 두서너 척의 어선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떠 있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나중에 천천히 조사하면 될 일이었다.

조사할 방향은 여러 갈래였으나, 당장 뚜렷한 실마리가 보이는 곳은 없었다.

마침내 시신 곁으로 돌아갔을 때, 떠돌이 무리 몇 명이 그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스택허스트는 당연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 순경인 앤더슨이 이언 머독과 함께 막 도착했다. 앤더슨은 붉은 콧수염을 기른 거구의 사내로, 서식스 출신 특유의 느긋하고 묵직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 보여도, 그 속에는 상당한 상식을 갖춘 이들이 많은 법이다. 그는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주의 깊게 듣더니, 마침내 나를 따로 불러냈다.

"홈즈 씨,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큰 일이라서요. 만약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루이스에게서 그 소식을 듣게 되겠지요."

나는 그에게 즉시 상관과 의사를 불러오라고 조언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현장의 그 어떤 것도 옮기지 말고, 새로운 발자국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그사이 나는 죽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다. 손수건과 커다란 칼, 그리고 작은 접이식 명함 지갑이 나왔다. 명함 지갑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 순경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여자의 휘갈겨 쓴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꼭 갈게, 믿어도 좋아. — 모디." 언제,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마치 연인 사이의 밀회 약속처럼 보였다.

순경은 종이를 다시 명함 지갑에 넣고는, 버버리 코트 주머니에 다른 소지품들과 함께 넣어두었다. 더 이상 눈에 띄는 단서가 없었기에, 나는 먼저 절벽 아래를 철저히 수색하라고 지시한 뒤 아침 식사를 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두 시간쯤 지나 스택허스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시신을 검시가 열릴 장소인 '더 게이블즈'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꽤나 중대하고 확실한 것이었다. 내 예상대로 절벽 아래 작은 동굴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맥퍼슨의 책상에 있던 서류들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풀워스의 모드 벨라미라는 여성과 아주 친밀하게 주고받은 편지들이 여러 통 발견된 것이다. 우리는 그제야 그 쪽지가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경찰이 편지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제가 직접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이 심각한 연애 사건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그 끔찍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그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는 점 외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늘 해수욕을 하던 물웅덩이에서 약속을 잡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다.

“맥퍼슨과 함께 있지 않았던 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는 건 그저 순전히 우연일 뿐이야.” 그가 말했다.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스택허스트는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언 머독이 그들을 붙잡아 두었네." 그가 말했다. "그 친구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대수학 증명을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 가여운 친구, 이 일 때문에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그렇지 않았지요. 하지만 머독은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맥퍼슨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본래 성격이 그리 다정한 편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개를 학대한 일로 다툼이 있었다고 말해준 기억이 나는군요."

"그 일은 아주 잘 해결되었네."

"하지만 어쩌면, 앙심 같은 것이 남았을지도 모르겠군."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진정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 그 소녀에 관한 문제를 파헤쳐 봐야겠군. 자네는 그 아이를 아나?"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네에서 제일가는 미인이지요. 홈즈, 정말이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눈

부신 미인입니다. 맥퍼슨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편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상황이 이 정도로까지 흘러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그녀는 풀워스의 모든 보트와 해수욕용 오두막을 소유한 노인, 톰 벨라미의 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법 재산이 있는 자산가가 되었지요. 현재는 그와 그의 아들 윌리엄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워스 마을로 걸어가서 그들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나?"

"무슨 구실로 말입니까?"

"오, 구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결국 이 불쌍한 사람이 스스로를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학대했을 리 없으니까요. 만약 그 상처를 입힌 것이 정말 채찍이 맞다면, 그 채찍 손잡이를 쥔 건 분명 누군가의 손이었을 겁니다. 이 외딴곳에서 그가 알고 지내는 이들은 분명 한정되어 있었을 테고요.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뒤쫓다 보면, 범행 동기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따라가다 보면 범인에게도 자연히 닿게 되겠지요."

우리가 목격한 비극이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않았더라도, 타임 향기가 감도는 다운스 언덕을 가로지르는 산책은 꽤 즐거웠을 것이다. 풀워스 마을은 만을 따라 반원형으로 굽어 내려간 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래된 마을 뒤편, 완만한 경사지에는 현대식 주택들이 몇 채 들어서 있었다. 스택허스트 씨가 나를 안내한 곳은 바로 그중 한 채였다.

"저곳이 벨라미가 말했던 '헤이븐'이야. 모퉁이에 탑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저 집 말이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치고는 꽤 근사하게 일궈냈군. 세상에, 저것 좀 봐!"

'더 헤이븐'의 정원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각진 체격에 다소 흐트러진 모습, 그 실루엣은 누가 보아도 틀림없었다. 수학자 이언 머독이었다. 우리는 잠시 후 길 위에서 그와 마주쳤다.

"안녕하신가!" 스택허스트가 인사를 건넸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묘하고 어두운 눈동자로 우리를 곁눈질했다. 그대로 우리를 지나쳐 가려던 찰나, 그의 상관이 그를 불러 세웠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가 물었다.

머독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전 선생님의 지휘를 받는 부하이며, 선생님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 선생님께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겪은 온갖 고초 때문인지 스택허스트의 신경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좀 더 기다려 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머독 씨, 지금 상황에서 그런 대답은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당신이 던진 질문 또한 아마 같은 범주에 속할지도 모르겠군요."

"자네의 그 불손한 태도를 눈감아준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네만, 분명히 말해두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가능한 한 빨리 자네의 앞날을 위해 새로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게."

"그럴 생각이었네. 오늘 나는 '더 게이블즈'를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으니까."

그는 성큼성큼 제 갈 길을 가버렸고, 스택허스트는 분노 서린 눈으로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정말이지 도저히 못 봐줄, 구제 불능인 인간 아닙니까?" 그가 외쳤다.

내 머릿속을 강렬하게 파고든 사실은 단 하나였다. 이언 머독 씨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날 탈출로를 마련하기 위해 첫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막연하고 모호했던 의구심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점차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벨라미 가를 방문하면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스택허스트는 마음을 가다듬었고, 우리는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벨라미 씨는 불타는 듯한 붉은 수염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몹시 화가 난 듯 보였는데, 곧 그의 얼굴도 머리카락만큼이나 붉게 달아올랐다.

“아닙니다, 선생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제 아들이—거실 구석에 앉아 있는, 험상궂고 침울한 표정의 건장한 청년을 가리키며—맥퍼슨 씨가 모드에게 보여준 태도가 모욕적이었다

는 점에 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결혼'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졌으며, 저희 둘 다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없기에 저희가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 아가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가 세상 어느 사교계 모임에 나간다 해도 단연 돋보일 것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터였다. 그토록 희귀한 꽃이 어찌 이런 뿌리에서, 이런 환경을 딛고 피어날 수 있었을까. 나는 늘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 왔기에 여성에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나, 그녀의 완벽하고도 선명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만큼은 직감할 수 있었다. 섬세한 피부색에 깃든 다운랜즈 언덕의 부드러운 생동감을 머금은 그 얼굴을 본다면, 그 어떤 젊은이라도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문을 밀치고 들어와 해럴드 스택허스트 앞에 눈을 크게 뜨고 강렬한 눈빛으로 서 있는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피츠로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자세한 내막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네 쪽의 다른 신사분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네." 아버지가 설명했다.

"내 누이가 이 일에 끼어들 이유는 전혀 없소." 젊은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누이가 그를 날카롭고 매섭게 쏘아보았다. "이건

내 일이야, 윌리엄. 제발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렴. 상황을 보니 분명 범죄가 일어난 게 맞다. 만약 내가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떠나간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란다."

그녀는 내 동료의 짧은 설명을 아주 침착하고 집중력 있게 경청했다. 그 모습에서 그녀가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강인한 성품까지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드 벨라미는 내 기억 속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도 놀라운 여인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나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모양인지, 이야기가 끝날 무렵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홈즈 씨.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하며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며 아버지와 오빠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낸 듯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런 문제에서는 여성의 직감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들'이라고 하셨군요.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맥퍼슨 씨를 잘 알기에 그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그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잠시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모드,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녀의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소리쳤다.

그녀는 속수무책이라는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곧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테니,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본래는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 논의의 과정을 함께 나누셔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죽은 이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 쪽지는 분명 검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겁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단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운 사연 같은 건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을 뿐이에요. 다만 비밀로 했던 건 피츠로이의 삼촌 때문이었죠.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삼촌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한다면 피츠로이가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잖습니까." 벨라미 씨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에 공감해 주셨더라면 말입니다."

"내 딸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남자들과 어울리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네."

“당신이 그를 미리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라면,” 그녀는 옷자락을 뒤적거리더니 구겨진 쪽지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화요일 해질 녘, 해변에 있는 옛 집에서 만나요. 그때가 내가 유일하게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F.M."

오늘은 화요일이었고, 나는 오늘 밤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종이를 뒤집어 보았다. "이건 우편으로 온 게 아니군요.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그 질문에는 답하고 싶지 않군요. 당신이 조사 중인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으나, 우리의 조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혼자에게 숨겨진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열렬히 흠모하던 남자가 여럿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했다.

"혹시 이언 머독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한때는 저도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츠로이와 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기이한 남자를 둘러싼 그림자가 내 눈에는 점점 더 뚜렷한 형체를 갖추어 가는 듯했다. 그의 행적을 반드시 조사해야 했다. 그의 방도 은밀히 수색해야만 했다. 스택허스트 역시 기꺼이 협력에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헤이븐'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며, 이 엉클어진 실타래의 한 끝을 이미 손에 쥐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검시 절차는 사건의 실마리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기되었다. 스택허스트는 부하 직원의 행방을 조심스럽게 수소문했고, 그의 방을 겉핥기식으로 수색하기도 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나 역시 물리적인 증거와 심리적인 정황을 모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았지만, 새로운 결론은 얻지 못했다. 내가 기록해 온 그 어떤 사건도 이토록 내 능력의 한계를 시험한 적은 없었다. 나의 상상력조차 이 미스터리의 해답을 그려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개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나의 옛날 가사도우미였다. 시골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 데 쓰는 그 기묘한 무선 통신기 덕분에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맥퍼슨 씨의 개에 관한 일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선생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다.

평소 그런 대화를 권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말만큼은 내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맥퍼슨 씨의 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선생님. 주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선생님,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놈은 상태가 아주 끔찍하게 나빠지더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더 게이블스' 저택의 젊은 신사 두 분이 그놈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변가에서 말입니다, 선생님. 바로 그 주인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 말은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막연한 직감이 머릿속을 스쳤다. 개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 아름답고 충직한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장소'라니! 왜 이 외딴 해변이 그 개에게 치명적인 곳이 되었단 말인가? 혹시 그 개 또한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원한 관계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직감은 아직 희미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몇 분 뒤, 나는 '더 게이블스'로 향했다. 그곳 서재에서 스택허스트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요청하자 그는 개를 발견했던 두 학생, 서드버리와 블런트를 불러오게 했다.

"맞습니다, 그것은 연못 바로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분명 죽은 주인이 남긴 흔적을 따라온 것이 분명합니다."

현관 매트 위에는 충직하고 작은 생명체인 에어데일 테리어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사체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툭 불거져 나왔으며 사지는 뒤틀려 있었다. 그 모습 구석구석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더 게이블스'에서 내려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거대한 절벽의 그림자가 수면 위로 검게 드리워져 있었다. 물결은 마치 납판처럼 둔탁한 빛을 내며 일렁였다. 주변은 적막했고, 머리 위를 선회하며 울부짖는 바닷새 두 마리 외에는 생명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주인의 수건이 놓여 있던 바위 주변 모래사장 위로 작은 개의 발자국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주변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여러분도 이런 악몽을 꾼 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찾고 있고 그것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손을 뻗어도 영원히 닿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말이다. 그 죽음의 현장에 홀로 서 있던 그날 저녁, 나의 심경이 바로 그러했다.

마침내 몸을 돌려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길 언덕 끝에 다다랐을 무렵, 마침내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토록 간절히, 그러나 헛되이 붙잡으려 애썼던 것이 번뜩이며 떠올랐다. 여러분도 잘 알 것이고,

왓슨이 허망하게 기록해 둔 바와 같이, 나는 과학적 체계는 없지만 내 업무에 요긴하게 쓰이는 잡다한 지식을 방대하게 쌓아두고 있다. 내 머릿속은 온갖 종류의 꾸러미들이 가득 쌓인 비좁은 창고와 같아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막연하게만 느낄 때가 많다. 이번 사건과 관련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아직은 모호했지만, 적어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터무니없고 믿기 힘든 가설이었으나, 그럼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다. 나는 이 가설을 철저히 검증해 보기로 했다.

내 작은 집에는 책으로 가득 찬 커다란 다락방이 하나 있다. 나는 한 시간 동안 그곳에 뛰어들어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한 시간 뒤, 나는 초콜릿색과 은색으로 장정된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다. 나는 희미하게 기억나던 장을 간절한 마음으로 펼쳤다. 그렇다, 그것은 참으로 억지스럽고 설득력 없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이어질 작업을 고대하며, 나는 늦은 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작업은 성가신 방해를 받았다. 아침 차를 겨우 한 잔 비우고 해변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서식스 경찰청의 바디 경위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침착하고 건실하며 소처럼 묵직한 인상의 사내였다. 사색에 잠긴 듯한 그의 눈동자가 지금은 매우 곤혹스러운 기색을 띠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당신의 풍부한 경험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자리이며,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맥퍼슨 사건 때문에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체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언 머독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그 사람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군요. 이런 고립된 상황이 주는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범위를 아주 좁게 좁힐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저지른 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오?"

그도 나와 같은 경로를 따라 단서를 수집한 모양이었다. 머독이라는 인물의 성격,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개와 관련된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불같은 성미, 그리고 과거에 맥퍼슨과 다퉜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그가 벨라미 양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머독이 불쾌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정황도 있었다. 그는 내가 찾아낸 점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새로운 단서는 없었다. 다만 머독이 떠날 채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듯하다는 점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이토록 많이 남겨둔 채 그를 놓아준다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장하고 무던한 성격의 그 남자는 마음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했다. "당신이 세운 가설에는 결정적인 허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날 아침, 그는 분명히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학생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맥퍼슨이 나타나고 불과 몇 분 뒤에, 그는 우리 뒤편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만큼이나 건장한 남자를 상대로, 혼자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처를 입힌 흉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채찍이나 유연한 형태의 회초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 흔적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왓슨 박사도 보았고요."

"하지만 렌즈를 사용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특이한 점들이 있더군요."

"그것들이 대체 무엇입니까, 홈즈 씨?"

나는 책상으로 걸어가 확대 인화한 사진 한 장을 꺼내 왔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대처합니다." 내가 설명했다.

"정말 철저하시군요, 홈즈 씨."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내가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어깨를 가로지르는 이 상처를 봅시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군요."

"분명히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 혈관이 터져서 생긴 핏자국이 하나 있고, 저기에도 또 하나 있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다른 팽진에서도 비슷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죠. 조만간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흔적을 남긴 것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만 있다면, 범인을 잡는 데 큰 진전이 있을 테니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만," 경찰관이 말했다. "만약 뜨겁게 달군 철사 그물을 등 위에 얹어 놓았다면, 이 선명한 점들은 그물코가 서로 교차한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지요."

"참으로 기발한 비유군요. 아니면, 작은 매듭이 단단하게 묶인 아주 뻣뻣한 채찍이라고 해두는 게 나을까요?"

"세상에, 홈즈 씨! 제 생각이 맞군요. 당신이 정답을 맞혔습니다."

“아니면 아주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죠, 바디 씨. 하지만 당신의 사건은 체포를 끌어내기엔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 유언도 있지 않습니까. ‘사자의 갈기’라고 말입니다.”

"이언이 과연——"

“그 점은 저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만약 두 번째 단어가 머독이라는 이름과 조금이라도 닮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분명히 ‘메인(Mane)’이라고 말한 게 확실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홈즈 씨?"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논의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군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한 시간 정도,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끝날 겁니다."

경위는 턱을 문지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홈즈 씨,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어쩌면 저 어선들 때문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벨라미와 그 덩치 큰 아들놈인가요? 그들이 맥퍼슨 씨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혹시 그들이 맥퍼슨 씨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는 저를 함부로 끌어내지 못하실 겁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경위님.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 낮 12시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던 중, 모든 것을 뒤엎는 거대한 방해가 일어났다. 그것은 파국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복도에서 허둥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이언 머독이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안색이 창백하고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차림 또한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뼈만 남은 손으로 가구를 움켜쥐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브랜디! 브랜디를 좀!"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치더니, 신음과 함께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의 뒤에는 스택허스트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숨을 헐떡였는데, 그 모습이 앞서가는 동행인만큼이나 정신이 없어 보였다.

"그래, 그래, 브랜디를 가져오게!" 그가 외쳤다. "사람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야.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조차 간신히 해냈단 말일세. 오는 길에 두 번이나 기절했으니 말이야."

독한 술을 반 잔 정도 들이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한쪽 팔로 몸을 일으키며 어깨에 걸치고 있던 코트를 휙 벗어 던졌다.

"제발, 신이시여! 기름이든, 아편이든, 모르핀이든 뭐라도 좀 가져오시오!"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 지독한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단 말이오!"

그 광경을 본 경위와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남자의 맨 어깨 위에는 붉게 부어오른 기이한 그물 모양의 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피츠로이 맥퍼슨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통증은 분명 끔찍한 수준이었고 단순히 한곳에 머무는 통증도 아니었다. 환자는 숨이 잠시 멎기도 했고, 얼굴은 검게 변했다. 그러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상태였다. 브랜디를 계속해서 목구멍으로 흘려 넣자, 약기운이 돌 때마다 환자는 간신히 생명의 불씨를 붙잡았다. 기이한 상처 부위에는 샐러드유를 듬뿍 적신 솜뭉치를 대어 통증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마침내 환자의 머리가 쿠션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기력이 다한 신체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활력을 쥐어짜 내며 겨우 버티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잠과 기절의 중간 상태였으나, 적어도 통증만은 잦아든 상태였다.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가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스택허스트는 돌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대체 무슨 일인가, 홈즈? 무슨 일이야?"

"그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해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쌍한 맥퍼슨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였죠. 만약 이분의 심장이 맥퍼슨처럼 약했다면, 지금쯤 살아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를 업고 올라오는 동안 몇 번이나 그가 숨을 거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게이블스'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일단 당신에게로 향했습니다."

"해변에서 그를 보았습니까?"

"절벽을 걷고 있는데 그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물가 근처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죠. 저는 급히 달려 내려가 그에게 옷을 걸쳐준 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홈즈. 당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이 마을에 내린 저주를 거두어 주십시오. 삶을 견디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군, 스택허스트. 지금 나와 함께 가세! 경위님도 어서 오시지요! 이 살인범을 당신들 손에 넘겨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의식을 잃은 남자를 우리 집 가사 도우미에게 맡겨둔 뒤, 우리 세 사람은 그 죽음의 석호로 내려갔다. 자갈밭 위에는 쓰러진 남자가 남겨둔 수건과 옷가지들이 작은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물가 가장

자리를 따라 걸었고, 동료들은 내 뒤로 일렬로 늘어서서 뒤따랐다. 웅덩이 대부분은 수심이 얕았으나, 해변이 움푹 파인 절벽 아래쪽은 4~5피트 정도로 깊었다. 수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곳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곳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물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벽 기슭에는 바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바위들을 따라 길을 안내하며 발밑의 깊은 물속을 간절한 눈빛으로 살폈다. 마침내 가장 깊고 잔잔한 웅덩이에 다다랐을 때, 내 눈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포착되었다. 나는 승리의 함성을 내질렀다.

"시아네아!" 내가 외쳤다. "시아네아! 저 사자 갈기를 보게!"

내가 가리킨 기묘한 물체는 정말로 사자의 갈기에서 뜯어낸 듯 뒤엉킨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것은 수면 아래 3피트 정도 되는 바위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노란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 줄기가 섞인, 기이하게 일렁이며 진동하는 털복숭이 생명체였다. 그것은 느릿하고 묵직하게 부풀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맥동하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해를 끼쳤어. 이제 그놈의 시대도 끝이다!” 내가 외쳤다. “스택허스트, 나를 도와주게! 저 살인마를 영원히 처단하자고.”

선반 바로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바위를 밀어냈고, 바위는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물결이 가라앉자, 바위가 아래쪽 선반 위에 안착한 모습이 보였다. 노란 막의 가장자리가 한쪽 끝에서 파닥거리는 것을 보니, 희생자가 바위 아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바위 밑바닥에서는 걸쭉하고

기름진 찌꺼기가 흘러나와 주변 물을 더럽히며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올랐다.

"이거 참,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경위가 외쳤다. "홈즈 씨, 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이 근방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런 건 생전 처음 봅니다. 이건 서식스 지방의 것이 아니에요."

"서식스에는 차라리 다행이군요." 내가 말했다. "남서쪽에서 불어온 강풍이 그 물건을 떠밀어 올린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두 분 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저 역시 바다에서 똑같은 위험을 마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두 분께도 들려드리지요."

서재에 도착했을 때, 머독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려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정신이 멍한 모습이었고, 때때로 밀려오는 격렬한 통증에 몸을 떨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그저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온몸을 꿰뚫는 듯했고, 가까스로 물가까지 도착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했다는 말뿐이었다.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나는 작은 책 한 권을 집어 들며 말했다. "영원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를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책이지요. 유명한 관찰가인 J. G. 우드가 쓴 『야외에서(Out of Doors)』라는 책입니다. 우드 본인도 이 사악한 생물과 접촉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기에, 아주 상세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악당의 정식 명칭은 '시아네아 카필라타(Cyanea Capillata)'입니다. 이놈은 코브라의 물림만큼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그 고통은 훨

씬 더 극심합니다. 여기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짧게 읽어 드리지요."

"만약 수영객이 황갈색 막과 섬유가 엉겨 붙은 둥근 덩어리를 보게 된다면, 마치 커다란 사자 갈기나 은박지를 한 움큼 쥐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독침을 가진 '시아네아 카필라타(Cyanea Capillata)'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불길한 지인이 이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될 수 있을까?

그는 켄트 해안에서 수영을 하던 중 그 괴물과 맞닥뜨렸던 경험을 이어서 들려주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그 생명체가 약 50피트 거리까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들을 뻗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치명적인 중심부로부터 그 반경 안에 들어온 이라면 누구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우드조차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 영향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수많은 실이 피부 위에 연한 선홍색 선을 만들어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아주 작은 점이나 농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달궈진 바늘이 신경을 타고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점 하나 하나마다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듯이, 국소적인 통증은 그 정교한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가슴을 관통하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고, 마치 총알에 맞은 것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맥박이 멎는 듯하더니, 이내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기세로 여섯일곱 번씩 요동쳤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비록 수영장처럼 좁고 잔잔한 물이 아니라, 파도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에 노출되었던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

다. 그는 그 일이 있은 뒤 자신의 얼굴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하더군요.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진 데다, 주름이 지고 쪼글쪼글하게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는 브랜디 한 병을 통째로 들이켰는데, 다행히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진 듯합니다. 경위님, 여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안에 불쌍한 맥퍼슨에게 일어난 비극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의심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덕분에 제 결백도 증명되었군요." 이언 머독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경위님도, 홈즈 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의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불쌍한 친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함으로써 오히려 제 결백을 밝히게 된 기분입니다."

"아니요, 머독 씨. 이미 단서를 쫓던 중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조금만 더 일찍 나갔더라면, 당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홈즈 씨?"

“나는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읽는 독자인데, 이상하게도 사소한 것들을 아주 잘 기억하는 편이라네. ‘사자 갈기’라는 그 문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분명 예상치 못한 맥락에서 이 말을 본 적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자네도 알다시피, 그 말은 그 생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지 않은가. 맥퍼슨이 그것을 목격했을 때, 그 생물은 분명 물 위에 떠 있었을 것이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주한 죽음의 실체를 우

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오직 이 문구만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적어도 제 결백은 증명된 셈이군요." 머독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덧붙여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이 한두 마디 있습니다. 경위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숙녀분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친구 맥퍼슨을 선택한 그날부터, 저의 유일한 바람은 그분이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두 사람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심부름을 하는 일도 잦았지요. 제가 그분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그분이 제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기에, 혹여나 다른 누군가가 더 갑작스럽고 비정한 방식으로 소식을 전해 그분을 놀라게 할까 봐 서둘러 친구의 부고를 전했던 것입니다. 경위님, 그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지 않으려 했던 건, 경위님께 꾸지람을 듣고 제가 곤란해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더 게이블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장 잠이라도 좀 자야겠습니다."

스택허스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었소." 그가 말했다. "머독, 지나간 일은 용서해주게. 앞으로는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친근하게 팔짱을 낀 채 함께 밖으로 나갔다. 경위는 남아서, 소처럼 커다란 눈으로 나를 말없이 응시했다.

"세상에, 해내셨군요!" 마침내 그가 외쳤다. "글로만 읽었지 정말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찬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제가 늦었습니다. 명백한 제 실수였죠. 만약 시신이 물속에서 발견되었다면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끈 건 바로 수건이었습니다. 불쌍한 희생자가 몸을 말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탓에, 저 역시 그가 물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중 생물의 공격을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맸던 겁니다. 허허, 경위님. 제가 평소 경찰분들을 종종 놀리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아네아 카필라타(Cyanea Capillata)'가 스코틀랜드 야드를 대신해 저에게 복수할 뻔 했군요."

베일 쓴 세입자

베일에 가려진 세입자

셜록 홈즈가 23년 동안 현역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중 17년 동안 내가 그의 조력자로서 그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내게 얼마나 방대한 자료가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골라낼 것인가였다. 책꽂이를 가득 채운 연도별 기록물과 서류가 가득 담긴 서류가방들은 범죄 연구자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 후기의 사회적, 공적 스캔들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보물창고다.

후자의 스캔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해두자면, 가문의 명예나 조상의 명성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청하며 고통스럽게 써 내려간 편지의 주인공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친구 홈즈를 상징하는 신중함과 높은 직업적 명예심은 이 회고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신뢰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 기록들을 탈취하거나 파기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러한 만행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나는 홈즈의 허락을 받아 정치인과 등대, 그리고 길들여진 가마우지에 얽힌 사건의 전말을 대중에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경고한다. 적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는 한 명쯤 있을 것이니 말이다.

이 회고록에서 내가 설명하고자 애쓴 홈즈의 기이한 직관과 관찰력은, 모든 사건에서 발휘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사건이 홈즈에게 그런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열매를 따기 위해 무척 애를 써야 했고, 때로는 열매가 홈즈의 품 안으로 쉽게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홈즈가 직접 나설 기회는 거의 없었음에도, 그 사건들 속에는 가장 끔찍한 인간의 비극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지금 기록하려는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 중 하나다. 이야기를 전하며 이름과 장소는 약간 바꾸었지만, 그 외의 사실 관계는 있는 그대로다.

1896년 말엽의 어느 날 오전이었다. 홈즈가 나를 급히 불러내는 쪽지를 보내왔다. 내가 도착했을 때, 홈즈는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 의자에는 풍채가 좋고 인자한 인상을 풍기는, 마치 어머니 같은 연배의 여인이 앉아 있었다.

"이쪽은 사우스 브릭스턴에서 오신 메릴로 부인이십니다." 내 친구가 손을 가볍게 흔들며 소개했다. "왓슨, 당신의 그 지저분한 습관을 마음껏 부려도 좋습니다. 메릴로 부인은 담배 냄새를 싫어하지 않으시

니까요. 부인께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사건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메릴로 부인, 제가 론더 부인을 만나러 갈 때는 증인이 동석했으면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부인께서 미리 그 점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홈즈 씨." 의뢰인이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지, 아마 당신 뒤로 마을 사람들 전체를 줄줄이 데려오셔도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그럼 오후 일찍 가도록 하죠. 출발하기 전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짚어둡시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면 왓슨 박사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론더 부인이 7년 동안 당신의 세입자로 지냈고, 그녀의 얼굴을 본 것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말이지, 그러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메릴로우 부인이 말했다.

"듣기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하더군요."

"홈즈 씨, 그건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정말 그렇게 보였다니까요. 우리 집 우유 배달부가 위층 창문 너머로 그녀를 슬

쩍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양철통을 떨어뜨려 앞마당이 온통 우유 바다로 변해버렸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끔찍한 얼굴이란 말이죠. 제가 그녀를 마주쳤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녀는 얼른 얼굴을 가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메릴로 부인, 이제야 제가 왜 베일을 절대 올리지 않는지 아시겠지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왔을 때 추천서도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손님. 하지만 그분은 현금을 아주 넉넉히 주셨어요. 조건 따위는 따지지 않고, 앞서서 3개월 치 방세를 테이블 위에 바로 올려두셨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 같은 가난한 여자가 그런 기회를 마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가 왜 하필 당신의 집을 골랐는지, 뭐라 설명하던가요?"

제 집은 도로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곳보다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전 세입자를 한 명만 들이고, 제 가족도 없거든요. 아마 그 여자는 다른 집들도 알아봤겠지만, 결국 제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건 사생활이니까요. 그 대가라면 얼마든지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단 한 번의 우연한 일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

다. 정말이지 놀라워요. 그러니 사건을 조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닙니다, 홈즈 씨. 저는 월세만 제때 잘 받으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저보다 조용하고 말썽 안 피우는 세입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달은 겁니까?"

"홈즈 씨, 그녀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몸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무언가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하며 비명을 지르곤 하죠. 한 번은 밤중에 '이 잔인한 짐승 같으니! 괴물 같은 놈!'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론더 부인,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있다면 성직자를 찾아가 보십시오. 아니면 경찰이라도 말입니다.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제발, 경찰만은 안 돼요! 그리고 성직자라고 해서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긴 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 기관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신문에 나오는 그 탐정이라는 사람이라도 불러보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홈즈 씨, 결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더군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메릴로

부인, 그 사람을 이리로 불러주세요. 만약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론더의 야수 쇼를 하는 남자의 아내라고 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아바스 파르바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녀가 쓴 대로 적어온 이름이 있습니다. 아바스 파르바. '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이름만으로도 분명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메릴로 부인. 왓슨 박사와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군요. 그러면 점심시간 전까지는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오후 3시쯤이면 브릭스턴에 있는 부인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문객이 방을 나갔다. 메릴로우 부인의 걸음걸이는 '뒤뚱거리며 나가다'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손님이 나가기가 무섭게 셜록 홈즈는 구석에 쌓인 자료 색인집 더미로 달려들어 무서운 기세로 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더니, 이윽고 홈즈가 만족스러운 듯 끙 소리를 내며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했다.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저 커다란 책들에 둘러싸인 채, 무릎 위에는 책 한 권을 펼쳐 놓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기이한 불상 같았다.

"그 사건은 당시 나를 꽤나 괴롭혔네, 왓슨. 여기 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조차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 하지만 검시관이 틀렸다는 확신만큼은 분명했네. 자네, 아바스 파르바의 비극에 대해 기억나는 게 없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홈즈."

“하지만 그때 당신은 저와 함께 있었지요. 그렇긴 해도 제 인상은 아주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단서도 전혀 없었고, 어느 쪽에서도 제게 의뢰를 맡긴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신문 기사라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사건의 요점만 좀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아마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론더라는 이름은 당시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름이었죠. 그는 웜벨의 경쟁자였고, 당대 최고의 쇼맨 중 한 명이었던 생거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 그와 그의 공연단은 모두 몰락하던 중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카라반은 버크셔주의 작은 마을인 아바스 파르바에 밤을 지내려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따라 윔블던으로 향하던 중이었고, 단순히 야영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공연을 열어도 이득이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에,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머물러 가던 길이었던 셈입니다.

전시품 중에는 아주 훌륭한 북아프리카 사자도 한 마리 있었다. 이름은 '사하라 킹'이었는데, 론더 부부는 사자 우리 안에서 공연을 펼치곤 했다. 여기 공연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 사진을 보면 론더는 덩치가 거대한 돼지 같은 사내였고, 그의 아내는 아주 품격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시 과정에서 사자가 위험하다는 징후가 몇

차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으나, 늘 그렇듯 익숙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아무도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밤마다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론더나 그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맡아 해왔다. 때로는 한 사람만 갔고, 때로는 둘이 함께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이 먹이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먹이를 가져다주는 한, 사자가 자신들을 은인으로 여겨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7년 전 바로 그날 밤에는 두 사람 모두 사자에게 먹이를 주러 갔고, 그 뒤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상세한 내막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정 무렵, 짐승의 포효와 여인의 비명 소리에 온 캠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마부들과 직원들이 등불을 들고 텐트에서 뛰쳐나왔고, 그 불빛 아래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론더는 열려 있는 우리로부터 약 10야드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뒷머리는 으스러져 있었고, 두피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나 있었다. 우리 문 바로 옆에는 론더 부인이 등을 대고 누워 있었으며, 그 괴물은 부인의 몸 위에 웅크린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짐승이 부인의 얼굴을 너무 심하게 할퀴어 놓은 탓에,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힘센 사내 레오나르도와 광대 그리그스를 필두로 서커스 단원 몇 명이 장대를 휘둘러 짐승을 몰아냈고, 짐승은 장대를 피해 다시 우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즉시 우리 문은 잠겼다.

짐승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짐승을 관리하던 부부가 우리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짐승이 그들에

게 달려들었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증언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점은 없었으나, 고통스러운 망상에 빠진 여인이 거처인 마차로 옮겨지는 내내 "겁쟁이! 겁쟁이!"라고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는 사실뿐이었다. 여인이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지만, 검시가 적절히 진행되었고 결과는 불행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명백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렇게 말할 만도 하네. 하지만 버크셔 경찰청의 젊은 에드먼즈는 한두 가지 점 때문에 꽤나 골머리를 앓았었지. 아주 영리한 친구라네! 나중에 알라하바드로 발령받아 떠났지만 말이야.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 파이프 담배를 한두 대 피우며 이 사건 이야기를 들려준 덕분에 내가 이 일을 맡게 된 것이라네.”

"마르고 금발인 남자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당신이라면 곧 실마리를 찾아낼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걱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글쎄요, 우리 둘 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하는 게 정말이지 지독하게 어려웠거든요. 사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사자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그럼 사자는 무엇을 할까요? 사자는 앞으로 대여섯 번을 껑충 뛰어오를 겁니다. 그러면 론더에게 닿겠지요. 론더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을 겁니다. 뒷머리에 남은 발톱 자국이 그걸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사자가 그를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다음 사자

는 그대로 달아나는 대신, 우리 근처에 있던 여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덮쳐 얼굴을 짓이겨 놓았죠. 또한 여인이 지른 비명으로 미루어 보아, 남편이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돕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불쌍한 사내가 그녀를 돕기 위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고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일이 떠오르는군요. 사자가 포효하고 여인이 비명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남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론더라는 자겠군."

"글쎄요,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면 다시는 소식을 듣기 어렵겠지요. 게다가 남자의 비명과 여자의 비명이 뒤섞여 들렸다고 증언한 목격자도 최소한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캠프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기꺼이 검토해 보지요."

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했을 때, 두 사람은 우리로부터 10야드 떨어진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남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여자는 차라리 우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릴 생각

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우리를 향해 달려가던 찰나, 맹수가 그녀를 덮치며 달려들어 여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몸을 돌려 사자의 분노를 자극했다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사자를 정면으로 마주했다면, 사자를 겁먹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겁쟁이!"라고 비명을 지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훌륭하네, 왓슨! 자네의 추리에는 단 하나의 결점뿐이야."

"결함이 무엇인가, 홈즈?"

"그들이 우리에서 열 걸음이나 떨어져 있었다면, 대체 그 짐승은 어떻게 탈출한 것입니까?"

"혹시 그들에게 이것을 풀어놓은 원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평소에는 우리 안에서 그들과 장난도 치고 재주도 부리며 놀던 녀석이, 대체 왜 갑자기 그들을 사납게 공격했단 말입니까?

"어쩌면 같은 적이 그놈을 자극해서 화를 돋웠을지도 모른다."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자, 왓슨. 자네 이론에도 일리가 있네. 론더는 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에드먼즈의 말에 따르면, 그는 술만 들어가면 아주 끔찍한 사람이 되었다더군. 거구의 불량배 같은 사내였는데,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욕설을 퍼붓고 칼을 휘둘렀다고 하네. 우

리 방문객이 말했던 그 괴물에 관한 비명들도, 아마 고인이 된 그자가 밤마다 내뱉던 기억의 잔상이었을 게야. 하지만 모든 사실을 다 파악하기 전까지 우리의 추측은 무의미하네. 왓슨, 찬장 위에 식어버린 자고기 요리와 몽라셰 한 병이 있군. 다시 기력을 쏟아붓기 전에 우선 기운부터 좀 차리세나."

한섬 마차가 메릴로 부인의 저택 앞에 우리를 내려주었을 때, 그 풍채 좋은 부인은 소박하지만 조용한 자신의 집, 그 열린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귀한 세입자를 놓치는 일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를 위층으로 안내하기 전, 혹여라도 세입자를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만한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우리는 그녀를 안심시킨 뒤, 카펫이 낡아 엉망인 곧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곧이어 우리는 그 신비로운 세입자가 머무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예상대로 공기가 탁하고 곰팡내 나는, 환기도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짐승을 우리에 가두어 기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운명의 응보라도 받은 듯 그녀 스스로가 우리에 갇힌 짐승이 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지금 방 안의 어둑한 구석, 망가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지낸 탓에 체구의 윤곽은 거칠어져 있었으나, 한때는 분명 아름다웠을 것이다. 여전히 풍만하고 관능적인 자태가 남아 있었다. 두꺼운 검은 베일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윗입술 부분은 짧게 잘려 있어 모양이 아주 예쁜 입술과 섬세하고 둥근 턱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가 참으로 눈에 띄는 여인이었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목소리 또한 차분하면서도 듣기 좋았다.

"제 이름이 당신에게 아주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제 이름을 대면 당신이 와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인. 하지만 제가 부인의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군요."

"건강을 회복한 뒤에 카운티 형사인 에드먼즈 씨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두렵군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더 현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현명한 법이지. 그런데 왜 그에게 거짓말을 했나?"

"다른 사람의 운명이 그 일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주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의 파멸을 내 양심에 짐으로 남겨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주 가까웠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은 제거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고려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 자신이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뒤따를 추문과 세간의 이목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 남은 삶은 그리 길지 않지만, 적어도 죽는 순간만큼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뒤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분을 한 명이라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부인. 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부인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제가 직접 이 사건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판단하지 않으리라고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군요, 홈즈 씨. 저는 당신의 성격과 수사 방식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해결한 사건들을 계속 지켜봐 왔으니까요. 운명이 내게 남겨준 유일한 즐거움은 독서뿐이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비극이 당신에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군요."

"제 친구와 저 모두 기꺼이 듣겠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남자는 누가 봐도 전문 곡예사였다. 그는 당당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사진은 커다란 팔로 부풀어 오른 가슴을 감싸 안은 채 찍혀 있었다. 두터운 콧수염 아래로 번지는 미소는 수많은 여성을 정복해 온 자 특유의 자만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저건 레오나르도예요." 그녀가 말했다.

"증언을 했던 그 힘센 사내, 레오나르도 말인가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그것은 끔찍한 얼굴이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돼지, 아니 그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한 멧돼지에 가까웠다. 그 야만성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분노에 차서 입을 쩝쩝거리며 거품을 내뿜는 그 비열한 입술이 눈에 선했고, 세상을 향해 순전한 악의를 쏘아대는 작고 잔인한 눈동자 또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불량배, 악당, 짐승. 그 모든 것이 그 육중한 턱을 가진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이 사진 두 장을 보시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신사 여러분. 저는 톱밥을 깔아놓은 서커스장에서 자란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열 살도 되기 전에 이미 고리 통과하기 묘기를 선보였죠.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남자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자의 저급한 욕망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 되었고, 그는 저를 괴롭히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서커스단 사람 중 그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저를 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불평이라도 하면 저를 묶어놓고 승마용 채찍으로 매질을 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가엽게 여겼고 그를 혐오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는 늘 포악했고, 술만 마시면 살인귀처럼 변했으니까요.

그는 폭행죄와 동물 학대 혐의로 몇 번이나 붙잡혀 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워낙 많아서 벌금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떠났고, 서커스단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와 저, 그리고 광대인 어린 지미 그리그스만이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지미는 웃을 만한 일도 별로 없는 처지였지만, 서커스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후 레오나르도가 제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도 보셨잖아요. 이제는 그 화려한 외양 뒤에 숨겨진 가련한 영혼을 알 것 같지만, 제 남편과 비교하면 그는 마치 천사 가브리엘 같았죠. 그는 저를 가엽게 여기며 도와주었고, 결국 우리의 친밀함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꿈속에서나 그리던, 하지만 결코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깊고도 뜨거운 사랑이었죠. 제 남편도 이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군인 동시에 겁쟁이였고, 레오나르도만큼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저를 전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며 그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레오나르도가 우리 마차 문 앞까지 달려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비극에 직면했고, 저와 연인은 그 비극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살 가치가 없는 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 계획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영리하고도 책략에 능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모든 계획은 그가 세웠지요. 그를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계획을 떠올릴 만한 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곤봉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레오나르도가 만들었지요. 그는 납으로 만든 머리 부분에 다섯 개의 긴 강철 못을 박았습니다. 못 끝이 사자의 발톱처럼 벌어지도록 말입니다. 이 장치는 제 남편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동시에, 우리가 풀어놓은 사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소처럼 짐승에게 먹이를 주러 내려갔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우리는 아연 양동이에 생고기를 담아 들고 갔다. 우리 부부가 우리를 지나쳐야 하는 커다란 마차 모퉁이에는 레오나르도가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의 움직임이 너무 느린 탓에, 레오나르도가 공격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하지만 녀석은 발소리를 죽인 채 우리 뒤를 쫓아왔다. 곧이어 몽둥이가 남편의 머리통을 내리치는 굉음이 들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기쁨으로 요동쳤다. 나는 앞으로 달려 나가 거대한 사자 우리 문을 잠그고 있던 걸쇠를 풀었다.

“그리고 나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짐승들이 인간의 피 냄새를 얼마나 빨리 맡는지, 그리고 그 냄새가 짐승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이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어떤 기이한 본능이 그 짐승에게 인간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창살을 열자마자 짐승은 튀어 나왔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를 덮쳤습니

다. 레오나르도가 저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달려들어 몽둥이로 짐승을 내리쳤더라면 기세를 꺾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겁에 질려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그의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가 몸을 돌려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자의 이빨이 제 얼굴을 물었습니다. 짐승의 뜨겁고 불결한 입김이 이미 저를 중독시킨 듯, 통증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손바닥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피로 얼룩진 그 거대한 턱을 밀어내려 애쓰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캠프 안이 술렁이는 것이 느껴졌고, 레오나르도와 그리그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짐승의 발톱 아래에서 저를 끌어내는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홈즈 씨, 그것이 제가 수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기 전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사자를 저주했습니다. 오, 얼마나 처절하게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사자가 제 아름다움을 앗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제 목숨을 차라리 앗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홈즈 씨, 제게는 단 하나의 소망뿐이었고, 그것을 이룰 돈은 충분했습니다. 그 소망이란 가련한 제 얼굴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제가 알던 그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 입은 가련한 짐승이 죽기 위해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유제니아 론데르의 최후입니다."

불행한 여인이 이야기를 마친 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홈즈가 긴 팔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가볍게 다독였다. 그 모습에는 내가 평소의 그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깊은 동정심이 배어 있었다.

"가여운 처지군!" 그가 말했다. "정말 가여워! 운명의 장난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군. 만약 사후에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잔혹한 농담에 불과할 걸세. 그런데 레오나르도라는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를 다시 보거나 소식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그토록 원망했던 제 마음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사자가 남기고 간 잔해를, 다시 말해 흉하게 망가진 지금의 저를 사랑하기란, 우리가 전국을 돌며 데리고 다니던 기형 구경거리 중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인의 사랑이란 그리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는 맹수의 발톱 아래 저를 내팽개쳤고, 제가 가장 절실할 때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차마 그를 교수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이 비참한 삶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레오나르도와 그의 운명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는 지난달 마게이트 근처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섯 갈래 발톱이 달린 몽둥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정교한 부분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캠프 근처에 분필 채굴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바닥에는 짙은 녹색의 웅덩이가 있어요. 어쩌면 그 웅덩이 깊은 곳에……."

"글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겠나.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네."

"네, 맞아요." 여자가 말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막 자리를 뜨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홈즈의 주의를 붙들었다. 홈즈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이게 대체 누구에게 무슨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며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조급한 세상을 향한 가장 값진 교훈이니까요."

여자의 대답은 참혹했다. 그녀는 베일을 걷어 올리고 빛이 비치는 곳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혹시 견뎌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얼굴의 형체 자체가 사라져 버린 자리에서, 그 골격만 남은 모습이 어떠한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참혹한 잔해 속에서 슬픈 빛을 띠며 바라보는 두 개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는, 오히려 그 광경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 뿐이었다. 홈즈는 안타까움과 거부감을 담아 손을 들어 보이고는, 나와 함께 그 방을 빠져나왔다.

이틀 뒤,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파란색 병 하나를 꽤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나는 그 병을 집어 들었다. 거기에는 붉은색 독약 라벨이 붙어 있었다. 병을 열자 향긋한 아몬드 향이 코끝을 스쳤다.

"프러식 애시드(청산가리)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정확합니다. 우편으로 왔더군요. '제 유혹의 물건을 당신께 보냅니다. 당신의 조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왓슨, 이 편지를 보낸 용기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군요."

11

쇼스콤 올드 플레이스

쇼스콤 올드 플레이스의 모험

셜록 홈즈는 한참 동안이나 저배율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승리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풀이야, 왓슨.” 홈즈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풀이야. 현장에 흩어져 있는 이 물건들을 좀 보게!”

나는 눈을 접안렌즈에 대고 초점을 맞추며 시야를 조절했다.

"이 머리카락들은 트위드 코트에서 나온 실입니다. 불규칙하게 뭉쳐 있는 회색 덩어리들은 먼지고요. 왼쪽에는 상피 세포 조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갈색 얼룩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접착제입니다."

"글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어 보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아주 훌륭한 시연이군요.” 그가 대답했다. “세인트 판크라스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죽은 경찰관 옆에서 모자가 하나 발견되었던 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피고인은 그 모자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는 평소에 접착제를 늘 다루는 액자 제작자입니다.”

"당신이 맡은 사건 중 하나인가요?"

“아니네. 스코틀랜드 야드의 내 친구 메리베일이 이 사건을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거든. 소매 끝단에 묻은 아연과 구리 가루를 근거로 그 위조범을 잡아내고 나서야, 그들도 현미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지.”

홈즈는 초조한 듯 시계를 흘끗 보았다.

“새로운 의뢰인이 오기로 했는데 벌써 약속 시간이 지났군. 그나저나 왓슨, 자네 경마에 대해 좀 아나?”

"당연히 그래야지요. 부상 연금의 절반 정도를 털어 넣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당신을 나의 ‘경마 안내서’로 삼아야겠군요. 로버트 노버턴 경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렇고말고요. 그분은 쇼스콤 올드 플레이스에 사시는데, 저는 그곳을 아주 잘 압니다. 예전에 한때 그 근처에서 여름 휴양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노버턴도 한때 당신이 맡은 관할 구역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어땠나?"

"그가 뉴마켓 히스에서 유명한 커즌가의 고리대금업자 샘 브루어를 채찍으로 내리쳤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그 남자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아, 흥미로운 분이군요! 그분은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탐닉하시나요?"

"글쎄요, 그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명성은 자자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무모한 기수 중 한 명이지요. 몇 년 전에는 그랜드 내셔널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타고난 사람 중 하나예요. 만약 리전시 시대에 태어났다면 분명 멋쟁이 청년이었을 겁니다. 권투 선수나 운동선수, 혹은 경마판을 누비는 승부사로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랑하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도박 빚에 완전히 파산하여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막다른 길에 몰려 있습니다."

"훌륭해, 왓슨! 아주 요약된 스케치군. 이 남자는 내가 아는 사람 같아. 자, 이제 쇼스콤 올드 플레이스에 대해 좀 설명해 주겠나?"

"다만 그곳이 쇼스콤 파크의 중심부라는 점과, 그 유명한 쇼스콤의 종마 목장과 훈련장이 그곳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수석 조교는 존 메이슨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왓슨,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고 해서 놀랄 것 없네. 지금 내가 펼쳐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가 보낸 편지니까. 그나저나 쇼스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세.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잡은 것 같군."

"쇼스콤 스패니얼이군요." 내가 말했다. "개 품평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종이죠. 영국에서 가장 귀한 품종 아닙니까. 쇼스콤 올드 플레이스의 안주인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는 개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로버트 노버턴 경의 부인이시겠군요!"

"로버트 경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앞날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미망인인 누이, 비아트리스 팔더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돌아가신 남편인 제임스 경의 소유였습니다. 노버턴은 그곳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부인은 그저 생전의 수익권만 가질 뿐이며, 권리는 남편의 형제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인이 매년 임대료를 챙기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형제인 로버트가 그 임대료를 다 쓰는 모양이군요?"

"대략 그런 형편이라네. 그는 아주 악독한 친구라 그녀의 삶이 무척이나 고달플 게 분명해. 그런데도 그녀가 그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 그나저나 쇼스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아, 바로 그 점이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와 계신 것 같군요.”

문이 열리고 하인이 들어왔다. 그 뒤로 키가 크고 깔끔하게 면도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말을 다루거나 아이들을 훈육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단호하고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존 메이슨 씨는 말과 아이들 모두를 제 뜻대로 부려본 경험이 풍부해 보였고, 그 기세는 충분히 위엄이 있었다. 그는 냉정할 정도로 침착하게 목례를 하더니, 홈즈가 권하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 쪽지를 받으셨나요, 홈즈 씨?"

"그렇긴 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했네."

"그 일은 세세한 부분까지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상황도 무척 복잡했고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언제든 당신이 부르는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즈 씨, 우선 제 고용주이신 로버트 경께서 미치신 것 같습니다.”

홈즈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여기는 베이커가이지, 할리 스트리트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한두 번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는 짓마다 온통 이상하다면, 그때부터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제 생각에 쇼스콤 프린스와 더비 경마가 그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망쳐놓은 모양입니다."

"지금 경주에 내보내려는 망아지 말인가요?"

"영국 최고입니다, 홈즈 씨. 만약 누군가 알고 있다면 바로 저일 겁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두 분 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신사분들이니, 이 이야기는 이 방 안에서만 머물 거라 믿습니다. 로버트 경은 이번 더비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지금 빚이 목까지 차올랐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가 끌어모으거나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이 그 말에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률도 엄청나죠! 지금은 40배 정도지만, 그가 처음 돈을 걸기 시작했을 때는 100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게 훌륭한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대중은 그 말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로버트 경은 워낙 영리해서 경마 정보꾼들을 감쪽같이 속였거든요. 그는 프린스의 이복형제 말을 데리고 시범 주행을 시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두 말을 구별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력 질주를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두 말 사이에는 1퍼롱(furlong)당 두 마신(lengths)이나 차이가 벌어지니까요. 그는 말과 경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걸었죠. 경주가 끝날 때까지 유대인 자본가들을 겨우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프린스가 그를 저버린다면, 그는 끝장입니다."

"꽤나 무모한 도박처럼 보입니다만, 대체 무엇이 광기라는 말씀입니까?"

"우선 그 사람을 좀 보세요. 밤에는 잠도 못 자는 게 분명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마구간에 내려가 있거든요. 눈빛은 아주 광기에 차 있고요. 신경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일이 너무 몰아쳤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비아트리스 부인에게 대하는 태도 좀 보십시오!"

"아! 저게 대체 뭐지?"

"두 사람은 언제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취향도 똑같았고, 그녀 역시 그만큼이나 말을 사랑했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마다 그녀는 그들을 보러 마차를 몰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프린스를 무척 아꼈지요. 자갈길 위로 마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면 프린스는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아침 설탕 한 조각을 얻으려고 마차 쪽으로 달려 나오곤 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다 끝난 일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글쎄요, 그 여자는 말들에게 완전히 흥미를 잃은 모양입니다. 벌써 일주일째인데, 마구간 앞을 지나가면서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인사 한 마디조차 건네지 않는다니까요!"

"다툼이라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게다가 아주 지독하고 악독하며 악의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자식처럼 아끼는 스패니얼을 남에게 줘 버릴 수 있겠어요? 며칠 전에 크렌달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린 드래곤' 여관의 노인 반스에게 넘겨줬다고 하더군요.

"그건 분명히 기묘한 일이었다."

"물론 그 여인의 심장이 약한 데다 부종까지 있어서, 그와 함께 돌아다닐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두 시간씩 그녀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그에게 참으로 소중한 친구였으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다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그 때문에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었습니다. 홈즈 씨, 그녀는 요즘 계속 우울해하며 심술을 부리고 술에 빠져 지냅니다. 아주 물 마시듯 술을 들이켜고 있어요."

"그녀가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도 술을 마셨습니까?"

“글쎄요, 전에는 딱 한 잔만 마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저녁마다 병째로 비우곤 합니다. 집사 스티븐스 말로는 그렇더군요. 홈즈 씨, 모든 게 변했습니다. 분명 뭔가 아주 고약한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주인님은 밤마다 그 오래된 교회 지하 묘지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거기서 주인님을 만나는 그 남자는 또 누구고요?”

홈즈가 손을 비볐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메이슨 씨.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군요."

"그가 떠나는 걸 본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밤 12시였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 날 밤, 제가 그 저택에 가서 지켜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님이 또 집을 나섰더군요. 스티븐스와 저는 그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는 한번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데다, 상대가 누구든 전혀 가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를 놓치지 않고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귀신이 나온다는 지하 납골당이었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흉가 같은 지하 묘실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기, 선생님. 공원에 아주 오래된 폐허가 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어서 그게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그 예배당 아래에는 지하 납골당이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악명이 자자한 곳입니다. 낮에는 그저 어둡고 축축하며 쓸쓸한 곳일 뿐이지만, 밤만 되면 그 근처에 발을 들일 배짱을 가진 사람은 이 근방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님은 겁을 내지 않으십니다. 평생 그 무엇도 두려워한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주인님은 밤중에 거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홈즈가 말했다. “거기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분명 마부 중 한 명이거나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 찾아내서 심문하기만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홈즈 씨, 제가 그를 직접 봤으니까요. 바로 그 둘째 날 밤이었죠. 그날 밤은 달빛이 조금 비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경이 몸을 돌려 우리를 지나쳐 갔을 때, 저와 스티븐스는 마치 겁먹은 토끼 두 마리처럼 덤불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는 들렸죠. 우리는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경이 지나가자마자 슬며시 일어나, 마치 달빛을 즐기며 산책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에게 다가간 겁니다.

‘여보시오! 누구신가?’ 제가 말을 건넸죠. 그는 우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는데, 그 표정이 마치 지옥에서 악마가 튀어나오는 걸 본 듯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더니 어둠 속으로 전력 질주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달아나는 속도 하나는 인정해 줘야 해요! 순식간에 그는 시야와 청각에서 사라졌고, 그가 누구인지, 혹은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에서 그를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까?"

“네, 그놈의 노르스름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주 비열한 놈이었죠. 그런데 그자가 로버트 경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홈즈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베아트리스 팔더 부인의 말동무는 누가 해드립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하녀인 캐리 에반스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온 아이예요."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헌신적인 분이시겠군요?"

메이슨 씨는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그 여자는 충분히 헌신적이지."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헌신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네."

"아!" 홈즈가 외쳤다.

"집안 사정을 밖으로 떠벌릴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메이슨 씨. 상황은 아주 명확하군요. 왓슨 박사가 설명해 준 경에 따르면, 그 어떤 여성도 경의 손아귀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매 사이의 불화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

"글쎄, 그 스캔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꽤 명백했네."

"하지만 그녀가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녀는 그 여자를 떼어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빠가 허락하지 않아요. 심장이 약하고 거동조차 불편한 병약한 그녀로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단이 없습니다. 혐오스러운 하녀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고요. 결국 그녀는 입을 닫아버린 채, 토라져서 술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로버트 경은 그녀가 아끼는 스패니얼을 빼앗아 가버리죠. 이 모든 정황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요."

"정확해!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지. 하지만 그 사실들이 그 오래된 지하 묘지를 밤마다 드나드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건 지금 우리가 짜놓은 계획에 끼워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닙니다, 선생님. 게다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버트 경이 왜 죽은 시신을 파헤치려 하는 걸까요?"

홈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어제야 겨우 알아냈습니다. 의뢰인님께 편지를 드린 뒤에 말입니다. 어제 로버트 경께서 런던으로 떠나시는 바람에, 스티븐스와 제가 직접 지하 묘지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구석진 곳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에 알린 모양이군요?"

방문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선생님. 그분들이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미라의 머리 부분과 뼈 몇 조각뿐이었거든요. 아마 천 년은 된 물건일 겁니다. 하지만 전에는 분명히 거기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맹세할 수 있고, 스티븐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구석진 곳에 처박아 둔 채 판자로 덮어 놓았더군요. 하지만 그 구석은 전에는 줄곧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로버트 경이 어제 자리를 비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돌아왔습니까?"

"그가 오늘 중으로 돌아올 겁니다."

"로버트 경이 누이의 개를 언제 내주었지?"

"정확히 일주일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 짐승이 오래된 우물집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그날 아침 로버트 경은 유독 히스테릭한 상태였습니다. 경이 짐승을 낚아챘을 때, 저는 그가 짐승을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로버트 경은 기수 샌디 베인에게 그 개를 넘겨주며, '그린 드래곤' 여관에 있는 노인 반스에게 데려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는 그놈을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지요."

홈즈는 한동안 침묵에 잠긴 채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파이프 중 가장 오래되고 지독한 맛이 나는 것을 꺼내 물었다.

“메이슨 씨, 이 사건에서 제게 무엇을 바라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홈즈 씨, 이렇게 하면 상황이 좀 더 분명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문객이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자, 검게 그을린 뼈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홈즈는 흥미롭다는 듯 그것을 살펴보았다.

"그건 어디서 났습니까?"

"레이디 베아트리스의 방 아래 지하실에는 중앙 난방용 용광로가 있습니다. 한동안 꺼두었지만, 로버트 경이 춥다고 불평하는 바람에 다시 가동했습니다. 하비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 부하 중 한 명이지요. 오늘 아침, 하비가 재를 긁어내다가 이것을 발견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비 말로는 모양새가 영 심상치 않다고 하더군요."

"나도 마찬가지네."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검게 타버린 숯덩이가 되어 있었으나, 해부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사람의 대퇴골 상과입니다." 내가 말했다.

“정확해!” 홈즈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다. “이 소년이 화로를 돌보는 시간이 언제지?”

"그는 매일 저녁 그것을 만들어 두고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면 밤중에 누구라도 그곳을 방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밖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레이디 비아트리스의 방이 있는 복도로 연결되는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메이슨 씨, 이건 아주 복잡한 사건입니다. 상황이 깊고도 상당히 지저분하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로버트 경이 집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뼈를 태우던 자가 누구든, 그는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여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린 드래곤'입니다."

"버크셔 그쪽 지방은 낚시하기에 괜찮은 곳인가요?"

정직한 인상의 그 조련사는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의 피곤한 삶에 또 한 명의 미치광이가 나타났다고 확신하는 기색을 말이다.

"저기, 선생님. 듣기로는 방앗간 시냇물에는 송어가 살고, 홀 저수지에는 강꼬치고기(파이크)가 산다고 하더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왓슨과 나는 아주 유명한 낚시꾼들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왓슨? 앞으로는 '그린 드래곤' 여관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메이슨 씨,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쪽지를 남겨 두면 전달될 것이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건을 좀 더 조사한 뒤에, 신중히 검토하여 의견을 전해 드리지요."

그렇게 5월의 어느 화창한 저녁, 홈즈와 나는 1등석 객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는 요청이 있을 때만 멈춰 서는 작은 간이역, 쇼스콤(Shoscombe)으로 향하고 있었다. 머리 위 선반에는 막대기와 릴, 바구니 같은 장비들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가득 쌓여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마차를 타고 조금 달리자 예스러운 분위기의 선술집이 나타났다. 그곳의 주인인 조사이어 반즈는 스포츠를 즐기는 이답게, 근처의

물고기들을 싹쓸이하겠다는 우리의 계획에 아주 열성적으로 동참했다.

"홀 호수와 그곳에 살지도 모를 강창어는 어떻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여관 주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선생님.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호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로버트 경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분은 정보원들을 지독하게도 경계하십니다. 만약 당신들 같은 낯선 이들이 훈련소 근처에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다면, 운명처럼 반드시 당신들을 뒤쫓았을 겁니다. 로버트 경은 결코 위험을 감수할 분이 아니니까요."

"그가 더비 경주에 출전시킬 말을 한 마리 등록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망아지죠. 경주에 쓸 우리 돈은 물론이고, 덤으로 로버트 경의 돈까지 전부 그놈이 짊어지고 달립니다. 아, 참." 그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실례지만, 두 분은 경마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버크셔의 맑은 공기가 절실히 필요한, 지칠 대로 지친 런던 사람 두 명일 뿐입니다."

"글쎄요, 그런 일을 겪기에 딱 적당한 곳에 계시긴 합니다. 그런 일이 아주 흔하니까요. 하지만 로버트 경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는 일단 손부터 휘두르고 나서 나중에 입을 여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공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물론입니다, 반스 씨! 반드시 그렇게 하죠. 그나저나, 아까 복도에서 낑낑거리던 스패니얼은 정말 아름다운 개더군요."

"그랬을 겁니다. 그게 진짜 쇼스콤 혈통의 개죠. 영국 전체를 통틀어도 그보다 나은 개는 없을 겁니다."

"나 역시 개를 아주 좋아하네." 홈즈가 말했다. "자, 공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지. 저렇게 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개라면 가격이 얼마나 나갈 것 같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 녀석을 주신 건 로버트 경 본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줄을 채워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냥 풀어놓기라도 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택으로 달려가 버릴 테니까요."

"왓슨, 우리가 꽤 괜찮은 패를 쥐기 시작했네." 집주인이 나가자 홈즈가 말했다. "풀어나가기 쉬운 판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나저나 로버트 경이 아직 런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어쩌면 오늘 밤, 신변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도 그 신성한 영

역에 발을 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확인하고 싶은 점이 한두 가지 있네."

"홈즈, 자네는 어떤 가설이라도 세워둔 게 있나?"

"문제는 이것뿐이라네, 왓슨. 일주일 전쯤 쇼스콤 가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지. 그 사건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여파를 보고 짐작할 수밖에 없네. 그런데 그 흔적들이 참으로 묘하게 뒤섞여 있군.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아무런 특징도, 사건도 없는 무미건조한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답이 없는 법이니까."

"우리가 가진 단서들을 검토해 보세. 형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픈 여동생을 찾아가지 않네. 게다가 여동생이 아끼던 개까지 남에게 줘 버렸지. 왓슨, 그 개 말일세! 자네에게는 아무런 의문도 생기지 않는가?"

"형제의 악의 때문일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다시 짚어봅시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시점부터 말입니다. 그 부인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하녀와 함께 마차를 타고 나갈 때를 제외하면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아끼는 말에게 인사하러 마구간에 들르는 일조차 거부하고 있고, 보아하니 술에 의지하는 듯합니다. 이 정도면 상황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하 납골당에서 벌어진 일만 빼고 말일세."

"그건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줄기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으니, 제발 이 둘을 뒤섞지 말아 주십시오. 우선 A라는 줄기는 비아트리스 부인과 관련된 것인데,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군."

"자, 이제 로버트 경과 관련된 B선을 살펴봅시다. 그는 더비 경주에서 우승하는 데 눈이 멀어 있어요. 현재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린 상태라, 언제 채권자들이 그의 재산을 매각하고 경마 마구간을 압류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는 대담하고도 필사적인 인물이죠. 수입은 누이에게서 얻고 있고요. 누이의 하녀는 그의 충실한 조력자입니다. 여기까지는 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하 묘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맞네, 바로 그 지하 묘지군! 왓슨, 자네와 가설 하나를 세워보세. 물론 논쟁을 위해 던져보는, 그저 터무니없는 가정일 뿐이라네. 만약 로버트 경이 자신의 누이를 살해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말이야.”

"이보게, 홈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네, 왓슨. 로버트 경은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지. 하지만 독수리 무리 사이에서도 가끔은 시체를 쪼아 먹는 까마귀가 섞여 있기 마련이라네. 잠시 이 가설을 바탕으로 논리를 세워보세. 그는 재산을 모두 손에 넣기 전까지는 국외로 달아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재산은 쇼스콤 프린스를 이용한 이번 도박에 성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네. 따라서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하네. 그러려면 그는 희생자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그녀를 대신해 연기할 대역을 찾아야 하겠지. 하녀를 공범으로 포섭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여자의 시신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하 묘지로 옮겨진 뒤, 밤중에 몰래 화로에 넣어 태워버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과 같은 증거들만 남게 될 테고 말이야. 왓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 처음에 제기한 그 괴상한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왓슨,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내일 시도해 볼 만한 작은 실험이 하나 있네. 그전까지는 우리 본분을 다하는 의미에서, 주인장을 불러다 그가 직접 만든 와인을 한잔 대접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그가 유독 관심을 보이는 장어와 황어 이야기를 주제로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게 그의 환심을 사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거든. 그러다 보면 대화 중에 유용한 지역 소문이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다음 날 아침, 홈즈는 우리가 잭(jack) 낚시에 쓸 스푼 미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덕분에 그날은 낚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었다. 오전 11시쯤 우리는 산책을 나섰고, 홈즈는 검은 스패니얼 한 마리를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네."

우리가 문장 위에 위엄 있게 솟아 있는 문장용 그리핀 조각이 새겨진 높은 공원 정문 두 개에 다다르자 그가 말했다.

"반스 씨의 말에 따르면, 정오쯤 되면 노부인이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온다고 하더군. 그때 정문을 여는 동안 마차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지. 마차가 문을 통과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전, 왓슨, 자네가 마부에게 질문을 던져서 잠시 멈춰 세워주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이 호랑가시나무 뒤에 서서 지켜보며 최대한 많은 것을 확인하겠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길게 뻗은 가로수길을 따라 커다란 노란색 오픈 마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마차 앞쪽에는 발걸음이 당당하고 기품 있는 회색 말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끌고 있었다. 홈즈는 개와 함께 덤불 뒤로 몸을 낮춰 숨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길 한복판에 서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관리인 한 명이 달려 나오더니 대문을 활짝 열었다.

마차가 속도를 줄여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마차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왼쪽에는 금발에 눈매가 건방진,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오른쪽에는 등이 굽은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얼굴과 어깨를 두툼한 숄로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환자였다. 말이 대로에 다다랐을 때, 나는 권위 있는 몸짓으로 손을 들어 마차를 세웠다. 마부가 마차를 멈추자, 나는 로버트 경이 쇼스콤 올드 플레이스에 계시는지 물었다.

그 순간 홈즈가 밖으로 나가며 스패니얼을 풀어주었다. 강아지는 기쁨에 겨운 소리를 내지르며 마차를 향해 돌진하더니 마차 계단 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반가움에 찬 인사는 순식간에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강아지는 눈앞에 보이는 검은 치맛자락을 향해 사납게 입을 놀렸다.

"어서 가시오! 어서!" 거친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자, 우리는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자, 왓슨, 이제 다 됐네.”

홈즈가 흥분한 스패니얼의 목에 리드줄을 채우며 말했다.

“이 녀석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낯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개는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

"하지만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였단 말입니다!" 내가 외쳤다.

"정확해! 왓슨, 우리 손에 카드 한 장을 더 쥐게 되었네. 하지만 이 카드는 아주 신중하게 써야만 하네."

내 동료는 오늘 더 이상 별다른 계획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방앗간 개울에서 낚시 도구를 꺼내 들었고, 그 덕분에 저녁 식사로 송어 한 접시를 즐길 수 있었다. 홈즈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식사를 마친 후였다. 우리는 오전과 같은 길을 따라 다시 나섰고, 그 길은 공원 정문으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어두운

인상의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런던에서 알고 지내던 조련사, 존 메이슨 씨였다.

“안녕하셨습니까,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홈즈 씨, 보내주신 쪽지는 잘 받았습니다. 로버트 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는 도착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지하 납골당은 저택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4분의 1마일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배제해도 되겠군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홈즈 씨. 그 사람이 도착하는 즉시 쇼스콤 프린스에 관한 최신 소식을 듣고 싶어 하며 저를 만나려 들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슨 씨, 당신 없이 진행해야겠군요. 지하 납골당을 안내해 주신 뒤에는 저희를 두고 떠나 주십시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메이슨은 우리를 이끌고 초원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이윽고 눈앞에 거대한 어둠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예배당이었다. 우리는 한때 현관이었을 무너진 틈 사이로 들어섰다. 안내자인 메이슨은 흩어진 돌무더기 사이를 비틀거리며 지나가더니, 건물 구석에 있는 가파른 계단 앞에 멈춰 섰다. 그 계단은 지하 묘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가 성냥을 켜자 우울한 분위기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칠게 깎아 만든 돌로 쌓은 벽은 오래되어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음산하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한쪽에는 납과 돌로 만든 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그 관들은 머리 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치형 천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홈즈가 랜턴을 켜자, 선명한 노란 빛줄기가 슬픈 풍경 위로 작은 터널처럼 뻗어 나갔다. 빛은 관 덮개에 새겨진 금속판에 반사되어 되돌아왔다. 그중 많은 판에는 이 오래된 가문의 문장인 그리핀과 왕관이 장식되어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 명예를 지켜온 가문의 상징이었다.

"메이슨 씨, 아까 뼈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가시기 전에 그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이 구석에 있습니다.” 조련사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우리가 빛을 비춘 그곳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없이 멈춰 섰다. “사라졌군요.” 그가 말했다.

"내 예상대로군." 홈즈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미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그 오븐 안에, 아직 재가 남아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대체 왜, 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유골을 태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존 메이슨이 물었다.

“그 사실을 알아내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 당신을 더 붙잡아둘 필요는 없겠군요. 아마 아침이 오기 전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메이슨이 떠나자, 홈즈는 무덤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범위는 중심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색슨족 무덤부터 시작해, 노르만 가문의 휴고와 오도 일가의 긴 무덤 줄기를 지나, 18세기의 경(Sir) 윌리엄과 경 데니스 팔더의 묘까지 이어졌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홈즈는 지하 납골당 입구 앞에 똑바로 세워져 있는 납 관 하나 앞에 멈춰 섰다. 홈즈가 만족스러운 듯 짧게 탄성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서두르면서도 목적이 분명한 그의 움직임을 보니, 무언가 단서를 찾아낸 모양이었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무거운 관 뚜껑의 가장자리를 열정적으로 살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상자를 여는 용도의 짧은 지렛대 하나를 꺼냈다. 홈즈는 그것을 틈새에 밀어 넣고는 관의 앞면 전체를 들어 올렸다. 관의 앞면은 고작 두어 개의 고정 장치로만 붙잡혀 있는 듯했다.

관이 열리며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관 뚜껑이 힌지에 걸려 겨우 뒤로 젖혀지며 내용물이 조금 드러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고 말았다.

위층 예배당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걷는 길을 잘 아는 이가 내딛는, 단호하고 빠른 발걸음이었다. 계단 아래로 빛줄기가 쏟아져 내려왔고, 곧이어 그 빛을 들고 있는 남자가 고딕 양식의 아치형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거구의 체격에 험악한 기세를 풍기는 무시무시한 형색이었다. 남자가 앞쪽으로 높이 든 커다란 마구간용 등불이 위를 향해 빛을 뿌렸다. 그 빛 아래로 짙은 콧수염이 난 강인한 얼굴과 분노에 찬 눈동자가 드러났다. 남자는 매서운 눈

빛으로 지하 묘실의 구석구석을 훑더니, 마침내 내 동료와 나를 향해 살기 어린 시선을 고정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그가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땅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홈즈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두어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들고 있던 묵직한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내 말 안 들려?” 그가 소리쳤다. “당신 누구냐고!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거냐!” 그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위협적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홈즈는 뒷걸음질 치는 대신, 오히려 그를 맞이하려 앞으로 나아갔다.

"로버트 경, 저도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엄중한 어조로 말했다. "이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몸을 돌려 등 뒤에 있는 관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랜턴의 강렬한 불빛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트에 싸인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얼굴은 코와 턱이 유난히 툭 튀어나온, 마치 마녀처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변색되어 부스러져 가는 얼굴 위로, 흐릿하고 번들거리는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준남작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돌로 만든 석관에 몸을 기대어 간신히 버텼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가 외쳤다. 그러더니 다시금 특유의 까칠한 태도로 돌아와 덧붙였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소?"

“내 이름은 셜록 홈즈라네.” 동행인이 말했다. “아마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르겠군. 어쨌든 내 일은 다른 선량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네. 내가 보기엔 자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로버트 경은 잠시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았으나, 홈즈의 차분한 목소리와 냉정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는 결국 효과를 발휘했다.

“하나님 맙소사, 홈즈 씨, 정말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겉보기에는 제가 범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 설명은 경찰에게나 하셔야 할 것 같군요."

로버트 경은 넓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글쎄요,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상황이 어떤지 직접 보고 판단하시지요."

15분쯤 지나 우리는 그 저택의 총기 보관실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유리 덮개 뒤로 가지런히 놓인 매끄러운 총신들을 보니 그런 곳인 듯했다. 방 안은 안락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로버트 경은 잠시 우리를 기다리게 한 뒤 자리를 비웠다.

잠시 후 돌아온 로버트 경의 곁에는 두 사람이 더 있었다. 한 명은 마차에서 보았던 혈색 좋은 젊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불쾌할 정도

로 눈치를 살피는 태도를 지닌, 쥐를 닮은 왜소한 사내였다. 두 사람 모두 몹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는데, 이는 경이 급변한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할 겨를조차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저기 있네." 로버트 경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노렛 부부라네. 노렛 부인은 결혼 전 성이 에반스인데, 수년 동안 내 누님의 전속 하녀로 일해 왔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건, 자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두 사람뿐이라네."

"정말 이러셔야겠습니까, 로버트 경?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계신 건지 생각은 해보신 거예요?" 여인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오." 남편이 말했다.

로버트 경은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그가 말했다. "자, 홈즈 씨, 이제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요."

"내 사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더비 경주에 다크호스(전력이 알려지지 않은 복병 말)를 출전시키고 있고, 모든 것이 그 말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만약 진다면…… 아, 차마 그 결과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저는 누님인 레이디 비아트리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님이 이 영지에 대해 가진 권리가 오직 누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얽매여 있는 처지입니다. 누님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채권자들이 독수리 떼처럼 제 재산을 덮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마구간과 말들을 포함해 모든 것이 압류당하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홈즈 씨, 제 누님이 바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앞에는 완전한 파멸뿐이었습니다. 딱 3주만 버텨낼 수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상황이었지요. 하녀의 남편,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아니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누이를 대신 연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녀 말고는 아무도 누이의 방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 매일 마차에 타고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요. 제 누이는 오랫동안 앓아온 부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건 검시관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녀의 주치의라면 지난 몇 달간 나타난 증상들이 충분히 그런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신을 그곳에 계속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첫날 밤, 놀렛과 저는 시신을 지금은 쓰지 않는 오래된 우물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르던 스패니얼 한 마리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녀석이 문 앞에서 끊임없이 짖어대는 바람에, 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느꼈지요. 결국 스패니얼을 떼어놓은 뒤, 우리는 시신을 교회 지하 납골당으로 옮겼습니다. 홈즈 씨, 결코 모독을 하거나 불경스러운 짓을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를 욕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경, 당신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 같습니다."

준남작은 초조한 듯 고개를 저었다.

"말이야 쉽지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내 처지였다면 생각도 달랐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희망과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잠시나마 남편의 조상들이 안치된 관 속에 모시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성스러운 땅이니까요. 우리는 관을 열어 내용물을 꺼낸 뒤, 당신이 본 모습 그대로 그녀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꺼낸 유물들은 지하 묘지 바닥에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렛과 내가 그것들을 옮겼고, 그는 밤에 내려가 중앙 화로에서 그것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전부

입니다, 홈즈 씨.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나를 몰아붙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는지는 도저히 말로 다 못 하겠군요."

홈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로버트 경, 당신의 이야기에는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경주에 건 돈,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채권자들이 당신의 저택을 압류한다 해도 여전히 유효할 테니까요."

"말은 유산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 도박에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아예 경주에 내보내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죠. 불행하게도 제 가장 큰 채권자가 저의 가장 지독한 원수입니다. 샘 브루어라는 아주 비열한 놈인데, 예전에 뉴마켓 히스에서 그놈을 채찍으로 때려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저를 구해주려 할 것 같습니까?"

"로버트 경,"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까지만 제 소임을 다했을 뿐이니, 그 이후의 일은 경찰의 몫입니다. 경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 혹은 품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없군요. 왓슨, 벌써 자정이 다 되었네. 이제 우리의 소박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세나."

이제는 이 기이한 사건이 경(卿)의 행보에 비하면 훨씬 더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쇼스콤 프린스는 더비 경주에서 우승했고, 그 스포츠 애호가인 경은 도박 판에서 8만 파운드라는 거

금을 벌어들였다. 채권자들 또한 경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으며, 경은 그들에게 빚을 전부 갚고도 남은 돈으로 사회적 지위를 다시 세울 만큼 충분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과 검시관 모두 이 사건을 너그럽게 처리했다. 부인의 사망 신고가 지연된 점에 대해 가벼운 질책을 받았을 뿐, 운 좋은 이 주인은 이 기묘한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는 그 그림자마저 사라진 그의 경력은 앞으로 명예로운 노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12

은퇴한 물감 상인

은퇴한 채색공의 모험

그날 아침, 셜록 홈즈는 우울하면서도 철학적인 기분에 잠겨 있었다. 예리하고 실용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그에게도 이따금 이런 감정의 변화가 찾아오곤 했다.

"그를 보았나?" 그가 물었다.

"방금 나간 그 노인네를 말하는 건가?"

"정확합니다."

"네, 문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가련하고, 무력하며, 완전히 망가져 버린 존재로군."

“정확해, 왓슨. 한심하고도 덧없는 일이지. 하지만 삶이란 원래 모두 한심하고 덧없는 것 아닌가? 그의 이야기는 세상 전체를 비추는 작은 거울과도 같네. 우리는 무언가에 손을 뻗고, 그것을 움켜쥐려 애쓰지.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 손에 남는 게 무엇인가? 그림자뿐이라네. 아니, 그림자보다 더 나쁜 것, 바로 비극이지.”

"저분도 당신의 의뢰인 중 한 명인가요?"

“글쎄요,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보낸 사람이니까요. 의사들이 가끔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돌팔이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의사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환자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리는 없다고 말이죠.”

"무슨 일입니까?"

홈즈는 탁자 위에 놓인, 다소 더러워진 명함 한 장을 집어 들었다. "조사이어 앰벌리군. 예술 용품 제조업체인 브릭폴 앤 앰벌리의 하급 파트너였다고 적혀 있네. 물감 상자에서 이들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사업을 통해 자산을 꽤 모았고, 예순한 살의 나이에 은퇴했네. 루이샴에 집을 사고,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삶을 뒤로한 채 안식을 취하며 정착했지. 이 정도면 앞날이 꽤나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할 법도 하네."

"그렇고말고요."

홈즈는 봉투 뒷면에 휘갈겨 쓴 메모를 훑어보았다.

"1896년에 은퇴했네, 왓슨. 그리고 1897년 초에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어린 여성과 결혼했지. 사진이 실물보다 잘 나온 게 아니라면 아주 미인이라더군. 넉넉한 재산에 아내까지 얻었으니, 그에게 놓인 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자네도 보았듯이, 불과 2년 만에 그는 태양 아래 기어 다니는 생물 중 가장 망가지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네."

"하지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흔하디흔한 이야기라네, 왓슨. 배신하는 친구와 변덕스러운 아내라니. 앰벌리는 인생에서 딱 한 가지 취미를 가진 모양이야. 바로 체스지. 그가 사는 루이샴 근처에는 체스를 두는 젊은 의사가 한 명 살고 있네. 레이 어니스트 박사라고 적어두었네. 어니스트는 앰벌리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와 앰벌리 부인이 친해진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지. 자네도 인정하겠지만, 우리 불운한 의뢰인이 내면의 미덕이 어떠하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품위는 거의 없지 않은가. 두 사람은 지난주에 함께 떠났는데, 행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네. 게다가 그 신의 없는 배우자는 노인이 평생 모은 저축의 상당 부분이 든 서류 상자까지 자기 개인 짐인 양 챙겨서 들고 가버렸어. 우리가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면 흔해 빠진 문제지만, 조시아 앰벌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네."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 왓슨,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자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네. 괜찮다면 내 대신 현장에 나가주게나. 알다시피 나는 지

금 두 명의 콥트 총대주교 사건에 매달려 있네. 오늘 중으로 결판이 나야 할 중요한 사건이지. 그래서 루이샴까지 직접 나갈 시간이 도저히 없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채집한 증거는 그 가치가 남다르지 않은가. 그 노신사께서 내가 꼭 와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하셨지만, 내 사정을 잘 설명해 드렸네. 그분도 내 대신 대리인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네."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여름날 오후, 나는 루이샴으로 향했다. 내가 맡게 된 이 사건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영국 전역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그날 저녁 늦게서야 나는 베이커가로 돌아와 내가 수행한 임무에 대해 보고할 수 있었다. 홈즈는 깊숙한 안락의자에 수척한 몸을 길게 뻗고 누워 있었다. 그의 파이프에서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느릿하게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다. 눈꺼풀이 너무 나른하게 내려앉아 있어 언뜻 보면 잠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멈추거나 모호한 대목을 말할 때면, 홈즈의 눈꺼풀은 반쯤 들리며 나를 쏘아보았다. 레이피어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두 개의 회색 눈동자가 탐색하듯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조사이어 앰벌리 씨의 저택 이름은 '헤이븐'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홈즈, 당신도 흥미로워할 만한 곳이에요. 마치 몰락한 귀족이 하층민들과 어울려 사는 모습 같거든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단조로운 벽돌 거리와 지루한 교외 도로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 말입

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마치 고풍스러운 문화와 안락함이 모여 있는 작은 섬처럼 이 오래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끼가 얼룩덜룩하게 핀 높은 햇볕에 구운 벽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벽은 마치……”

"시적인 표현은 집어치우게, 왓슨." 홈즈가 엄하게 말했다. "벽이 높은 벽돌 담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네."

“맞습니다.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행인에게 묻지 않았더라면, 어디가 ‘헤이븐’인지 알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으며, 콧수염이 짙게 난, 꽤 군인처럼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답하더니, 묘하게 의아하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앰벌리 씨가 진입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잠깐 스치듯 보았을 뿐이라 그가 확실히 기이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밝은 빛 아래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훨씬 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이미 검토해 보았네만, 자네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하군.” 홈즈가 말했다.

그는 마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몸이 굽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듯 등은 둥글게 휘어 있었다. 하지만 처음 짐작했던 것처럼 유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깨와 가슴의 골격만큼은 거구

의 그것처럼 당당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체격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져, 다리는 마치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왼쪽 구두는 구겨져 있고, 오른쪽은 매끈하군."

"그 점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할 걸세. 난 이미 그의 의족을 알아봤거든. 계속하게."

그가 쓰고 있던 낡은 밀짚모자 아래로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뻗어 나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강렬하고도 열망에 찬 표정,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이 자리 잡은 그의 얼굴도 인상적이었다.

"아주 좋네, 왓슨. 그가 뭐라고 하던가?"

그는 자신이 겪은 억울한 사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진입로를 따라 걸어 내려갔고, 나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살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곳은 처음 보았다. 정원은 온통 잡초가 무성해 꽃이 지고 씨앗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인위적인 손길 대신 자연의 섭리에만 내버려 둔 듯한 방치된 느낌을 주었다. 품위 있는 여성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태를 견딜 수 있었을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택 역시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으나, 불쌍한 그 사내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고쳐보려 애쓰는 듯했다. 현관 중앙에는 초록색 페인트가 가득 담긴 커다란 통이 놓여 있었고, 그는 왼손에 두툼한 붓을 들고 있었다. 나무 구조물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나를 자신의 어두컴컴한 방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물론 그는 당신이 직접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한 기색이었다. "설마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특히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은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셜록 홈즈 씨처럼 유명한 분의 온전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는 말입니다."

"그에게 돈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네. '아니, 물론 그에게는 예술을 위한 예술일 뿐이지.' 그가 말했네. '하지만 범죄의 예술적인 측면에서라도, 그는 여기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왓슨 박사, 인간의 본성이란 게 이렇다네. 이 지독한 배은망덕함이라니! 내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 어떤 여자가 이토록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나? 그리고 그 젊은이도—내 아들이나 다름없었네. 우리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었지. 그런데 나를 대하는 꼴 좀 보게나! 오, 왓슨 박사, 정말이지 끔찍하고도 끔찍한 세상이야!'"

그의 노래는 한 시간 넘게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음모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당제로 일하며 저녁 여섯 시면 떠나는 여직원 한 명을 제외하면 단둘이 살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저녁, 노인 앰벌리는 아내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헤이마켓 극장의 상층석 두 자리를 예매했다. 하지만 막판에 아내가 두통을 호소하며 가기를 거부했다. 결국 그는 혼자 극장에 갔다. 이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아내를 위해 챙겨두었던, 한 번도 쓰지 않은 티켓을 직접 꺼내 보였기 때문이다.

“정말 놀랍군요. 아주 놀라워요.” 사건에 대한 흥미가 점점 고조되는 듯한 목소리로 홈즈가 말했다. “계속해 보세요, 왓슨. 당신의 이야기에 아주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 티켓을 직접 조사했습니까? 혹시 번호도 적어 두었나요?”

“공교롭게도 그랬습니다.” 나는 약간의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다. “마침 제 학창 시절 번호가 3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쏙 박혀 버렸습니다.”

"훌륭해, 왓슨! 그렇다면 그의 좌석 번호는 30번 아니면 32번이었겠군."

"정말 그렇군요." 나는 다소 의아한 기분으로 대답했다. "B열이라니요."

"아주 만족스럽군요. 그가 또 무엇을 말하던가요?"

“그는 본인이 금고라고 부르는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도 은행 금고처럼 철제 문과 셔터가 달린 아주 튼튼한 방이었고, 그의 주장대로 도둑이 절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복제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약 7,000파운드 상당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유가증권이라니! 그걸 대체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는 경찰에 목록을 전달하며, 그 물건들이 팔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정쯤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 현장은 이미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문과 창문은 열려 있었고 도망자들은 사라진 뒤였죠. 남겨진 편지나 메시지는 없었으며,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홈즈는 몇 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요? 무엇을 그리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는 복도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방의 문과 목재 장식들은 이미 다 칠해둔 상태였고요."

"상황이 이런데, 저런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아픈 마음을 달래려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그가 직접 내놓은 설명이었다. 의아한 말이었으나, 그는 분명 괴짜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아내의 사진 중 한 장을 찢어버렸다.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아주 사납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 빌어먹을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더 들려줄 이야기는 없나, 왓슨?"

"네, 무엇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히스 역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옆 칸으로 어떤 남자가 급히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홈즈, 제가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본다는 건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제가 거리에서 말을 걸었던 그 키 크고 검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런

던 브리지 역에서 그를 한 번 더 보았지만, 그 뒤로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자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틀림없어! 틀림없고말고!" 홈즈가 말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으며, 콧수염이 짙게 난 남자라고 했나? 회색빛 선글라스를 쓴 사람 말이야?"

"홈즈, 당신은 정말 마법사군요. 제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회색빛이 도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 문양의 넥타이핀도 말입니까?"

"홈즈!"

"아주 간단하네, 왓슨.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넘어가세.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단순해서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지금은 아주 다른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네. 자네가 임무 수행 중에 중요한 단서들을 모두 놓친 것은 사실이지만, 자네의 눈에 띈 그 사소한 것들조차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들이 되었군."

"내가 무엇을 놓친 거지?"

"너무 상처받지 말게, 친구. 자네도 알다시피 난 지극히 공정하지 않은가. 나보다 더 잘해낼 사람은 없을 걸세. 어떤 이는 나만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분명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고 있어.

이 앰벌리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에 대해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건 분명 중요한 정보일세. 어니스트 박사는 어떤가? 흔히 예상하듯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사람인가? 왓슨, 자네는 타고난 매력이 있으니 어떤 숙녀라도 자네의 조력자이자 공범이 되어줄 걸세. 우체국에 있는 처녀는 어떻고, 채소 가게 주인의 아내는 어떤가? 자네가 '블루 앵커'의 젊은 아가씨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건네고, 그 대가로 아주 묵직한 무언가를 받아내는 모습이 눈에 선하군. 자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전화기와 스코틀랜드 야드의 도움 덕분에, 보통은 이 방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그 남자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는 구두쇠일 뿐만 아니라, 가혹하고 까다로운 남편으로 지역 사회에 정평이 나 있더군요. 그가 금고에 거액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실합니다. 또한 미혼인 젊은 어니스트 박사가 앰벌리와 체스를 두었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아내를 상대로 바보짓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하고요. 이 모든 정황은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할 법도 하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어디가 문제라는 건가?"

"내 상상일지도 모르지. 뭐, 그 이야기는 이쯤 해두세, 왓슨. 음악이라는 뒷문을 통해 이 지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보세나. 오늘 밤 알

버트 홀에서 카리나의 공연이 있네.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고 즐기기에도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아침 일찍 눈을 떴으나, 식탁에 흩어진 토스트 부스러기와 빈 달걀 껍데기 두 개를 보니 동료인 홈즈는 나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다. 탁자 위에는 휘갈겨 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친애하는 왓슨에게—

"조사이어 앰벌리 씨와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사건을 종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지요. 3시쯤에는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S. H.

하루 종일 홈즈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는 돌아왔다. 표정은 무겁고 생각에 잠긴 듯했으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무척 심란해 보였다. 그럴 때면 그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했다.

"앰벌리가 벌써 다녀갔습니까?"

"아니오."

"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곧이어 그 노신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엄격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당혹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홈즈 씨, 전보를 한 통 받았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전보를 건네자, 홈즈가 그것을 소리 내어 읽었다.

"반드시 즉시 오시오. 최근 겪으신 손실에 대해 정보를 줄 수 있소. — 엘먼. 사제관에서."

“리틀 터링턴에서 2시 10분에 발송되었군.” 홈즈가 말했다. “리틀 터링턴은 에식스주에 있는 것으로 아네, 프리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 자, 당연히 즉시 출발해야겠어. 이건 분명히 그 지역 신부님이 보낸, 신뢰할 만한 인물의 메시지야. 내 크록포드 사전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군. J. C. 엘먼, 문학 석사, 모스무어 컴 리틀 퍼링턴의 주임 신부. 왓슨, 열차 시간표를 좀 찾아보게.”

"리버풀 스트리트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 왓슨, 자네가 그와 함께 가는 게 좋겠네.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사건은 분명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었군."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결코 서둘러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홈즈 씨."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수로 벌어진 일을 안단 말입니까?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당신에게 전보를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가겠다는 답신을 보내세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홈즈는 가장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앰벌리 씨, 이렇게 명백한 단서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추적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경찰은 물론 저에게도 최악의 인상을 남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번 조사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 제안을 들은 의뢰인은 경악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가야지요." 그가 말했다. "겉보기에는 이 목사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네."

홈즈가 강조하며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인 여정에 올랐다. 방을 나서기 전, 홈즈는 나를 따로 불러 한마디 조언을 건넸다. 그 말에서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자가 정말로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게.” 홈즈가 말했다. “만약 그자가 도망치거나 다시 돌아온다면, 즉시 가장 가까운 전화국으로 가서 ‘Bolted(도주)’라는 단 한 마디만 보내게.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해 두겠네.”

리틀 퍼링턴은 지선이 지나는 곳이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동네다. 그 여정에 대한 기억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 날씨는 무더웠고 기차는 느릿느릿 움직였으며, 동행한 이는 시종일관 뚱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에 대해 가끔 냉소적인 한마디를 던질 뿐,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작은 역에 도착한 뒤에도, 그곳에서 사제관까지는 다시 마차를 타고 2마일을 더 가야 했다. 사제관에 도착하자 덩치가 크고 엄숙하며 다소 거만한 기색이 역력한 성직자가 서재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그의 앞에는 우리가 보낸 전보가 놓여 있었다.

"자, 신사 여러분," 그가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내신 전보를 받고 왔습니다." 내가 설명했다.

"제 전보라고요? 전보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조사이어 앰벌리 씨에게 보낸 전보 말입니다. 그의 아내와 재산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보 말이에요."

"만약 이게 농담이라면, 선생님, 참으로 질 나쁜 농담이군요." 목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말씀하신 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누구에게도 전보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과 나는 서로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혹시 사제관이 두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엘먼이 서명하고 사제관에서 보낸 전보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근방에 사제관은 단 하나뿐이고 교구 신부도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이 전보는 명백한 위조품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그 출처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면담을 더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앰벌리 씨와 나는 영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처럼 보이는 곳의 길가에 서 있게 되었다. 서둘러 전신국으로 향했지만, 이미 문은 닫힌 뒤였다. 다행히 '레일웨이 암스'라는 작은 여관에 전화기가 한 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홈즈에게 연락을 취했고, 홈즈 역시 우리가 마주한 결과에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말 기묘하군!"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놀라워! 이보게, 왓슨.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돌아가는 기차가 없는 것 같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네를 시골 여관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말았군. 하지만 왓슨, 우리에겐 언제나 자연이 있지 않나. 자연과 조사이어 앰벌리, 이 두 존재와 아주 긴밀하게 교감할 수 있을 걸세." 그가 몸을 돌려 멀어지며 건조하게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동행이 구두쇠라는 명성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는 여행 경비가 들 때마다 투덜거렸고, 기차는 반드시 3

등석으로 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이제는 호텔 숙박비가 비싸다며 요란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을 때 우리 중 누가 더 기분이 저조한지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베이커가에 들르는 게 좋겠소." 내가 말했다. "홈즈 씨에게 새로 전달된 지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지난번 것들보다 가치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앰벌리는 악의 어린 표정으로 쏘아붙이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 곁을 지켜주었다. 나는 이미 전보를 보내 우리가 도착할 시간을 홈즈에게 알려두었으나, 도착해 보니 홈즈가 루이샴에 있으니 그곳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의뢰인의 거실에 홈즈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홈즈의 옆에는 엄격한 인상의 무표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회색빛 안경을 쓴 검은 인상의 남자로, 넥타이에는 커다란 프리메이슨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이쪽은 내 친구 바커 씨라네." 홈즈가 소개했다. "조사이어 앰벌리 씨, 비록 우리는 각자 따로 움직여 왔지만, 바커 씨 또한 당신의 사건에 관심을 두고 조사해 왔지. 하지만 우리 둘이 당신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결국 하나라네!"

앰벌리 씨는 무겁게 주저앉았다. 그는 곧 닥쳐올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다. 잔뜩 긴장한 그의 눈빛과 경련하는 얼굴 근육을 보니 분명 그랬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홈즈 씨?"

"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신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남자는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뼈만 남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발버둥 쳤다. 입을 벌린 그의 모습은 찰나의 순간, 마치 끔찍한 맹금류처럼 보였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조사이어 앰벌리의 본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뒤틀린 육체만큼이나 영혼마저 일그러진, 기괴한 악마였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며, 마치 기침을 참으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홈즈가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그의 목을 낚아챘고, 그의 얼굴을 바닥 쪽으로 꺾었다. 그러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의 입술 사이로 하얀 알약 하나가 떨어졌다.

"지름길은 없네, 조사이어 앰벌리.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처리되어야 하는 법이야. 자, 바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문 앞에 마차를 불러 두었네." 말수가 적은 우리의 동료가 말했다.

"역까지는 고작 몇 백 야드밖에 안 되네. 같이 가도록 하지. 왓슨, 자네는 여기 있게. 삼십 분 안에는 돌아오겠네."

늙은 안료 상인은 그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사자 같은 힘을 내뿜었으나, 노련한 두 명의 사람 다루는 전문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

는 몸을 비틀고 뒤틀며 저항했지만, 결국 대기 중이던 마차로 끌려 나갔다. 나는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이 저택에 홀로 남아 경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홈즈는 그가 말했던 시간보다도 더 빨리, 깔끔한 차림의 젊은 경찰 경위와 함께 돌아왔다.

“행정적인 절차는 바커에게 맡겨 두었네.”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는 바커를 만난 적이 없었지? 그는 서리 해안가에서 내가 아주 몹시 싫어하는 라이벌이라네. 자네가 키가 크고 검은 인상의 남자를 언급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네. 그가 해결한 훌륭한 사건이 꽤 많지 않나, 경위님?”

"그가 분명 몇 차례 개입하긴 했습니다." 경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방식이 내 방식처럼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때로는 이런 비정규적인 방식이 유용할 때가 있지. 예를 들어 자네를 보게나. 자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매번 주의를 주지 않나? 그런 태도로는 이 악당을 속여서 사실상의 자백을 끌어내는 식의 허를 찌르는 수법은 절대 쓸 수 없었을 걸세."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홈즈 씨,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곳에 도달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세워두었으며, 범인을 직접 붙잡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방식대로 갑자기 끼어들어 공을 가로채 가시니, 저희로

서도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이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강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걸세, 맥키넌. 장담하건대, 나부터 앞으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겠네. 바커에 대해서라면, 그는 내가 시킨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경위는 안도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홈즈 씨. 당신에게는 칭찬이나 비난이나 별 의미가 없겠지만, 신문사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질문을 받게 될 테니, 미리 답변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겠지요. 예를 들어, 영리하고 수완 좋은 기자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점 때문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경위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홈즈 씨, 아직 확실한 사실은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당신 말로는 피의자가 세 명의 목격자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아내와 그 정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사실상 자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당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또 있습니까?"

"수색 준비는 끝났습니까?"

"순경 세 명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네."

“그러면 곧 가장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될 걸세. 시신들이 멀리 있지는 않을 거야. 지하실과 정원을 먼저 뒤져보게. 의심스러운 곳을 파헤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이 집은 수도관이 깔리기 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네. 분명 어딘가에 쓰지 않는 우물이 있을 거야. 그곳을 한번 찾아보게나.”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대체 어떤 수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먼저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여드린 다음, 마땅히 드려야 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내내 큰 도움을 준, 인내심 강한 내 친구에게는 더욱 상세히 설명해야겠군요. 하지만 그전에 이 남자의 심리 상태를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특이한 정신 상태거든요. 그 정도라면 사형대보다는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는 현대 영국인보다는 중세 이탈리아인에게서나 볼 법한 사고방식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 인색한 성미 때문에 아내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고, 결국 어떤 모험가에게든 쉽게 넘어갈 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체스를 두던 이 의사가 나타난 겁니다. 왓슨, 앰벌리가 체스에 능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것은 교활한 두뇌를 가졌다는 증거니까요. 모든 구두쇠가 그렇듯 그 역시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질투는 결국 광적인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옳든 그르든 그는 아내가 음모

에 휘말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수를 결심했고, 악마 같은 영악함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리 좀 와보게!"

홈즈는 마치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우리를 안내하더니, 금고실의 열린 문 앞에 멈춰 섰다.

"우웩! 페인트 냄새가 아주 고약하군요!" 경위가 외쳤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단서였네." 홈즈가 말했다. "왓슨 박사의 관찰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비록 박사가 거기서 직접적인 결론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그 덕분에 내가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네. 왜 이 남자가 하필 이 시점에 집안을 강한 냄새로 가득 채운 걸까? 분명히 숨기고 싶은 다른 냄새, 즉 의심을 살 만한 범죄의 흔적을 감추려 한 게 틀림없네. 그다음엔 철제 문과 셔터가 달린,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밀폐된 방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어디로 연결되겠나? 그 결론을 확인하려면 직접 집을 조사하는 수밖에 없었네. 나는 이미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확신이 들었지. 헤이마켓 극장의 좌석표를 확인했거든. 이것 역시 왓슨 박사가 정확히 짚어낸 또 하나의 단서였네. 확인 결과, 그날 밤 상층부의 B 30번과 32번 좌석은 비어 있었어. 즉, 앰벌리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의 알리바이는 무너진 셈이지. 그는 내 영리한 친구가 아내를 위해 예매한 좌석 번호를 눈여겨보게 만드는 큰 실수를 저질렀네. 그다음 문제는 어떻게 집을 조사하느냐였지.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기 힘든 마을에 요원을 보냈고, 도저히 제시간에 돌아올 수 없는 시각에 그 마을로 내 표적, 즉 앰벌리를 불러냈네. 혹시라도 일이 틀어질까 봐 왓슨 박사

가 그와 동행했지. 인품 좋은 목사님의 성함은 당연히 내 크록포드 인명사전에서 찾아냈고 말이야. 이제 내 설명이 명확히 이해되나?”

"정말 완벽하군요." 경위가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방해받을 염려가 없었기에 나는 곧장 집 안으로 침입했다. 만약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빈집털이꾼도 대안적인 직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분야에서도 꽤 이름을 날렸으리라 확신한다. 내가 무엇을 찾아냈는지 잘 보라. 여기 걸레받이를 따라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아주 좋다. 관은 벽 모서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여기 구석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다. 보시다시피 관은 금고 안으로 이어지며, 천장 중앙의 석고 장식 속에 숨겨진 꽃무늬 문양 안에서 끝을 맺는다. 그런데 그 끝이 활짝 열려 있었다. 외부의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방 안을 가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상태였다. 문과 덧창을 닫고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놓는다면, 저 작은 방에 갇힌 이들은 채 2분도 채 의식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어떤 악랄한 수법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유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문 안으로 들어온 이상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위는 흥미롭다는 듯 파이프를 살펴보았다.

"우리 쪽 경관 중 한 명이 가스 냄새가 났다고 보고하긴 했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히 창문과 문이 열려 있었고, 페인트—혹은 페인트 일부—가 이미 주변에 퍼져 있는 상태였지요. 앰벌리 본인의 말에 따르면, 페인트칠 작업은 전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홈즈 씨?"

"그러던 중 나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이른 새벽, 나는 식료품 저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내 옷깃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이 악당 같으니! 거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고개를 돌려 확인해보니, 내 친구이자 라이벌인 바커 씨가 색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만남이었기에, 우리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레이 어니스트 박사의 가족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역시 이 사건이 누군가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커 씨는 며칠 동안 이 집을 감시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곳을 방문한 수상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왓슨 박사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왓슨을 함부로 체포할 수는 없었지만, 한 남자가 실제로 식료품 저장실 창문을 타고 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자 더는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함께 사건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입니까? 왜 우리가 아닙니까?"

“그 작은 시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네. 아주 훌륭하게 답이 나왔지. 자네라면 아마 거기까지는 못 갔을 것 같군.”

경위가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그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지금 즉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지금까지 얻은 모든 조사 결과를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자, 경찰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명백한 사건 같군요. 시신을 처리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는 않겠지요."

"아주 암울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지요." 홈즈가 말했다. "앰벌리 본인조차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경위님, 항상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그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지요. 자, 이제 경위님이 이 작은 방에 갇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은 수명은 채 2분도 되지 않는데, 문 너머에서 분명 비웃고 있을 그 악마에게 복수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경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번역할 원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종이에 적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겠지요. 누군가에게 들키기 십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벽에 적어둔다면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걸레받지 바로 윗부분에 보라색 불변 잉크 연필로 이렇게 휘갈겨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겨우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정도 높이일 뿐입니다. 불쌍한 그 사람은 글을 쓸 당시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미처 다 쓰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살해당했다'라고 쓰고 있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만약 시신에서 지워지지 않는 연필을 발견한다면——"

"그건 저희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장담하죠. 하지만 그 유가증권 말입니다. 이건 명백히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분명히 그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자가 분명 안전한 곳에 그것들을 숨겨두었을 겁니다. 도주 사건이 일단락되어 모두가 잊힐 때쯤, 그는 갑자기 그것들을 찾아내겠지요. 그러고는 죄를 지은 그 커플이 마음을 돌려 약탈한 물건을 돌려보냈거나, 오는 길에 흘렸다고 발표할 겁니다."

"당신은 정말이지 모든 난관을 빈틈없이 대비해 두신 것 같군요." 경위가 말했다. "물론 그가 우리를 부른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왜 하필 당신을 찾아갔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저 허세일 뿐이야!" 홈즈가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고 확신에 차 있다고 믿은 나머지,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의심스러운 이웃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었

을 테니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시오. 경찰은 물론이고, 셜록 홈즈에게까지 자문을 구했단 말이오'라고 말이야."

경위가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 씨, '심지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용서해 드려야겠군요." 그가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보다 더 능숙한 솜씨로 처리된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내 친구는 격주간지로 발행되는 《노스 서리 옵저버》 한 부를 내 쪽으로 툭 던졌다. "헤이븐의 공포"로 시작해 "경찰의 눈부신 수사"로 끝나는 강렬한 헤드라인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상세히 다룬 기사가 빼곡하게 실려 있었다. 마지막 단락은 이 기사 전체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매킨넌 경위가 페인트 냄새를 맡고 그 속에 가스 냄새 같은 다른 악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론해낸 놀라운 통찰력, 금고가 곧 살해 현장일 수도 있다는 대담한 추측, 그리고 이어지는 수사 끝에 개집으로 교묘히 가려진 폐우물 속에서 시신들을 찾아낸 과정은 범죄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는 전문 형사들이 지닌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허허, 맥키넌은 참 괜찮은 친구라니까.” 홈즈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왓슨, 이 이야기는 우리 기록 보관소에 잘 넣어두게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테니까.”

영국 버틀러 앤 태너(Butler & Tanner Ltd.) 출판, 프룸 및 런던 인쇄

셜록 홈즈의 모험. 셜록 홈즈의 회상록. 셜록 홈즈의 귀환. 마이카 클라크. 폴 스타호의 선장. 네 개의 서명. 화이트 컴퍼니. 피난민들. 스타크 먼로의 편지. 제라드 준장의 활약상. 로드니 스톤. 버낙 삼촌. '코로스코'호의 비극. 이중주, 간간이 들리는 합창과 함께. 녹색 깃발.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제라드의 모험. 나이젤 경. 마법의 문을 지나. 벽난로가에 둘러앉아 듣는 이야기들. 마지막 갤리선. 잃어버린 세계. 붉은 등불 주위에서. 공포의 계곡. 그의 마지막 인사. 위험!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거들스톤 상사. 모험과 의료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 옛날이야기. 해적과 푸른 바다의 이야기들. 반지와 야영지의 이야기들. 공포와 미스터리의 이야기들. 황혼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들. 행동의 노래. 길 위의 노래. 경비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다른 시들. 시: 전집. 그들 중 셋: 회상.

잔 다르크의 수수께끼. 레옹 드니 저. A. 코난 도일 역.